제대로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 복리저축 보너스 보존금리로 내림해는 확정금리로!
• 교육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중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8월 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화합이란 남을 먼저 하고 나를 뒤로 하여 이름과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다.
(유행경)

**법회 안내**

정중선원 (02)573-8506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금강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교리법회 매주 수 오후1시
원성스님 초청법회 8월 14일 오전10시30분
그사스님 초청법회 8월 21일 오전10시30분

부산 대각사 (051)245-8781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초여드레법회 8일(음) 오전11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부산 해인선원(051)628-7200
선의세계 강좌 매주 월 오전 10시, 오후 7시
기초교리 강좌 매주 수 오전 10시, 오후 7시
영가백일기도천도재 매주 목 오전 10시, 오후 7시
천수경 강좌 매주 금 오전 10시, 오후 7시

해동 용궁사(0523)362-7744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호국 연호사 (0356)85-0686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일요정기법회 일 오전10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자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 "불합리한 조항 개정하자"

## 조계종, 전사법등 불교 관계법 국회 상정 추진

조계종은 불교관련 국가법령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 위해 시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대 종회때 정부에 건의했던 개정안을 토대로 지난해 개혁회의에서 각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된 내용을 보완해 만들어지는 이번 개정의 대상은 △전통사찰보존법(동시행령) △공원관계법(자연공원법 및 동시행령 도시공원법및 동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동시행령) △도시계획법(동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동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동시행령) △지방세법(동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동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등.

이 법들은 현재 시행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고 사찰령정은 물론 불교재산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있는 불합리한 관련 법조항들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 종단행안문제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휴스님)는 지난 25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10일까지 개정시안을 마련 문체부 재경원 농림수산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개정안을 협의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개정전사법에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전통사찰위원회' 설치, 경내지 범위 규정, 분규사찰 재산관리인 임명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갈 예정. 또 공원관리법에 국·도·군립공원 지정시 조계종 총무원장 및 당해 사찰 주지와 사전 협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조계종 총무원장 당연직 이사로 참여, 국립공원위원회에 조계종 소속 승려 참여, 전통사찰에 대한 건축행위시 건축법 적용제외 등 중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조계종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견지하면서 불교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선에서 종회특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서로 상충되는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안이 마무리되면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국회에서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은 지난 89년 전사법 등 총 17건에 달하는 불교관계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으나 일부가 받아들여졌을 뿐 대부분이 기각됐다. 종단의 한 관계자는 "올 가을 국회에서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고 지난 92년 대선 공약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불교관계 법령 개폐를 약속한 바 있다"며 관계법 개정에의 기대를 표시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해방후 현재까지의 불교관련 판례집을 이달말 발간한다.

이 판례집에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 재판유형별로 해설이 자세히 곁들여진다.

〈이경숙 기자〉



"생명의 바다 어디로"

7월23일 최초의 유조선 시 프린스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남해안 청정지역을 오염시켜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전문가들은 오염이 제거돼 다시 청정지역으로 되돌아가기에는 20년~1백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 '사찰 과세 제외' 교계 환영

## 민자당 토초세 폐지·종토세 인하 작업 기대

민자당이 그동안 논란이 컸던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50%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해 교계가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민자당의 이와같은 방침은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등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구체적 보완조치 마련의 하나로 이미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는 폐지키로 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지가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과표의 현실화 때문에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현실화의 속도조절과 세율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부측과 이를 협의키로 했다. 또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도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사찰 소유 부동산은 수익내지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사, 시주등 예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 대부분이고, 포교등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지며 전통사찰의 재산처분 역시 정부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가능하기에 부동산 투기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사찰의 토지는 당연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 성보전시관 건립예산 긍정 검토

## 재경원·국회문체위 협력의사 밝혀

성보전시관 건립 예산과 관련 국회 문공체육위원회 신경식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오후2시 재경원 문체부장관 등과 국회 문공체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예산심의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불교 성보전시관 건립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24일 재경원에서 법타(조계종 총무부장) 시현(조계종 문사부장)스님과 만난 이영탁 예산실장 역시 "성보전시관 건립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 몸어

삼풍의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청정해역 남해가 죽어가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사고와 재해의 연속선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대로 가꾸어온 청정해역이 다시는 원상복구가 안될 것 같은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룹니다."

"생활터전인 공동어장이 기름투성이가 돼 당장 생계가 걱정입니다."

"우물도 기름섞인 바닷물로 오염돼 청소한후 겨우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풍 계이로 인해 좌초된 '시 프린스'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확산되면서 생업의 현장인 황금어장을 앞은 어민들의 절망과 한숨은 보기도 듣기도 민망할 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로서 천재(天災)에 인재(人災)가 겹친 합작품이라니 또 한번 아연 실색할 수 밖에 없다.

재난대비 경각심이나 예방은 커녕 재해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고 방심해 20년~100년이 걸려야 원상회복이 가능한 무서운 사고를 불렀다니 그저 참담할 뿐이다.

청정해역이 죽음의 바다로 변하는 이 무서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이는 곧 우리 삶의 오염이며 파괴다. 이런 끔찍한 사고를 바라보면서도 정부는 지난달 26일 환경분야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와 환경보호 책무를 포기하는 시대 역행적 처사'라는 '법개정 저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길 바란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겪는 재해의 아픔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되돌아 보아야겠다.

법구경에 '허술하게 이은 지붕에는 비가 새고, 잘 덮인 지붕에는 비가 새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다.

## 허술하게 이은 지붕

금주별쇄 대판 4면·타브로이드판 4면
교계에 연수교육 바람 15면
'5백도적 나한으로' 영화 카루나 몽골 촬영 20면
여름휴가 관계로 다음주 휴간합니다

우드텍 자연주의
집안으로 옮겨놓은 대자연의 숨결
온돌전용 나무 마루재 우·드·텍

거실에서 주방·온돌방까지

원하는 곳 어디나…

마루난방에 적격입니다
휘어짐, 뒤틀림 등 기존 목재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온돌 전용 나무 마루재입니다.


내구성이 강합니다
강화 아포크 처리에 의해 어떠한 마루난방의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JAS(일본 공업규격)보다 약 2배의 내마모성을 가진 사이텍스 처리로 목재 특유의 아름다움이 언제나 유지됩니다.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재와 목재의 접합부분을 전용접착제로 견고하게 접착하는 네다레스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시공실적
• 현대건설 청담동 VILLA
• 현대건설 [illegible] 주상복합
• 나산건설 보래미 [illegible]
• 나산건설 서초 주상복합
• 동부건설 우면동 VILLA
• 신동아건설 압구정동 VILLA
• 현대건설 중계동 VILLA
• 여경 DEPT(협조용)
• [illegible] DEPT(협조용)
WOODTEC
ES 청보산업주식회사
우드텍 사업부: 강남구 도곡 2동 454-56 (도곡전시장) 동화빌딩 전화 579-2793~4
본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23-5(덕영빌딩) 전화 572-0662 / 팩스 575-9728
주요업종 인테리어 · 강화 무늬 · 식물기계 ENG · 건설자재
서울 대리점 우신 코퍼레이션 (02)515-9653~4 코인상사 (02)564-3171
경기 대리점 이건산업 (0341)857-9151~9 비닉스 (0342)701-6055 진흥주택 (0331)282-7526 평진실업 (0321)549-2218~9
대구 대리점 동방상사 (053)766-9991
광주 대리점 규림상사 (062)676-2758
대전 대리점 삼동보일러 (042)932-3680

사 설

## 쉬운 경전만들기 '발등의 불'

불교의 교리하면 우선 어렵다는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어렵지 않았다. 부처님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려웠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런데 왜 불교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었는가?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에는 반드시 쉽게 알아 듣고 깨우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결집하고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졌다고 본다. 중국사람들은 유통하기 어려운 범어경전을 자기네 말인 한문으로 모든 경전을 번역하여 쉽게 활용하였으므로 중국에는 불교가 일반화하게 되었다.

한국불교는 한문 문화권에 속한 까닭에 한역대장경을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 이제 한글세대가 주류를 이루어 복잡한 한문경전을 대하면 딱딱하고 어려워 당혹감마저 느끼게 되었으니 불교교리가 어렵다는 말은 당연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불교가 빨리 일반화되려면 우리 말로 된 쉬운 경전이 보급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시대와 근기에 맞는 수기설법으로 사람들을 교화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백분 발휘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도 일반에 통용되는 가장 적합한 언어와 순리로 불경을 번역 보급하지 않으면 불교는 언제나 고답적인 것으로만 비쳐지게 된다.

현재까지 동국역경원에서 번역되어 간행해 온 경전은 30여년의 지지부진한 세월 속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재번역되지 않으면 역시 고문서로 취급받기 쉽다. 요즈음도 역경원에서 다소의 역경이 출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광고도 보급도 원활하지 못하고 번역된 말도 너무 어렵게 풀이되어 역시 무슨 뜻인지 난해한 점이 적지 않다.

시대에 부응하는 역경사업이 교육·역경·포교의 종단 삼대사업 중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역경도량을 개설하여 불교의 중점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난달 21일 역경원후원회가 발족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경원과 역경진흥원의 운영사업관계도 의심없이 정리되어야 하고 중앙승가대 역경연구소와 통합해 하나의 기구로 정립되고 힘이 결집되어 명실상부한 역경기관으로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경위원의 구성이다. 한문·범어·빨리어·서장어를 하는 사람은 물론 국어국문학자까지 포함한 역경인력을 모아서 경전의 의미에 충실하고 시대언어 표기에 적절한, 최대로 알기쉬운 불전 번역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종단은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역경예산을 중점배정하여 독립된 기관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스님들과 신도들도 불경이 설명하기 어렵고 난해하다는 말만 하면서 기다리지만 말고, 역경인력의 양성과 번역 출판기금에 출연하는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만 불교교리가 쉽게 대중에 접근되고 이해되어 생활불교로 보편화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열 린 마 당

이웃을 위한 봉사는 자기수행이다.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중요한 행동교육 평가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최근의 각종 대형사고에서도 봉사의 소중함이 거듭 강조됐다. 봉사현장의 목소리와 교계의 현황을 짚어본다.

## 자원봉사

### '삼풍 대참사' 봉사 소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 하자마자 많은 불자들이 구조현장으로 향했다.

나 또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사찰단위, 신행단체단위로 소매를 걷어부치고 봉사현장에 뛰어든 보살들은 대개가 자기일도 젖혀놓은 채 새벽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마련해 오후내내 구조원들과 실종자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구조에 지친 대원들을 따뜻한 미소와 음식으로 위로하는 일을 보람으로 삼았다.

봉사자체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헌신적이었지만 타 단체와 비교해 볼때 봉사활동의 행정적 지원체계는 전무한 상태였다.

타종교단체의 경우 강남 인근 교회들이 연대해

**"부처님 자비 몸으로 실천 실종자가족에게 작은 위안"**

교대로 음식을 마련해와 정해진 장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잘 정돈된 협조체계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불교는 사찰과 사찰간의 협조체계가 잘이뤄지지 않아 봉사장소가 여러번 변경되기도 했다.

불교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하고 조직적인활동을 위한 지도체계와 더불어 기존의 자원봉사단체를 결속시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될때 우리 불자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것이다.

이양숙 〈서울 상계동〉

###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 신청

얼마전 이웃 할아버지를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처음으로 봉사를 경험했다.

처음에 할아버지댁을 방문했을 때는 쑥스럽고 서먹서먹해서 이상했지만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도 하면서 5시간동안 봉사활동을 했다.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않아 거동조차 불편한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여느때와 달리 좀더 뜻있고 보람된 일을 해보기위해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에 신청을 했

**"양로원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 학교서 못배운 공부 하고파"**

다. 내또래의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했다고 한다. 나는 학교친구 2명과 함께 양로원과 유아원봉사를 신청했다.

양로원을 찾아가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나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로 생각하며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안마도 해드릴 생각이다.

다른 친구들은 방학동안 여행갈 계획도 세우고 바쁘지만 올 여름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하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른 많은 것들을 배울 생각이다.

권민경 〈성신중 1년〉

### 교계활동 현황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자원이자 포교방편이다.

불교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사찰, 신도단체의 소규모 활동에서부터 전문자원봉사단체의 활동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의 불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도 몇몇 미흡한 불교계의 행정적 지도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다.

### 간병·취사·무료진료·법률상담등 불자 적극 참여
### 체계적 봉사 미흡…종단 차원 '봉사단' 구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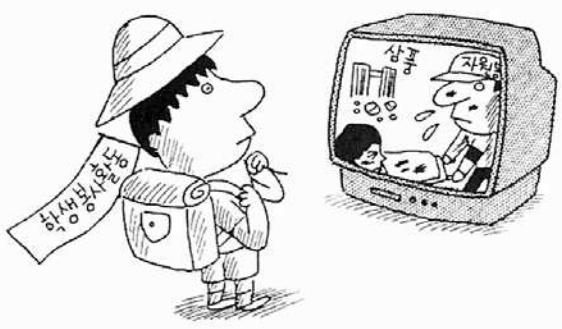
교계 자원봉사자의 주요활동을 보면 주 1회 3~4시간 정도로 불우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 가장세대등 불우한 사람들을 위하여 김장, 빨래, 취사, 장애인활동보조, 이미용 등 단순한 인적봉사활동에서 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교사들이 참여하는 무료법률상담, 무료진료, 간병, 학습지도 등 전문적인 봉사활동과 청소년 선도 및 상담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아직 불교계에는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해줄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회복지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자원봉사자 양성과 그 활동토대를 구축할 불교종합자원봉사단 설립이 대두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와 관련 현재 불교종합자원봉사단의 발족을 위해 기초작업을 진행중에 있어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불교사회복지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년부터 순수 민간 자원봉사단체에 국고보조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불교계도 이를 기점으로 불교종합자원봉사단을 서둘러 결성하고 정부지원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현 대 만 평 박 구 원




떠나기전에…

## 시 론

# "우리가 정말 이런 민족이구나"
## — 대고려 국보전 감상

금년 여름을 보내기엔 어느 해보다 장마와 태풍끝의 밝은 햇살과 폭염속의 한줄기 소낙비를 갈모하는 시간이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상처위에 날해의 바다가 시커멓게 죽어가는 골깊은 상처로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너 나 없이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으니.

도저히 용서 받지 못할 죄악의 규명에 앞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부도덕의 감염에 너 나가 부끄럽고, 세계화 덕분에 민족성이 추락했다.

졸속문화, 깜짝시대, 적당주의, 물질만능 등 온갖 수식을 동원하여 나라 안팎에서 떠들어대니 자책과 성찰로 고개를 들지 못할 뿐 의식구제의 대안과 본질적인 삶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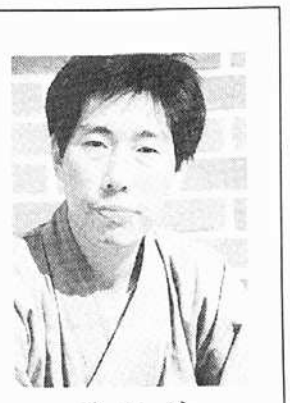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민족이었던가.

'아침의 나라' '유구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자랑한다고 글을 깨치면서부터 배워왔건만 어쩌다가 거품사회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었는가.

그러나 이같은 전율속에 칠월의 반란은 한편으로 세월을 거슬러 까마득한 곳에서 마치 샘물처럼 겨레의 숨결이, 혼백이 이 땅에 서리고 있다.

그것은 선악의 구별이요, 필시 애증(愛憎)의 교감일진데 오늘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두손 모은 간구였던가. 칠흑같은 어둠을 밀고 겨레에게 소생의 힘을, 원천의 감로수가 흘러 나온 곳이 같은 서울아래 펼쳐지고 있는 「대고려 국보전」(호암갤러리)이다.

한마디로 전시회의 충격은 폭풍과 장마끝의 햇살이요, 폭염속의 소나기였다. 나는 만나는 인연마다 이 감흥의 축복을 함께 나누자고 했다.



이 호 신
〈동양화가〉

### 세계속에 우뚝 선 전통문화

이제 무엇으로부터 떨어진 민족의 자존심을 추스리고,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가다듬어야 할지를 「대고려 국보전」은 오롯이 보여주고 있으므로. 한 시대의 삶과 본질이 문화의 소산이라고 할 때 고려문화는 땀과 영혼이 어우러진, 지극한 아름다움의 결정이다.

이미 세계적인 유산으로 꼽히는 고려불화와 청자는 물론 금속공예, 나전칠기, 회화, 건축, 석조물 모두 형태와 색채 그리고 기교와 완결성에서 더없는 규범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섬세하고 우아하며 화려한, 그러나 경박스럽지 않게 기품을 지닌 장중미요, 우리역사와 문화의 정화(精華)로서 전통성과 독창성을 지닌 채 세계와 국제성에 공감을 획득하고 있으니 말이다.

### 천년을 버틴 조상의 건축물

〈수월관음도〉〈지장보살도〉의 법열(法悅) 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공력과 색채의 장엄이, 〈감지금니 대보적경〉에서 보여주는 무아와 적멸의 선을 그려보인 고려인의 손끝 앞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청아한 가을하늘의 비색을 담았다는 도자기중 〈청자양각죽절문병〉〈청자칠보투각향로〉의 대나무와 연꽃형상을 조형한 감각은 세기를 초월한 감각의 극치이고,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청자진사채당초문완〉은 그 까다롭다는 진사(辰砂)를 칙칙한 녹색에서 진홍빛으로 건져낸 솜씨며 자신감이 농축된 조형의 변화는 실로 세계적인 명품이 아닐 수 없다.

어디 그뿐이랴. 공예분야인 〈나전대모국당초문열주합〉의 치밀하고 화려한 미의 공정과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무늬정병〉은 금속공예와 회화의 절묘한 만남을 보여준다.

또한 〈금동불감〉〈금동대탑〉〈용두보당〉〈금속활자〉 그리고 〈팔만대장경목판〉은 도대체 어느 민족의 숨결로 빚어진 것이란 말인가.

가슴저민 전시장을 나서면서 자신을 불러세운 의식은 지금 과거의 문화유산 자랑속에 파묻힌 오늘이 먼 훗날 이십세기 문화를 후세인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에 혼돈이 왔다.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이 천년을 버텨 오면서도 의연함과 장엄미를 잃지 않음에 반해 최신 현대공법의 백화점이 육년만에 꺼져 내린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최선과 교만의 행태요, 원칙과 태만의 간극이요, 자비와 이기의 분별이 아닐 것인가.

따라서 금년 여름의 애증을 두고 두고 잊지말자.

우리에게는 예로부터 지극한 영혼의 아름다움을 빚어온 성정(性情)이 있지 않은가. 그 자신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금 찾아 나서자.


정 중 선 원

고승초청 예수재 49일 기도

끊임없는 원력과 기도정진력으로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나가시는 불자님 가정에 항상 불, 보살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불자님의 기도 정진원력은 가정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름길이며 자신의 참 성품을 밝히고 무명 업식을 벗기며 윤회의 길을 벗어나는 선근종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윤회의 굴레에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명, 업식과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올바른 기도와 제불 보살님 그리고 참다운 선지식을 만나 올바른 길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저희 정중선원에서는 이 시대에 크나큰 선지식이신 일곱 분의 스승님을 초청 증명 법사로 모시고 영가 천도법회 및 생전예수재 법단을 마련하여 중생들이 무명 업식을 벗어나는 올바른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1. 예수재 : 입재 1995년 8월 14일 월요일
회향 1995년 10월 3일 화요일

1. 일곱 분 선지식 증명법사님 설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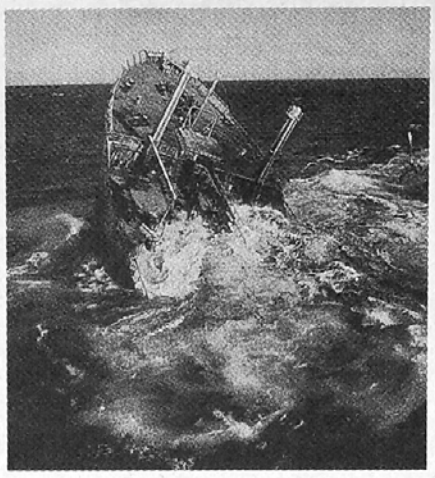
- 8월 14일 월요일 월 성 큰스님 (본원 선원장) (예수재란 무엇인가. 예수재의 공덕)
- 8월 21일 월요일 고 산 큰스님 (쌍계사 주지) (기도의 원력 그리고 성취에 대하여)
- 8월 28일 월요일 천 운 큰스님 (해남 대흥사 주지) / (기도와 보시정신)
- 9월 4일 월요일 혜 정 큰스님 (전 총무원장) (이웃을 부처님처럼, 전법의 기수가 되자)
- 9월 11일 월요일 월 탄 큰스님 (전 법주사 주지) (늘 깨어있는 불자가 되자)
- 9월 18일 월요일 밀 운 큰스님 (전 봉은사 주지) (청정도량을 만드는 보살)
- 9월 25일 월요일 무진장 큰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함께 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
- 10월 3일 화요일 회 향 식 (불교전통 범패 전수자 스님들의 바라춤, 나비춤, 회심곡 등으로 여법히 회향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18-7 영재빌딩 5층
대한불교 조계종 정중선원
TEL 573-8506 / FAX 575-2709
※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바람

# 바다 생태계 파괴되면 인류 미래도 어두워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재성 ⑳

## 기름띠·폐기물·해안개발이 요인…수백년 걸려야 회복



◇해양은 일단 오염되고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단시간에 완벽하게 회복되기 어렵다.

### 해양오염

부처님은 대루탄경(大樓炭經)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염부제는 큰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바다는 깊이가 8백40만 유순이고 그 넓이는 끝이 없다고 하였다. 이쯤되면 무한하기만 한 바다의 생태계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최근까지 모든 사람들은 바다의 광활함에 압도된 나머지 바다는 무한하고 영속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에 의하면 지구는 수많은 우주(三千大天世界)의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지구상의 바다는 그 표면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바람에 의해 줄어들기도 하고, 비가 내려 늘어나기도 하며, 세계가 괴멸될 때에는 태양열에 의해 사라져버리는 무상한 세계이다.

바다는 광활하지만 온갖 것을 무조건적으로 한계없이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얼마전에 여천 앞바다에서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좌초되어 1백50톤 가량의 유독성 벙커C유를 유출시켰는데, 이로 인해 인근 연안생태계가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있다. 1989년 알라스카에서 발생한 액슨 발데즈호의 무려 4만2천톤에 이르는 원유유출 사고로 한반도의 2백배에 이르는 연안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당시에 사고해역에서 8백50㎞나 떨어진 지역의 물새떼가 모두 사멸할 지경이었다. 아직도 유출된 기름의 12%가 바다속에 가라앉아 연안생태계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앞으로도 15년은 지나야 서서히 바다가 제 모습을 찾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91년 걸프전 때의 1백만톤의 원유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이 회복되기까지는 2백년이나 걸릴 것이다.

이러한 일시적 해양오염의 충격은 세월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사회에서 지속적인 해양오염은 범지구적인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는다.

해양오염의 3/4은 육지에서의 인간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바다의 오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안수역을 살찌우는 바로 육지의 강들을 통해 비롯된다. 영양분, 유기물질과 침전물, 병원균, 분화되지 않은 중금속과 독성물질, 원자력폐기물에 의한 열오염 등이다. 이러한 물질들은 연안지역에서 부영양화현상을 촉진시켜 햇볕을 차단시키고, 물고기와 해초류의 연안서식지를 파괴하며, 병원균과 독성물질을 축적시켜 죽음의 바다를 만든다.

그밖에 해양환경오염의 약 1/3이 대기 배출물질이 차지하는데, 이들 가운데 중금속과 휘발성유기물질의 상당량이 오염된 대기나 산성비를 매개로 바다에 전달됨으로 발생한다.

또다른 연안오염의 주요한 원인은 무분별한 연안개발이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해안을 따라 살고 있다. 해안을 개발하기 위해 습지에 물을 빼거나, 갯벌을 없애거나 산호초나 해초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영양분과 침전물 및 독성물질을 가두는 역할을 했던 지대가 소멸되어, 연안수역이 쉽게 오염되고 있다.

그러나 바다의 오염은 연안지역뿐만 아니라 광활한 외양이나 심해에까지 미치고 있다. DDT를 비롯한 분해되기 어려운 많은 유독성 화학물질은 연안수역이나 대기를 통해 대양으로 퍼져나가고 쓰레기나 기름띠는 전세계 주요 해상로를 따라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심해는 직접적으로 군사 폐기물이나 핵잠수함, 핵실험 등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 그리고 광활한 외양에서도 화학오염물질은 표층수에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중금속오염은 수면근처가 심해보다 10~100배가 높고, 살충제의 잔유물은 수백만배가 높다. 외양에서 표층수는 미생물의 서식지로서, 오염된 표층수는 먹이사슬을 타고 인간을 포함한 전 포유동물의 지방속에 축적되고 있다.

〈한국불교대 교수〉

## '95 신행 캠페인

#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나는 당신을 진실로 존경합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부처님같이 항상 받들고 존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능히 보살도를 수행하여 부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음왕여래(威音王如來)라는 부처님 재세시에 살았던 상불경(常不輕)보살은 늘상 사람들에게 이와같이 말했다고 한다.

금주의 주제 下心하기

사람은 모두 불성(佛性)을 지녔기에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남과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개인은 최소한 자기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이웃을 공경해야 한다는 명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남을 공경하는 일은 먼저 자신을 낮추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처음 절에 들어간 행자들이 하심(下心)공부를 위해 쉴 새없이 절을 하고 절 마당을 쓸고 물을 긷고 공양을 짓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심공부는 인내를 기르고 지극한 신심을 일구어 내는 기본 트레이닝으로서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수행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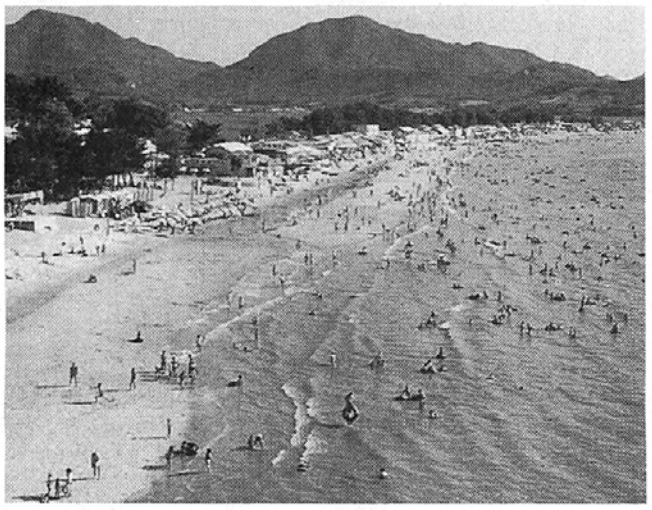
산문(山門) 밖에서의 하심공부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모든 일에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호감을 사고 결국 남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겸손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만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미움을 사고 끝내는 외톨이가 된다. 나를 낮추는 마음은 언젠가 나와 이웃을 함께 함께 존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 낮은 연못에 많은 물이 고이듯 겸손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따른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불자들은 생활속의 수행이 깊어질 수록 이웃을 공경해야 할 것이다. 나를 낮추는 생활은 다툼없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이다.

## 깨달음으로 가는 기초 수행

### '나' 낮추고 이웃공경하면 화목한 사회돼

# 신행수첩



◇ 학업에 짜든 청소년들에게 있어 여름바다는 마음을 열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련장이다. (사진은 변산해수욕장)

### 공부 지루하면 잠시 잊고 붓글씨·풍물 배우러 가자

학기중에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시간이 나질 않는다. 과외공부 등으로 다른 학우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은 신나는 방학이다. 재맞춰 어머니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 학기중의 지루한 공부를 잠시나마 잊어버릴 수 있다.

개금사회복지관은 어린이와 주부의 정서함양을 배가하는 '어린이 붓글씨 교실'(매주 화,수,목 4시30분~6시)과 '주부서예교실'(매주 화,수,목 3시~4시30분)을 개방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풍물교실'(매주 금요일 1시~2시30분)도 열어놓고 있어 뜻같이 학생의 입장이 되어보는 신명나는 기회가 될 듯. (051)893-5034

### 땅끝마을·미황사 참배

#### 부산불교교육원 답사여행

부산불교교육원(지도법사 성재도)은 불자들의 의식 고양과 부산지역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매월 정기적인 답사여행을 마련하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진행되는 7년 전통의 '우리문화기행'은 8월13일~15일까지 전남 땅끝마을을 출발, 미황사 대흥사 일지암 백련사석탑 다산초당 도갑사 무위사 보림사 운주사 쌍봉사를 거쳐 선암사에 도착하는 불교문화 답사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종착점인 백양산 선암사(仙巖寺)는 신라 문무왕 15년(675) 원효대사가 개창한 고찰로서 인도에서 옮겨온 석불이 봉안되어 있고, 절 뒤에는 해묵은 동백숲이 울창하고 오른쪽으로는 빼어난 절벽과 노송이 어울려 절경을 이루고 있는 성지다. (051)466-4080

### 스님훈장님 나타났어요

#### 법왕사 한문·영어학교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려는 노력은 각계에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사찰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한문과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대구 법왕사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교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여름 한문·영어학교'를 열었다.

방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열리게 되는 여름학교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8시부터 9시반까지 열린다.

한문은 이웃집 아저씨같은 스님이, 영어는 사촌누나같은 예쁜 보살님이 맡았다.

언제라도 접수 가능하며, 무료강의이니만큼 청명한 산사의 공기와 부처님 말씀 속에서 실력을 늘려보자 (053)766-9088

### 몸과 마음 조화찾는 수행

#### 대구구도회 요가스쿨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의 육도중생중 인간을 으뜸으로 꼽는 까닭은 몸과 마음이 적절한 균형을 갖추어 깨달음을 얻기위한 수행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간의 몸을 받는게 한량없는 복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의 몸은 바로 자성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신성한 사원. 이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수행에 큰 도움을 얻고 있는 모임이 있다.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회장 권오주)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인도 사이영가 요가스쿨을 이수한 현천스님(양산 흥룡암)을 초빙하여 요가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053)654-8533

### 옛장단에 희노애락 풀어

#### 조계사 한국무용 강좌

인간의 육체를 표현매체로 삼아 사상, 감정, 감각, 정서 등을 율동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무용이라 한다.

특히 한국전통민속무용은 우리의 생활속에서 시대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전승돼 온 것이다. 강강술래, 놋다리밟기, 살풀이, 승무, 봉산탈춤 등은 우리의 전통무용의 대표적이다.

조계사(주지 현근스님)는 매월초 1개월간의 과정으로 전통한국무용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화·금요일 오후2시 정화회관 2층에서 한순옥씨를 강사로 초청하는 만큼 전통 한국무용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02)720-6742

## '우리 자연의 숨소리 느껴봐요'

### '맑고 향기롭게' 본부 남양주로 식물탐사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진지한 자연사랑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연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가를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껴보는 것이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가 오는 9일 경기도 남양주군으로 식물탐사를 떠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라는 취지가 말해주듯이 우리 삶의 터전속에서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여행이다.

이번 탐사에서는 수목원의 연구원이 직접 식물들의 세계를 안내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면 더욱 뜻깊은 여행이 될듯하다.

식물탐사니만큼 돋보기가 꼭 필요하며 긴 바지에 긴 팔옷,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02)741-4696

생활속의 불교 ㉟

# 스트레스 받기 싫거든



**어**떤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거든 손을 관 밖으로 내놓게 하여 오가는 사람이 내 손을 볼 수 있게 하라."

세인의 부러움을 살 만큼 큰 재산을 모았던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공수래 공수거'였던 것이다. 그는 마감 직전에 평생의 어떤 언행보다도 값진 일을 한 셈이다.

**노**자는 말하기를 "참된 삶이란 날마다 비워가는 작업"이라고 했다. 성경에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가르친다. 불경에선 구구절절이 공(空)을 강조한다. 그럼으로써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위의 삶을 강조한다.

엄하디 엄한 계율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나를 비우는 연습이다.

**공**수래 공수거란 물질만을 대상으로 한 경구가 아니다. 마음까지를 포섭한 말이다. 우리 모두는 본래 열린 마음, 빈 마음인데 '나'를 앞세우다 보니까 닫힌 마음으로 살게 된다. 빈 손, 활짝 편 손이 아니라 주먹 쥔 손으로 또는 조막 손으로 사는 것이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중**생의 자기 사랑이란 참다운 자기 사랑이 아니라 뒤집힌 꿈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갖 번뇌를 길러내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만·아집이라는 것을 버린다면, 소위 자존심이라는 것을 버린다면 그 순간 삶이 얼마나 홀가분한지를 생각해 보라.

짜증낼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고로 진정코 자기를 사랑하려거든 빈 마음이 되라, 열린 마음이 되라. 잘 안되거든 노력하라. 되는 것 보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마음공부가 아니다. 안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이요, 공부이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이의 종이 되라.'

자기를 낮추는 하심을 가리킴이다.

불교의 오체투지도 하심의 실천을 뜻한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바로 열린 마음이요, 빈 마음이다.

빈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상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울타리를 헐고 져 넓은 들판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다. 허공 같은 마음이 되겠다는 것이다.

열린 마음엔 포섭할 게 따로 없고 버릴 게 따로 없다. 고로 대립이 없다. 자비가 있을 뿐이다. 자유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개중에 마음공부하다가 조금 콧김이 더워지니까 '내노라' 하며 고개를 뺏뺏이 세우는 이들이 있다. 비우려다가 다시 채우는 격이다. 그건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이다. 그렇게 다시 닫힌 마음은 더욱 어렵다.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막무가내가 되기 때문이다.

**진**정 자기를 사랑하려거든 아만·아집·아상을 버려라. 그것이 참된 수행의 길이요, 불법공부의 길이다. 그래야 중생인 나로서가 아니라 참 나로서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참 나로 살라고 누누이 강조하셨다.

협찬 : 허선태·이화



## 동국 역경원 후원회 창립 법회

동국역경원 후원회 창립법회가 지난달 21일 서울 봉은사에서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후원회는 △한글대장경 1질 모시기 △법회·전시회 통한 성금모금 △대장경 읽기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날 법회에는 회장으로 추대된 석주스님을 비롯해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 전국 비구니회장 광우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원산스님 등이 참석했다.



## 관음종 태허대종사 열반 17주기

대한불교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지난달 21일 총본산 묘각사에서 창종주 태허대종사 열반 1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종단간부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정 대천스님은 법어를 통해 "태허대종사의 창종의 뜻을 받들어 전종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종단발전에 전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부산시장 초청 조찬 법회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회장·정관스님)주최 민선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초청 조찬법회가 지난달 22일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혜총스님(대한불교신문사장) 춘광스님(삼광사주지) 정암스님(기장군 사암연합회 회장) 월강스님(법화종 부산교구 종무원장) 류진수(부산신도회장) 우관수 (불교TV 부산지사장)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 호국원광사 신임 군법사 임관 축하법회

호국원광사(주지 한상길법사)는 지난달 21일 호국원광사 법당에서 신임군법사 임관 축하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육군 10명, 공군 3명, 해군 1명 등 모두 14명의 신임 군법사와 군승단 부단장, 국방부 군종실장 임봉준법사, 김말환법사, 한상길법사, 이석복 신도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기장군 사암연 초대회장
**정암 스님**



"스님들과 신도들의 심부름꾼이 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생각입니다."

지난달 31일 기장군 사암연합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정암스님(해동 용궁사 주지).

이번 사암연합회의 창립으로 각 사찰간 유대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하는 스님은 "환경보호운동·장학금 지급사업·경로효친사상 앙양 세미나 개최·한 사찰당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 추진·수륙방생법회 개최 등의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장학·경로 등 각종 사업 전개

해동 용궁사 주지로 13년째 주석하고 있는 정암스님은 개인적으로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상임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기도 하다.

평소 용궁사를 찾는 신도들에게 중국 조주선사의 '수처작주면 입처개진(隨處作主立處皆眞)'이라는 어록을 자주 들려준다는 스님은 "어떤 분야에서든 맡은 바 직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처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병〉

### 조계사 가건물 상량식



현근스님(조계사 주지)은 지난달 24일 조계사 가건물의 상량식을 봉행했다. 통일기원 만불보전 공사로 인해 정화회관이 헐림에 따라 정화회관내의 종무소 원심회, 청년회, 대학생회 등 산하 신행단체들의 사무실이 8월 하순경 완공되는 가건물로 입주하게 된다.

### 예수재·큰스님 초청법회



광진스님(정중선원 주지)은 오는 14일 정중선원에서 생전예수재 입재식을 봉행한다. 또한 이날부터 10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 박승현양에 금일봉 전달



허도봉스님(천불사 주지)은 지난 25일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박승현양을 방문, 금일봉을 전달하고 훌륭한 불자로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 연변대학과 도서출판 협의



법륜스님(중앙불교교육원장)은 중국 연변대학에서 의뢰한 〈한국사〉〈연변지역독립운동사〉 출판기념 및 국내에서의 출판을 협의하고 오는 3일 귀국한다.

### 영산재 전수보조자로 선정

마일운스님(봉원사)은 지난달 20일 문화체육부로부터 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 전수보조자로 선정됐다. 스님은 81년 범패를 이수한 후 후진양성에 전념해 왔다.

### 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명윤회장(한국불교도총연합회)은 지난 22일자로 제 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서울지역 부의장에는 조중훈회장(한진그룹)이 임명됐다.

### 동국학원 사무처장 맡아



송재운교수(동국대 국민윤리학과)는 지난 1일부로 재단법인 동국학원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 통일염원 목판화 개인전



김영만씨(판화가)는 통일·화합을 염원하는 비무장지대 주제전의 일환으로 1일~7일까지 광주 궁동 쌍인화랑과 무등예술관에서 목판화 개인전을 갖는다.

### 불교의식집 발간



허성구학장(대원불교대학)은 최근 재가불자들이 쉽게 배우고 접할 수 있는 '불교의식집'을 발간했다.

### 소설 '뼈없는 여자' 출간



황충상씨가 지난달 뼈 없는 여자'(한국경제신문 출판국)를 선보였다. 황씨는 8월부터 14개국을 돌며 '불교 명상록'을 쓸 계획.

## "선열 왕생기원은 불자의 도리"

### 서대문감옥 위령재서 만발공양 박법왕궁 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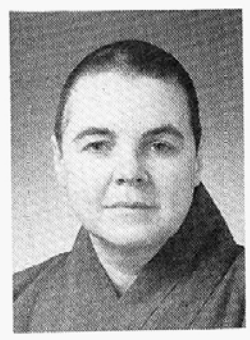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순국선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도 불자로서의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요."

오는 5일 독립공원에서 열리는 '서대문감옥 순국선열 위령대회'의 모든 제단에 만발공양을 준비해오고 있는 박 법왕궁보살(68).

법왕궁보살은 이번 행사에서 순국선열추념탑, 수많은 선열들이 순국한 사형장터, 유관순여사터등의 제단공양은 물론 참배객들의 접심공양까지 준비한다.

"순국선열에 대한 위령재가 때늦은 감이 있지만 광복 50주년을 맞아 순국영령들의 영혼을 천도하는 기회가 마련돼 의미 깊다"고 말하는 박보살은 그동안 전남 호법치, 강원도 양양 영혈사, 강화도 청용사등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영가들의 천도재를 도맡아 지내왔다. 〈근〉



국제 포교사 연수교육
**무진 스님**

## "외국선 한국불교 너무 몰라요"

### 정기적 인재양성, 해외 포교현장 투입해야

"한국불교가 좋은 사상과 교리를 지니고 있으면서 유럽을 비롯 해외에서는 한국불교를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출가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실시한 국제포교사고시에서 선정된 12명의 포교사 교육을 지난 5월부터 전담하고 있는 연등국제불교회관 무진스님.

지난 22·23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화엄사 연수기간동안 "빨리 빨리"를 외치면서 연수생들의 교육을 다그치던 스님은 "포교원에서 국제포교사의 교육을 일일한 만큼 해외포교현장에서 외국인이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로 아예 외국인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이를 위해 스님은 각 종교별로 해외포교의 현황을 일일히 파악해 연수생들에게 기본적인 행동법, 언어법, 외국인의 생활등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교리에 해박한 포교사로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도를 해오고 있다.

특히 스님은 해외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포교원뿐만 아니라 동국대, 승가대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국제포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스님은 또 "이번 국제포교사 양성이 일회성의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정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해 해외포교현장에 투입한다면 많은 외국사람들이 한국불교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계사 불국사등의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가이드들이 불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전부 엉터리입니다."라고 말하는 스님은 "범종단 차원의 대책이 강구될때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한국불교가 전달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중근 기자〉

## "작은 응답으로 큰 보람 얻어요"

### 영세노인·정신대 할머니·소년가장등 도와

탐 방
대구 '자비의 전화'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이 소박하지만 행하기는 힘든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작은 모임이 있다. 대구 자비의 전화(회장 재원스님)는 고통받는 이웃의 하소연을 남김없이 듣고 함께 고민하는 '관세음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단체.

지난 93년 5월 재원스님과 사무실을 제공한 이제근씨등 20여명도 채 안되는 적은 인원으로 출발한 후 지금까지 4기의 카운셀러대학을 거치는 동안 총 2백50여명의 상담원이 배출됐다.

현재는 약 60여명의 얼굴없는 상담원이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까지 교대로 상담에 임하고 있다.

특히 수요일에는 운문사와 청암사스님들이 종교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금요일에는 자원변호사들에 의한 법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한부인생을 살던 한 대담자가 장기간의 상담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는 상담실장 조순자보살은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서 이심전심이 되어야 상담은 성공적이 된다."며 "화려한 말보다는 진솔함을 전제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의 상담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비의 전화는 기존의 전화상담실 외에도 시민선방, 자비봉사단, 고목나무 사랑협회를 조직하여 봉사활동의 영역을 넓혀 놓았다. 특히 자비봉사단은 독거노인, 정신대할머니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꾸준히 계속해오고 있는 실정.



◇대구자비의 전화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선방에서 어린이들이 좌선에 몰두하고 있다.

상담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상담원들. 더구나 보이지 않는 상대와의 순간적인 만남인지라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못한채 말문이 막힐 때도 다반사. 상담원들은 재교육이나 독서 그리고 월 한차례의 사례발표토론회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자비의 전화는 홍보, 재정 , 남성상담원의 충당, 상담체계정립 등 제반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생명의 전화등 대구시내 5개 상담전화와 연계·협조해 나가기로 합의를 봤다. 상담을 하게 되면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고,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인생이 보람된 삶인지 자신을 뒤돌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상담원들의 이구동성이다. "전화상담은 작은응답으로 큰 보람을 얻는 일입니다."

대구=이윤호기자

## 게시판

▲다보문화강좌=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오는 9일 오후2시 불교방송국 공개홀에서 정양모 국립박물관장을 초청, '고려시대 도자기'를 주제로 다보문화강좌를 개최한다. (02)703-0108

▲수련대회 개최=부산불교지도자 수련대회가 오는 26일 27일 양일간 경남 밀양 표충사에서 개최된다. 참가비는 3만원. (051)464-2020

▲기초교리반 개설=조계사 불교대학은 9월16일부터 3개월과정 제13기 기초교리반을 개설한다. 매주 목·금요일 실시하며 주간반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야간반은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02) 720-6742


# 대원불교대학
# 학생 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8월 3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 | | | | | | |
|---|---|---|---|---|---|---|
| 1학년 | 2학기 | 불교입문 | 화엄사상 | 밀교사상 | 선학입문 | 정토사상 |
| 2학년 | 2학기 | 의식실수 | 불교상담학 | 불교복지론 | 종교사 및 종교학 | 완전강독 I |

■ **특 전 :** 졸업후: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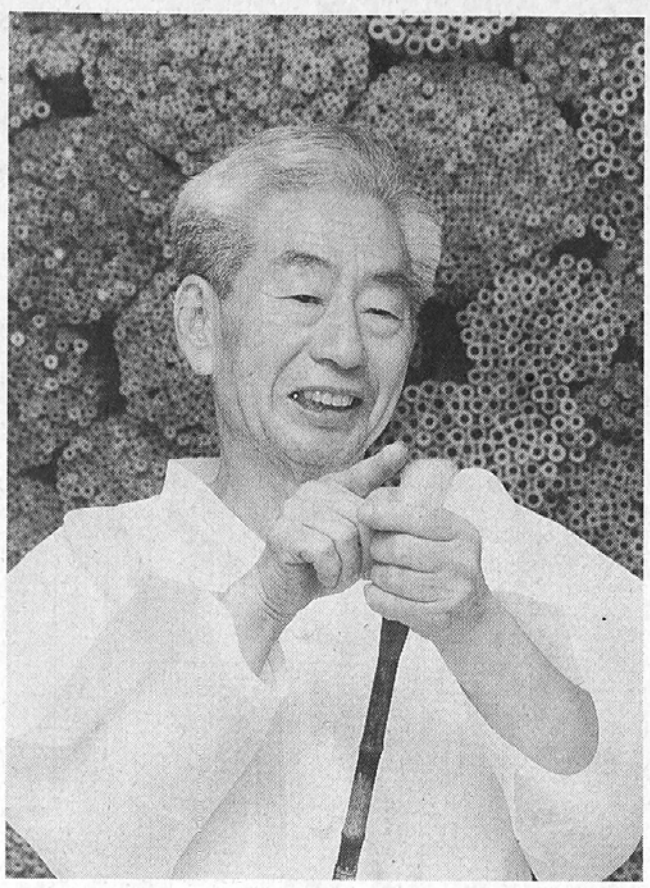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 "붓 맬때는 오직 붓만 생각해요"

## 산문밖의 수禪

### 무형문화재 毛筆匠 권영진 씨



"내 놓을게 하나도 없어. 나이가 많다는 것이 자랑축에 든다면 모를까."

장인은 모름지기 '하나에 산다'고 하였던가. 붓 만들기에만 53년을 바친채 살아온 필장(筆匠) 권영진씨(67세).

인사동, 사방이 빽빽이 대나무와 짐승의 털로 들어찬 그의 집 한켠 작업실에는 붓 만들기 50여년 동안의 고독한 침묵이 가득베어 있었다. 권씨에게 있어 침묵의 세월 그것은 곧 수행의 날들이었다.

### 침묵 이기면 작품탄생

"방안에 꼭 틀어박혀 미세한 짐승의 털과 밤낮으로 씨름하는 것이 붓 만드는 일이라, 세속의 잡다한 생각에 젖어 있으면 견뎌 내지 못해. 붓 앞에 앉으면 붓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붓장이의 삶이지. 붓을 만들때는 그일 앞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것마저 잊어 버려야 하거든."

일단 작업실에 들면 그는 방하착의 경지에 든 선승과도 같아진다. 묵묵히 엎드려 털을 고르고, 시린 눈을 부비며 붓끝을 잡아 매다 보면 세상의 시름을 모두 잊어 버린다는 것이다.

죽과 권영진에게 있어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작업대 위에 묵묵히 엎드려 족제비 꼬리털과 조각칼, 다리미, 저울 등 붓 만드는 도구들과 씨름하는 그 자체가 수행인 것이다.

"어떤 일을 할때 그 일의 극에 다다르면 그곳이 곧 선의 묘한 이치가 있는 곳이지. 깨달음은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지 몸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

붓을 만든다는 것이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을 필요해서 일까? 백발이 성성한 그는 어느새 인고의 아픔을 품은 침묵의 세월을 통해 잔잔한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듯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붓장이 선사'라 부르는 모양이다.

오늘의 무형문화재 제5호 모필장(毛筆匠) 죽과 권영진이 붓 만들기에 외길 인생을 살아 갈 수 있었던 것은 부인 김의은씨의 보살같은 마음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는게 그의 회고다. 열여섯 꽃다운 나이에 머리얹어 시집온 뒤, 남편의 뒷바라지에서 붓 만드는 일까지 함께 하기 40여년이니 그 마음 고생이 오죽 했으랴. 그런 그녀 또한 어느새 '장이'가 되어 있었다. 또 장남 대하씨도 뒷일을 거들어 주다 일을 배워 역천동에서 따로 붓을 만들고 있고, 작은 아들 대일씨도 필방을 맡아 운영하고 있으니 온 가족이 붓 만드는 일 가운데에 있는 셈이다. 요즘은 열살도 채 못된 손자손녀들까지도 붓 만드는 흉내를 제법 낸다며 웃는다.

붓 만들기 생활을 해 오는 동안 생활고에 허덕이던 시절도 많았다.

그러나 50여년전 강냉이와 콩깻묵이라도 있었으면 좋았던 그 시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배웠던 그의 50년 고달팠던 인생역정을 이제는 스스로 깨달은 마음자리와 벽면에 진열돼 있는 수차례 전승 공예전에 출품했던 붓들과 상패들이 대신 그를 위로해 준다.

"현상계에 인식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 절대적 자유를 나이 예순줄에 들어서야 알았으니…. 그동안 보여지는 가난에 힘겨워 하며 보낸 세월이 지금은 아쉽다는 생각마저 들어."



버리는 마음,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실체 속의 밝은 마음 하나만 지키고 살아가면 평생이 최상의 수행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붓을 만드는 과정과정마다 절차가 까다롭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길을 걸어야 하지만, 이제는 손가락의 느낌만으로도 붓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권영진씨는 그 동안 외길인생에 가벼운 긍지를 느낀다.

외길인생 50여년. 요즘 그는 4~5년전부터 말로만 들어 왔던 옛날의 붓들을 재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수 많은 문헌을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던 대나무나 짚 붓을 한가닥에 바늘로 오십가락 정도 잘라내어 붓을 만들었고, 연꽃을 말려 연화필을 만들었다.

### 선조들 붓 재현에 몰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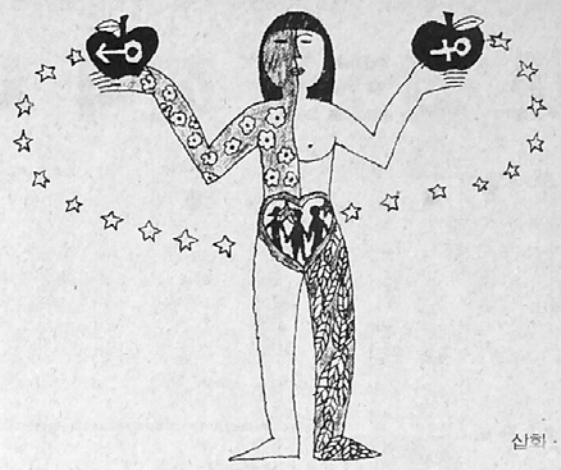
붓대의 종류도 여러가지 인 것을 듣고 도자기, 칡뿌리, 대나무 뿌리, 볏짚, 통나무등을 사용하여 만들기도 했다. 그 작업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실패하면 다시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하기를 거듭했다. 새로운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또다시 새로운 화두를 풀기위한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붓의 털을 보호하기 위해 붓뚜껑을 만들었던 일, 세필을 만들어 대중화시킨 일, 붓을 연구하고 다듬어 내는 것이 고희를 앞둔 권영진씨에게는 묵묵히 마음자리를 찾는 꾸준한 수행인 것이다.

'죽으면 털찌꺼기 밖에 남지 않는다'는 필장 권영진씨는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세상물정에는 눈이 어두워…."라며 자신의 지나온 삶에 의미 부여하기를 애써 거부한다. 그런 그의 모습은 성성한 백발이 연륜을 말해주는데도 그의 삶은 아직 한 여름의 푸른 숲과도 같다.

"만들고 싶은 붓이 있으세요"라고 자리를 털며 던진 물음에 그는 "사람들 가슴에 맺힌 세상의 때를 말끔히 씻어주는 붓을 만들고 싶어"라며 평생의 화두를 내보였다.

도필선 기자

## 나 마저 잊은채 몰두…'붓장이 선사' 별명 얻게돼
## 버리는 지혜 배우기 53년…두 아들 가업 대이어



삽화 · 이기선

# '부모 거역' 곧 자기 삶 부정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㊲

명색(名色)

## '생명 緣起' 알면 孝心 절로 생겨

옛날 충청도 서해안지방에 유행한 말이 있다. "명색도 모르고 까분다" "명색없이 논다" "명색이 있어야지" 처음 듣는 사람은 이말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여느 지방 사투리로 받아넘기기 쉬운 말이다. 그저 상투어나, 말머리를 잡을 때나 아니면 말끝에 붙여서 하는 말인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왜 서해안지방 사람들이 유독히 이 말을 쉴새 없이 쓰고 있을까. 장난끼 섞인 말인가 아니면 욕인가. 여기에 대하여 연구된 것도 없으니 그저 듣고 말게 된다.

그런데 이 말에는 깊은 뜻이 내재되어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서해안 지방은 옛날 백제문화권이 지배하였던 곳이다. 태안이나 서산에 가면 바다로 향한 마애불상이 잔잔한 미소를 띠고서 늠름하게 서 있다. 그것은 불교문화가 깊숙히 자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불교신앙, 불교문화 이것은 상즉의 관계이다. 불교를 신앙하면 자연스럽게 예술품을 남기고 싶은 갈망이 샘솟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중한 바위에 부처님의 미소를 담아보려고 혼신의 징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 근본없는 생명은 없어

그러면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신앙은 교설에서 온다. 그 교설은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은 깨침의 소리요, 삶의 지표인 것이다. 깨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심금을 울리고 착함의 궁극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백제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중국의 동진시대이고 침류왕 때이다. 침류왕은 불교를 백제에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아드렸다. 마라난타스님이 해로를 통하여 한산에 옮겨 왔고 또한 왕흥사란 사찰을 세워 백제 불교의 기틀로 삼았다. 언제나와 같이 백제는 해양 중심으로 종교, 문화, 경제를 경영하였다. 이렇게 보면 앞서의 "명색"이란 단어가 불교의 용어일 것임에 틀림없다. 12연기의 하나임을 직감적으로 모두가 느껴 알 것이다.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등에 나오는 명색인 것이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명색도 모르고" "명색없이" "명색이 있어야지" 이러한 상투어를 다반사로 쓴 것은 그 이유가 있었던가. 명색은 생명의 원형질이다. '명'이 정신적 의식이라고 한다면 '색'은 사대인 지수화풍인 것이다.

무명업식에 의하여 원초적 인간이 형성될 때 행위의 과보가 있을 것이고 그 행위는 식이라는 원인을 동반하고 또한 명색이란 결과를 생출할 것이다. 생명의 원초적 형상이 명색으로 표현되었다면 이 명색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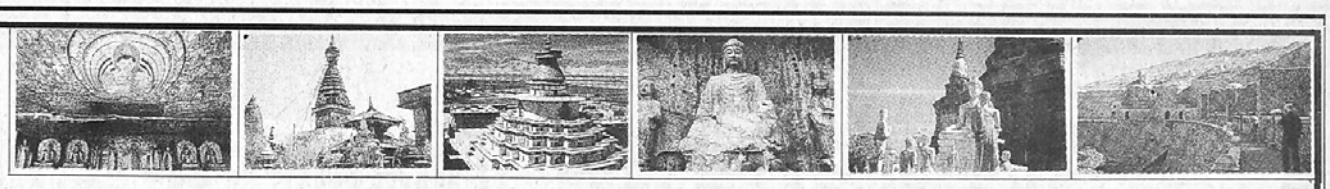
나의 명색을 줄 수 있는 직접적 친인은 누구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부모님이다. 부모없이 나의 명색이 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없다. 부모는 나의 친인자(親因子)이다. 친인자의 근본을 무시하고 나의 인자인 명색이 생성될 수 없다. 세상에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구치는 생명은 없다. 모두가 인과의 법칙에 의하여 생성장양하는 것이다. 부모는 나의 생명의 연기요, 삶의 역사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의 친인자를 무시하고 거역한다면 나의 명색이 태어날 수가 없다.

### 인과에 의해 생성장양

여기에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서해안 백제 사람들은 불교교리에 대한 심오한 천리를 깨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삶의 원리를 체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명색의 친인자인 부모를 효순하고 경모하는 마음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렇게 명색을 중요시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명색은 부모인 것이다. 고향이고, 생명의 원형질인 것이다. 그 부모를 섬기고 고향을 사랑하고 생명의 원초를 신앙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용어가 생활에 담겨 약간 빗겨가는 언어로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무한한 부처님의 진리를 존중한 흔적이 보인다.

우리들은 명색을 찾아서 명색을 사랑하면 부모와 생명을 사랑하는 인격이 될 것이다. 오늘날 명색없이 부질없는 행위를 하는 불한당에게는 명색찾는 일이 중요한 일상이 될 것이다.

# 불교 성지 순례

## 실크로드 대장정 2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 발 : 8월 28일
· 동참금 : 295만원
· 일 정 :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돈황-투르판-우룸치-카슈가르-쿤자랍고개-훈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탁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 발 : 8월 25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 티벳 · 네팔 9일
· 출 발 : 8월 27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장쩌-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 인도 · 네팔 성지 순례 10일
-불교 7대 성지와 네팔의 불교사원 순례-
· 출 발 : 9월 27일, 10월 26일
· 동참금 : 160만원
· 일 정 : 서울-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녹야원)-부다가야-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 · 스와이앰부넛 등)-서울

## 중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8월 29일, 9월 19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 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 발 : 8월 19일, 9월 16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 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8월 27일
· 동참금 : 95만원

## 대 만 5일
· 출 발 : 8월 20일, 9월 20일
· 동참금 : 65만원

■ 여행조건 ●호텔 : 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 :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 (代)

중앙박물관 베제크릭 천불동 벽화·위구르 銘文

# 국내 최초로 해석 시도

## 서역 벽화 연구 활성화 계기
## 동서교류사 밝히는 촉매될듯

민병훈·우메무라씨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세계적 보물인 베제크릭 석굴사원의 벽화와 위구르어 명문(銘文)에 대한 해석이 국내 학자와 일본 학자의 공동연구에 의해 국내 최초로 시도됐다.

〈미술자료〉 55호에 발표한 논문 '국립중앙박물관 베제크릭 벽화 위구르銘文 試釋'을 공동집필한 동서교류사 연구가 민병훈씨(중앙대 강사)와 일본중앙대 우메무라교수(梅村 坦, 내륙아시아사 전공)는 박물관 4층에 상설전시돼 있는 오오타니 컬렉션 중 베제크릭벽화 2점, 지하 유물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같은 지점의 벽화 2점 및 위구르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벽화단편 3점을 자료로 삼아 고대 불교문화 전파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투르판지역(중국 新疆 위구르자치구) 연구를 위한 위구르어 명문해석을 시도했다.

19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중앙아시아를 탐험한 일본 오오타니(大谷)탐험대의 방대한 발굴 유물은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 중국의 여순(旅順)박물관, 일본의 동경국립박물관 등지에 분장(分藏)돼 왔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아래 탐험을 진행해 효율적으로 유물을 관리·연구했던 유럽 열강과는 달리 이들 유물에 대한 연구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현지어로 쓰여진 투르판문서등 문서류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보았으나 벽화의 경우 연구가 매우 부진한 상태다.

한국에서는 1986년 박물관 이전을 계기로 벽화를 비롯한 유물이 비로소 상설전시되기에 이르렀고 〈중앙아시아미술〉이란 도록의 출판과 함께 벽화의 보존처리를 위한 한·독 양국의 공동위크샵이 개최되는등 본격적인 벽화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벽화에 기록된 문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형편이다.

민병훈씨는 "본 연구는 벽화의 위구르명문 독해를 통해 동서교류사의 현장인 당시 위구르사회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출발점이란 의미를 지닌다"며 "러시아 에르미타쥬박물관등 세계각국에 분장되어 있는 벽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씨는 "한국불교미술의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서역벽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제크릭 제4호굴寺 鴛願畵 제1주제 공양보살상(유물번호 4062)과 위구르銘文(右). 명문은 "나 바프치 뒤켈레 투 카아는 진리에 도달하였다"는 뜻을 담고 있다.

베제크릭(Bxzeklik)천불동(千佛洞)은 투르판縣城 동북 약 40km에 위치한 석굴사원으로, 하곡(河谷) 서안(西岸)의 끊어진 절벽위에 약 1km에 걸쳐 분포돼 있다. 현재 투르판지구 문물보관소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한 석굴은 83개이며 그중 벽화가 남아있는 것은 40여개. 8~10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벽화의 총면적은 약 1200평방m에 이르고 있다. 이 석굴사원의 구조상 특징은 절벽을 이용해 굴을 뚫었다는 점과 경주 석굴암처럼 대형 석재를 가구(架構:공간을 형성하는 건물의 골격구조)하여 건축했다는 점에 있다.

김재경 기자

## '최치원 4산비명' 연구 활발

지관스님·김지견·최영성·이우성교수등



◇4산비 중의 하나인 경남 하동군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국보 제47호).

최근 민족문화추진회 이우성 회장(성대 명예교수)이 4산비명(四山碑銘)을 교역(校譯)한 〈신라 4산비명〉(아세아문화사 刊)을 출간하는등 4산비명에 대한 역주 및 연구작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회장의 〈신라 4산비명〉은 제1부 원문, 제2부 주석, 제3부 역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서는 간본(刊本)·사본(寫本)·탁본 등으로 된 원문을 교감했고, 제2부에서는 주석을 산정(刪整)했으며, 제3부에서는 원문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했다.

4산비명에 대한 최초의 현대적인 역주(譯註)는 87년도에 성균관대 강사 최영성씨에 의해 이뤄졌다. 그의 〈주해(註解) 4산비명〉(아세아문화사 刊)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업적을 평가받았다.

이어 93년 2월에 출간된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의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신라편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한국불교금석문교감역주 시리즈의 첫번째 결실로서 4산비명을 포함한 방대한 역대 고승들의 비문을 다시 다듬고 원문에 교정주(校正註)를 붙여 역주해 불교학 및 한국학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성과를 올렸다.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은 현재 고려편1.2가 추가로 나와 있다.

지난해 5월에 출간된 김지견 교수(정신문화연구원)의 〈4산비명 집주를 위한 연구〉는 原비문의 삭제·개환(改換)·오역의 실례를 들고 진감비명(眞鑑碑銘)을 통한 집주(集注)를 시도하는 등 4산비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로서 주목받았다.

4산비명은 신라말 최치원이 지은 4개의 비문으로서 지리산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만수산의 성주사랑혜화상백월보광탑비, 초월산의 대승복사비, 희양산의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에 적힌 문장을 가리킨다.

◇기사넘쳐 '한국 사찰의 주련' 쉽니다.

## 천태사상 대표작은 '유마경 현소'

이병욱씨 박사논문 "천태지의가 직접 저술"



◇이병욱씨

중국 천태종을 개창한 천태지의(538~597)사상을 대표하는 작품은 〈법화현의(玄義)〉나 〈마하지관(摩訶止觀)〉이 아니라 〈유마경현소(玄疏)〉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욱씨(고려대 강사)는 고려대철학과 박사학위논문으로 통과된 '천태지의 철학사상 연구'에서 천태지의의 교판론(敎判論), 별상삼관(別相三觀), 10승관법(十乘觀法), 실상론(實相論:一心三觀)의 4가지 항목을 설정, 〈법화현의〉 〈마하지관〉과 〈유마경현소〉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것이 단순한 차이가 아닌 사상적 발전에서 나타난 것임을 밝혔다.

천태종에서 중요시하는 천태3부작인 〈법화문구(文句)〉 〈법화현의〉 〈마하지관〉에는 천태지의의 제자인 관정(灌頂)의 견해가 들어있지만, 〈유마경현소〉는 천태지의가 직접 저술한 것이고 〈유마경문소(文疏)〉는 직접 저술한 것에 버금가는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

이씨는 "〈유마경현소〉가 언어를 초월한 천태지의사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 연변 조선족 불교의 흐름·역할 조명

'당대중국조선족연구'

중국 조선족불교의 원류와 역사적 역할을 밝힌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을 집문당이 다시 출간한 책 〈당대중국조선족연구〉에 실린 '중국조선족종교의 원류와 력사적 역할'(김죽산)이란 이 논문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대종교 등 조선족종교의 흐름과 역할을 조명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조선족불교는 1911년 3월 김묵연이 용정에 운흥사를 세우면서부터 시작됐으며 1920년대후 조선족승려들이 증가됨에 따라 연변 각지에 속속 불교사원이 세워졌다.

1920년 9월에 연길현 팔도향에 용주사를 세웠고 1920~1923년간에 용정에 본원사 보조사 조등종 등 사원이 세워졌다. 1927년에는 대각사, 1929년 귀주사, 1930년 연명사가 또 용정에 세워졌다.

1931년 만주사변후 연변지구의 불교는 조선족불교계와 일본불교계 두 파로 갈라졌고, 일제는 일본불교계를 도와 조선족승려들을 친일쪽으로 끌어들이려 했으나 별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이후 조선족불교계는 용정의 귀주사를 중심으로 줄곧 우세를 점했다.

## 자심반조·회광반조하란 뜻은

문 어느 책에서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으로 자심반조·회광반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일컬음인가요.

〈박영출·서울 서초구 잠원동〉

답 모든 경계는 다 나의 스승입니다. 물불 바람 사건 사람 그리고 수상행식이 다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란 말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일체를 내 마음의 거울에 조용히 비춰보면 그로써 공부하는 바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춰보려하지 않고 그냥 나의 한 부분 또는 대상으로 보려고만 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의 거울이란 적정하여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느낌이나 생각, 행동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이 적정(寂靜)하면 마치 잔잔하고 맑은 호수면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과 같아 그림자는 물에 선연히 비취되 물을 휘젓지 않는 것처럼 되지요.

그렇게 비춰보는 게 자심반조요 회광반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를 않으니까 내면세계에다 놓고 돌아가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놓고 돌아가면 그게 또한 회광반조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 부딪혀 화가 치밀었다고 합시다. 그 순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지요. 그래야 비춰보든 내려놓든 할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를 또 알아차려야 하는데 즉각 알아지지를 않으니까 몰락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주인공 네가 화를 나게 했으니까 가라앉히는 것도 알아서 하라'이겁니다. 그렇게하면 구정물을 맑힐 수 있습니다.

회광반조란 밝은 마음으로 놓고 돌아가는 도리를 이름이지요.

## 남쪽을 향하고 북두를 보란 뜻은

문 옛날 어느 선사가 제자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용한 중에는 공부가 그만한 편이나 움직이는 중에는 아직 멀었구나' 하시면서 '남쪽으로 얼굴을 돌려 북두(北斗)를 보라'고 하셨답니다. 무슨 뜻인지요?

〈조혜승·경주시 하동〉

답 움직이는 중에는 아직 멀었다 하신 것은 제자가 일상과 다른 경계에 부딪혔을 때는 번번히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 입니다. 남쪽으로 얼굴을 돌려 북두를 보라 하심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마음세계를 보라는 경책입니다.

본래 모양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하였습니다. 허망한 이 상이 실상이 아님을 알면 남쪽으로 얼굴을 돌려 북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북두를 봐라, 그래야 움직이는 중에도 걸림이 없고 무엇을 해도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되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이 말입니다.

## 가출을 자주하는 학생이 있는데

문 고등학교 선생입니다. 26년간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체벌을 가해보지만 선생을 맞때리려고 덤비는 학생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출한 놈을 잡아다 놓았는데 며칠만에 또 가출을 했습니다. 26년간이나 교육일선에서 일해 왔는데도 저 자신 교육시킬 힘이 약해서 그런가 회의도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을는지 답답해서 하소연합니다.

〈이장우·대전시 중구 중촌동〉

답 닭을 우리 안에 몰아 넣어도 또 달아나고 또 달아나듯이 그런 형국이군요. 안타까우시겠지만 선생님처럼 그렇게 애쓰는 게 교육자의 도리이겠지요.

그러나 말로하고 때려서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잡으려면 마음으로 마음을 불잡아야지 육체를 불잡아서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부모도 물론이지만 선생님들도 마음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육신이란 물질이니 마음의 주인을 따라다니는 시자 밖에 더 되겠습니까. 잡으려면 주인을 잡으셔야지요. 대통령과 통해야 일이 잘 되듯이 말입니다.

본래 누구나 다 서로서로 한 줄로 꿰듯이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20명이면 20명다, 백명이면 백명이 다 선생님과 한 줄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도리지요. 그러니까 학생의 몸을 붙들고 '이놈, 차분히 앉아서 하라는 공부나 하라'고 다구치실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 가설된 그 도리를 믿으세요. 더구나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다 알고 학생도 선생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의 불을 켜기가 더 쉽지요.

먼저 내 마음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야말로 학생쪽에도 마음의 불을 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믿고 맡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도 드나들 수 있고 우주를 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습에 얽매여 나 따로, 너 따로라고 생각하니까 힘들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본래 다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니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가정에서 부부간, 부모자식간도 다 그렇습니다. 마음 간절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맡겨 놓아 보세요. 육신을 불잡으려 했을 때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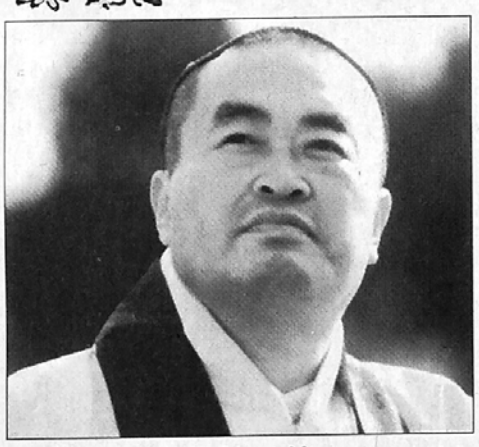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마음의 쉼터를 찾는 그대에게 三中스님이 전하는 참인생의 지혜"

백만 독자가 확인한 감동의 책



행동하는 부처 朴三中 스님!

"교도소는 나의 수행처요, 사형수들은 나의 스승이다"

춥고 가난한 이웃들 옆엔 항상 그가 있습니다. 사형수,무기수,나환자,소년소녀가장,귀무덤,코무덤의 영혼들. 사형당한 자식의 시신을 안고 우는 사형수의 어머니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자비의 부처님 말씀과 어렵게 어렵게 모은 영치금을 가지고 오시는 사형수의 대부 삼중스님이야말로 진정 우리 곁에 살아 행동하는 부처입니다.

어머님이 이 편지를 받으실 시간이면 죄많은 불초소생은 저승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가 극도로 어지러우니 사형수인 저로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이승에서의 마지막 편지를 적어봅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들이 철창 밖으로 띄우는 참회의 편지 최초 공개!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1·2

제1부 참회의 눈물로 보낸 나날들
제2부 어머님 전 상서 *신국판/전2권/각권값5,500원

정해져 있는 죽음 앞에서 그들은 모두 성자였습니다

'사랑,미움,슬픔이 떠난 자리에 나는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까요'를 묻는 어느 사형수의 편지글에서 나는 문득 '그가 곧 부처'임을 느낄 수 있다. 삼중 스님의 책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가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형 제도를 다시 생각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민주당 국회의원 李哲

"나는 다시 한번 살고 싶다!"
절망,통곡,그리고 성자가 된 사형수들의 눈물로 얼룩진 秘話

130인의 사형수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

가난이 죄는 아닐진대 나에겐 죄가 되어 죽습니다 1·2

*신국판/전2권/각권값5,500원

사형수 어머니들이 부르는 통곡의 노래 1,2,3권

1.내 죽거든 뼈에 꿀을 발라 까막까치 밥으로 뿌려주오
2.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내 아들아, 이 에미 젖 한번 먹고 가려무나
3.가난이 죽인 불쌍한 내 자식이 마지막 사형수이길 빕니다

*신국판/전3권/각권값5,500원

지렁이도 기어 극락으로 가는데, 인간은 어찌 지옥으로 가려 하는가?

고달픈 인생길에서 한번쯤은 푹 쉬고 싶을 때 이 선사들의 게송은 우리로 하여금 흐르는 물에 발을 씻은 듯, 아침이슬을 털어마신 듯한 산뜻함과 여여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부처를 만난 듯한 지혜를 주며, 우리의 마음에 선심(善心)을 불러일으키는 즐거움을 준다.
*신국판 / 360면 /값 6,000원

100인의 선사들이 남기고 간 삶의 지혜

몸 둘 곳은 있어도 마음 머물 곳은 없어라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4가 36 대표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 "大悲원력 '통일연가'로 영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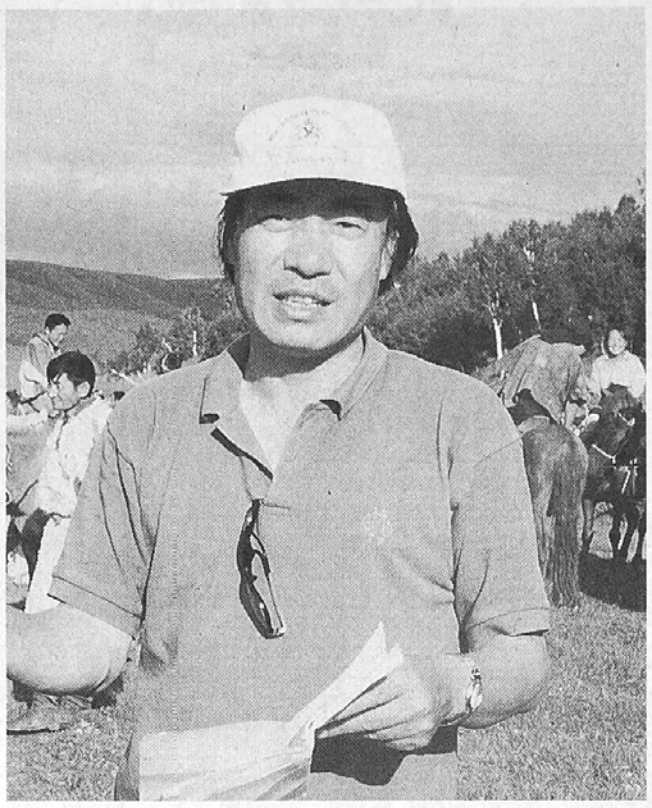
## 영화 '카루나' 제작중인 이 일 목 감독

수요 인터뷰

최근 한국 영화계에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제작되는 불교영화 '카루나'에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

30억원의 제작비,연인원 1만명 출연,국내 최초의 몽골현지촬영등 숱한 화제를 뿌리고 있는 '카루나'는 불교정신과 우리문화를 통해 통일을 염원하는 영상화 작업으로, 한국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몽골 대초원에서 5백여필의 말과 현재 엑스트라들을 총지휘하며 장대한 장면 연출에 여념이 없는 이일목 감독을 만나 '카루나'와 불교영화계에 대해 들어 보았다.



-'카루나'는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적 색채가 강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문제의 실마리를 불교에서 찾고자 한 동기가 궁금합니다.

### 국내 첫 몽고현지 촬영

▲10년전 가을로 기억합니다. 우연히 강원도 삼척의 등명 락가사를 찾았다가 특수부대의 지원을 받아 근래 보기드물게 만족할 만한 그림을 담게 되었습니다.

-'카루나'는 청자도공 가족을 통해 분단의 비극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카루나'는 범어 MAITRI KARUNA (慈悲)의 비(悲)를 뜻하는 말로 연민의 정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화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데올로기를 논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정치가 완전한 통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통일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옳고, 너는 잘못했다' 식의 편견을 버리고 서로가 상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어도 상대를 끌어안는 자비정신이 통일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바로 이러한 불교정신을 영상에 담아 모든 이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것입니다.

# '팔만대장경' 조성하는 마음으로 혼신다해

## 국제 영화제 겨냥…북한 동포 감상도 모색

해강 유근형선생이 청자로 조성한 5백나한을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푸른색 5백나한은 모두 싯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그 멍은 곧 7천만 우리민족의 멍이었습니다.

이날 남북이 같이 울며 볼 수 있는 통일영화를 만들 것을 결심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고 조성된 오백나한 청자불상의 싯퍼런 멍을 락가사에서 끌어내어 겨레와 50억 전세계인의 눈앞에 보이고자 할 것입니다.

-장대한 몽골의 초원을 보니 '카루나'의 스케일을 짐작케 합니다. 몽골에서의 촬영은 잘되고 있는지요.

▲처음 시도한 몽골 촬영이지만 별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의 촬영장면은 5백도적이 약탈을 감행하던 중 아란존자를 만나 감화받는 장면으로 영화속에서는 3분도 채 못되는 분량입니다.

말(馬)과 말을 잘다루는 엑스트라 5백명을 구하다보니 몽골까지 찾게 되었고 세계에서 최고의 기마술을 자랑하는 몽골과 비구니 스님들이 직접 출연해 불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추석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진행될 작업은 무엇입니까.

### 베를린 영화제 출품계획

▲귀국 후 주인공 옥소리의 삭발신과 낙가사 촬영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8월10일경 호주 BMDW영화사에서 후반녹음작업을 마치고 20일경 2백여 대덕스님을 모시고 시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李감독은 89년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장으로 피선된 후 UIP직배반대운동 활동위원장으로 투쟁하다 8개월간 옥고를 치루는 등 우리영화 살리기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교적 문화영화보다는 불교정신을 소재로한 재미있는 극영화가 많이 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의 영화가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고 국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화는 현대에 가장 중요한 포교의 방편으로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카루나'에는 설봉, 정만, 청우스님

-그동안 불교소재의 영화가 꾸준히 제작되고 있으나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불교소재 영화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불교소재의 영화가 흥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재미가 없었서였다고 봅니다.

불교는 이제 더이상 불교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문화와 정신을 말하다보면 불교를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소재 영화의 가능성은 무궁합니다. 누가 어떤 감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불교정신을 소재로 한 영화가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고 국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화는 현대에 가장 중요한 포교의 방편으로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카루나'에는 설봉, 정만, 청우스님과 비구니 스님들이 직접 출연해 불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추석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진행될 작업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내년 5월 칸느영화제와 7월 베를린 영화제에 '카루나'를 출품할 예정입니다. 특히 베를린영화제에 성격이 맞아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될것입니다.

또한 1천만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와 일본 조총련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남북이 함께 앉아서 볼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자 있습니다.

-이 한편의 영화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자와 팬들에게 한마디….

▲개혁종단의 출범과 때를 같이하여 카루나가 만들어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팔만대장경을 조성했던 민족의 기술이 이영화를 완성하는 대작불사로 이어지기를 합장 기도합니다. 영화인으로서 기울일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쏟아부었습니다. 과거 불교영화에서 가졌던 선입관을 버리고 '카루나'를 보아주기를 바랍니다.

일단 보고나서 평가해 주십시오.

몽골 비양창드망=이준엽 기자

나의 수행일기



곽 영 석 <한국방송감청관리소장>

불교 집안에서 출생하여 실제 신앙심을 가지고 생활의 관습을 바꾸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안에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이십년이 채 되지 않는다.

외가에서는 충남 전동 일대의 자가(自家) 소유의 임야 6만여평에 3개의 절을 짓고 탁발하는 스님을 모셔다, 불사를 일으키는 등 착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집은 대쪽 같은 성미의 할아버지 성화로 가까운 절을 찾아가는 것은 매년 사월 초파일 하루, 그것도 동리 사람들과 구경삼아 어울리듯 찾아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결국 유교 집안의 가풍(家風)을 지키려던 할아버지도 숙부의 해난 사고 이후에는 절을 찾게 되셨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어머니나 외조모께 동화를 들듯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다. 그런데 우리 선친께서 신심을 가지시고 절에 나가시면서 왠일인지 외가는 하루가 다르게 몰락해 갔다.

초파일에 산불이 나는가 하면, 절에 벼락이 떨어져 불에 타고, 나환자들이 산하나를 점거하는가 하면 산림 폭력배들에게 외조부가 크게 다치시기도 했다.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나요, 불교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많았던 내가 성장하면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불교와 연관을 지어보고 스스로 처방전도 만들어 실천해 보다가 이제 그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게끔 되었으니 참으로 인연이란 묘한 것 같다.

나는 어릴 때부터 "지옥에 갈 놈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병아리 네 마리를 물어죽인 강아지를 혼내 준다며 나무 밑에 묻은 것이 그만 죽게되자 할머니로부터 "지옥에 갈 놈이다"라고 꾸지람을 들은 이래, 학창 시절 여자친구에게 못된 짓을 한 이웃마을의 젊은 목사가 괘씸해서 숲길 가운데 함정을 파고 냄새나는 거름을 날라다 그 곳에 빠지게 했을 때도 "지옥에 갈 놈이다"는 말을 들었다.

한 번은 문학써클의 친구가 방학 때 우리 집에 놀러왔다가 물에 빠져 저 세상으로 갔을 때 나는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많은 질책을 들어야 했었다.

그래서 한달 가까이 절에서 절로 옮겨가며 삶과 죽음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배고픔의 고통도 이때 처음 알게 되었다.

나흘 가까이 음식을 먹지 못한 채 무심코 찾아든 법당의 부처님 앞에 진상된 과일을 집어 먹다가 그 절의 부전 스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바로 "지옥에 갈 놈이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지옥에 갈 미래세계를 그리며 현재를 정말 값지게 살고 있다.

부처님이 계신 절을 찾기보다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보고 버려진 어린이들을 찾아가 잠시나마 아빠와 오빠가 되어주고, 아파트 관리회장으로 10여년간 재직하면서 홀로 사는 노인세대나 부모없이 가정을 꾸려가는 소년소녀 가장들을 찾아 격려하는 것이 이제 일과가 되어 버렸다.

나는 부처님은 법당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항상 계시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끝맺음한다.

"회장님 어디 아프세요?"

어쩌다 혼자 사시는 어른들께 전화를 거르면 그 분들이 먼저 안부를 전하신다.

나를 만나는 그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종교적인 편견을 갖지 않고 교감을 나누려는 그 마음에서 나는 문득문득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의미를 실감한다.

그동안 불교아동문학회와 찬불가 제정위원회 일을 맡아오다가 지난 해부터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산하단체인 한국방송감청관리소 창립과 조직, 교육 운영관리를 총괄해 오면서 근 1년 동안 바쁘게 지냈다.

불자들이 주축이 된 방송 매체 환경과 시청자 운동에 불을 붙여 우리나라 방송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면 나의 이 작은 봉사 노력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좀더 평안히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 "외로운 이웃들은 나의 부처님"

## 어릴때 들은 '지옥에 갈 놈' 되새기며 불자의 길 걸어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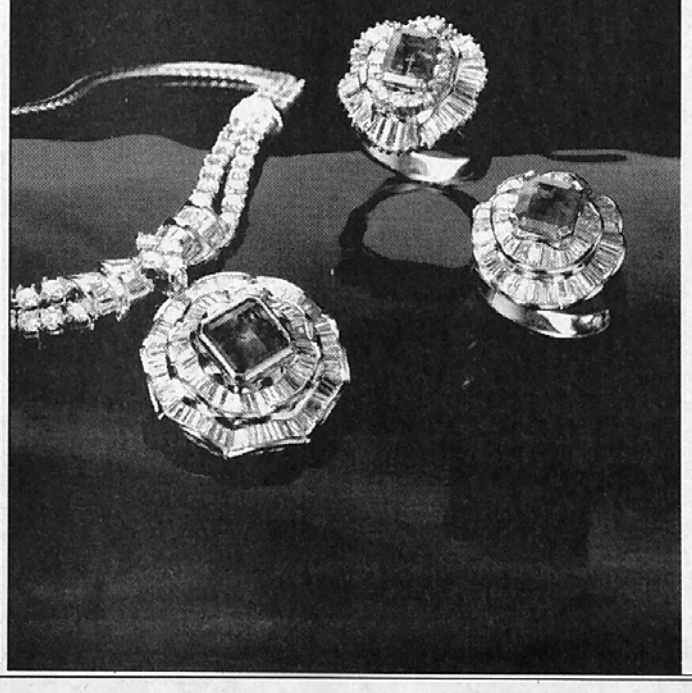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필시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황광우 이경옥 옮김
신국판 전2권 각권 7,500원



나만의 개성과 우아함 청우



JEWELRY
CHUNGWOO

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청우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혼수예물에서 다양한
보석장신구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청우 유자야

전시경력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회 21회
1976 파리 니델제산 공모전 입상
1977 파리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1978 불란서 전국 사진공모전 출품
1979 불란서 파리 미술대학 미술 석사학위 취득
1979 파리 프리마그 로지에 공모전 입상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1980.6 제 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화랑)
1982~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5-1,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TEL 3442~4434~5

##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23〉

### 雲法師 務學十門(운법사 무학십문) ⑧

東晋道安 未受戒時 會沙彌僧光於逆旅
동진도안 미수계시 회사미승광어역여
共辦志慕 神氣慷慨
공진지모 신기강개
臨別 相謂曰若俱長大 勿忘同遊
임별 상위왈약구장대 물망동유
後 光 學通經論 隱飛龍山
후 광 학통경론 은비용산
安 後復從之 相會所喜 謂昔誓 始終
안 후부종지 상회소희 위석서 시종

동진의 도안스님이 아직 계를 받지 않았을 때 사미승 광을 여관에서 만났는데
함께 포부를 털어놓고 정신과 기개가 북바치어
이별함에 이르러 서로 이르기를 만약 함께 뜻을 이르거든 같이 지내기를 잊지 말자 하였다.
훗날 광이 경론에 통달하여 비룡산에 은거해 있는데
도안스님이 뒤좇아와 서로 만나 기뻐하니 옛날 약속이 한결 같음이었다.

丐共披文屬思 新悟尤多
인공피문속사 신오우다

輟軫
철진
宜各隨力所被 以報佛恩
의각수력소피 이보불은
衆僉曰善 遂各行化
중첨왈선 수각행화

이때 도호스님이 또 비룡산에 있었는데 말 참여하기를 고요한 곳에 머물어 속가를 떠남은
매양 부처님법을 널리 구해 반듯하게 하고자 함이니 어찌 홀로 산문에 머물어 법륜이 돌아감을 그치게 하랴.
마땅히 제 나름의 힘 입은 바를 따라 부처님의 은혜를 갚자 하였다.
모두가 좋다하여 각자 교화에 나섰다.

⑩不觀心無以通
불관심무이통

維摩 云諸佛解脫 當依衆生心行中 求
유마 운제불해탈 당의중생심행중 구
何以故 晋華嚴 云心如工畫師 造種種
하이고 진화엄 운심여공화사 조종종
五陰
오음

## 마음은 화공과 같아 일체세간을 좇으며
## 제불은 중생의 마음에서 해탈을 구하네

安 曰先舊格義 於理 多違
안 왈선구격의 어리 다위
光 曰且當分析逍遙 何容是非先達
광 왈차당분석소요 하용시비선달
安 曰弘贊理教 宜令允愜
안 왈홍찬리교 의령윤회
法鼓競鳴 何先何後
법고경명 하선하후

一切世間中 無不從心造
일체세간중 무부종심조
如心佛亦爾 如佛衆生然
여심불역이 여불중생연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
旣爲生佛之母 亦爲依正之原
기위생불지모 역위의정지원

인하여 함께 글을 헤쳐보고 속뜻을 살피니 새로이 깨닫는게 더욱 많거늘
도안스님이, 옛사람들의 격의도 이치에 어긋난게 많다고 하였다.
광이 이르되 또한 옛 사람과 마땅히 분석하고 노닐지언정 어찌 선각자를 시비하리오 하였다.
이에 도안스님 가로되 가르침을 널리 기리고 펴려함에는 마땅히 돌이켜 이치에 맞게 할지니
법고를 다투어 울리는데 어느 소리가 먼저이며 어느 소리가 나중이랴 하였다.

⑩마음을 관하지 않으면 통할 수 없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제불의 해탈은 마땅히 중생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가운데 구한다 하였으니
왜냐하면 진나라 본 화엄경에 이르기를 마음은 그림그리는 이와 같아 가지가지로 오음을 짓나니
일체 세간 중에 마음으로 좇아 짓지 않은 게 없다 하였다.
마음과 같아서 부처도 또한 그러하며 부처와 같아 중생도 그러하여
마음과 부처, 중생 이 셋에 차별이 없으니 마음은 이미 중생·부처의 어머니가 되고 또한 의보(무정물)와 정보(유정물)의 원천이 된다.

時僧道護 亦隱飛龍 乃共言曰居靜離俗
시승도호 역은비룡 내공언왈거정리속
每欲匡心大法 豈可獨步山門 使法輪
매욕광심대법 기가독보산문 사법륜

龍眼

여름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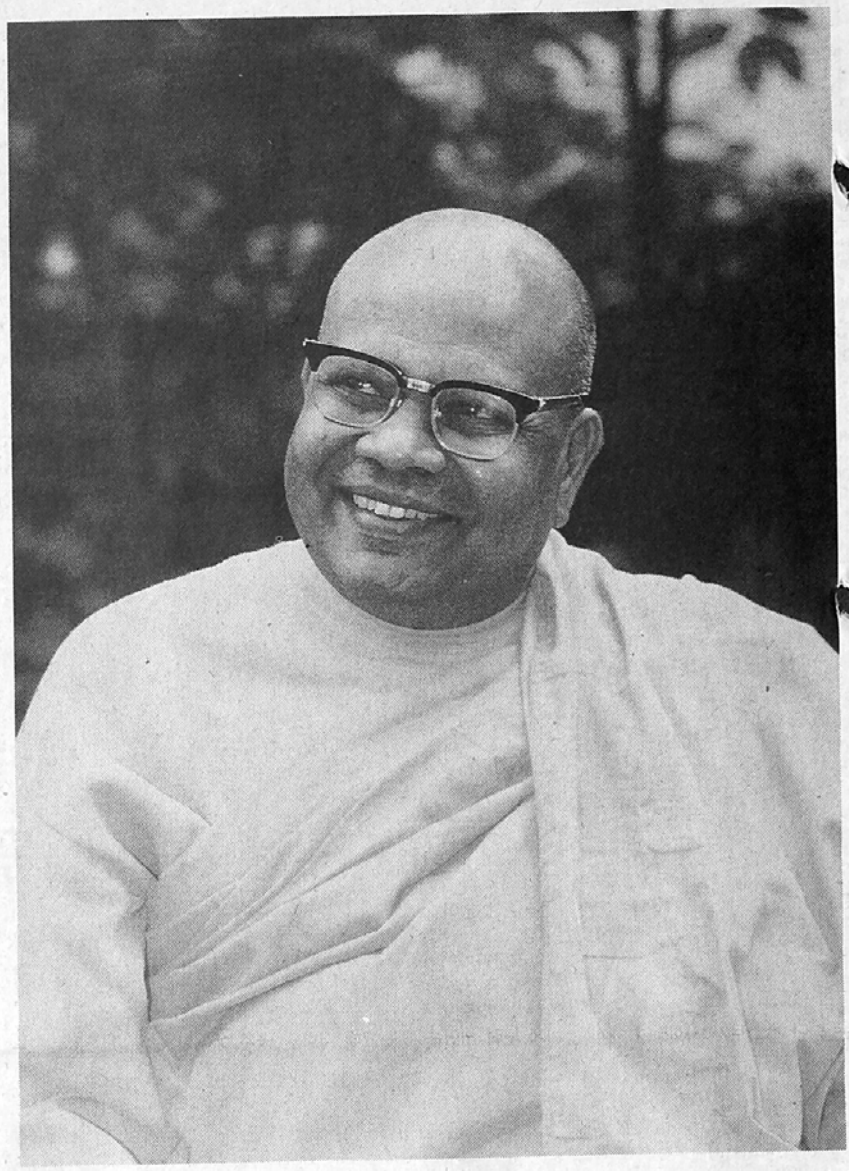
## 해외 고승 지상법석

# "자신의 잘못 덮어두면

## 쏘비타 스님

〈스리랑카 씨암종 부종정〉

스님은 스리랑카 씨암종 부종정이면서 스리랑카 쿠루레갈라 소재 센가레나 프리벤나의 학장을 역임하고 있다. 승가는 물론 재가의 교육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 스님은 진보적인 교육이 종족분열로 인한 내분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스님은 육방예경을 널리 펴면서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부르짖는 평화주의자이기도 하다.



—스리랑카 불교도들은 평소에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요?

▲스리랑카는 태국 미얀마와 함께 남방 상좌부 불교권에 속합니다. 북방 불교권에서는 수행을 통하여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남방 상좌부권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삼고 있지요.

항간에서 상좌부 불교의 수행은 개인의 영달에만 미치고 있다고들 하고 있으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개인의 이익만을 가르쳤겠습니까? 가족 이웃 등과의 화목을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희 스리랑카 불교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의 수행을 중요시 하죠. 사회 없는 개인은 있을수 없으니까요.

스리랑카의 불교도들은 거의 모두가 집집마다 부처님을 모셔놓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행하는 내용은 37조도품 입니다.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등 사념처, 단단, 율의단, 수호단, 수단등 사정단, 사여의족,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혜근등 오근, 신력, 정진력, 염력, 정력, 혜력등 오력,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기각지, 정각지, 사각지등 칠각지, 그리고 여러분도 잘아시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팔정도 등 입니다.

이 37조도품 특히 사념처를 열심히 수행하면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행은 비빠사나 선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자들도 집에서나 사원에서 지속적으로 비빠사나 선을 수행 하지요.

**스리랑카 역대왕들은 "부처님 가르침 확립위해"라는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행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표출 되는지요? 개인이 도를 이루는 것 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회성에 문제는 없는지요?

▲스리랑카에 불교가 들어온 이래 사회내에서 개인이 속한 신분의 위치가 수행에 장애가 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승불교권에서 염려하는 개인주의적인 것이 국가와 사회의 유지 발전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좌부적 불교의 수행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는 물론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교는 큰 역할을 하였지요. 개인의 도와 사회와는 상호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 진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 스스로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보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스리랑카의 역대 왕들은 스스로가 왕의 지위를 누리는것을 "왕실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립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라고 믿고 나라를 통치해 왔습니다. 이러한 통치자들의 이념은 스리랑카가 국난을 당할때마다 모든 국민들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하여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속을 망라한 개인의 수행과 사회와의 관계를 잘 볼수 있는것 입니다.

—스님께서는 현재도 스리랑카 승려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에 계시며 벌써 수십년을 교육에 종사하여 오셨다는데....

▲승단이 할 수 있는 교육은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승단을 이끌어 갈 수행자의 양성입니다. 스리랑카에는 피리웨나라고 하는 승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만 10세를 전후해서 출가한 사미승들을 빠알리어 율장(律藏)에 입각한 교육방법에 따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부경전의 법구경, 숫타니파타 같은 비교적 암송하기 쉬운 경전들을 외우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타의 일생, 불교사, 스리랑카 역사, 싱할라, 지리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5학년도후기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큰스님의 백일법문(上, 下)을 부교재로 선택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7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 | | |
|---|---|---|
| 1학년 교과목 | 법회사상, 화엄사상, 반야사상,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밀교사상,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전포교원장), 권탄준(동국대교수), 박종(불교통신대학장), 성본스님(승가대교수), 서윤길(동국대교수), 홍윤식(동국대교수), 한정섭(불교교화원장), 중법스님(승가대교수),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 2학년 교과목 |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 정병조(동국대교수), 권기종(동국대교수), 한보광스님(동국대교수), 정락스님(포교원장), 김용표(동국대교수), 오형근(동국대교수), 이만(동국대교수), 김영태(동국대교수), 정승석(동국대교수) |

3. 모집방법 및 전형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원서교부·접수 | 전형방법 | 강의일시 및 장소 | 비고 |
|---|---|---|---|---|---|---|
|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1995년 6월 24일~8월 5일 입학금 150,000원 (교재제공)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총무원불교회관 1층 |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만 가능 |

4. 개강일시 1995년 8월 5일(토) 오후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732-1206, 722-0408, FAX : 732-1207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246-4321
◎광주 : 금강불교백화점 : 671-045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425-4097

6. 원서접수처
본대학 사무국 : 110-170 :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총무원 1층
※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졸업한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법사증 수여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정신집중력 수행을 위한 수련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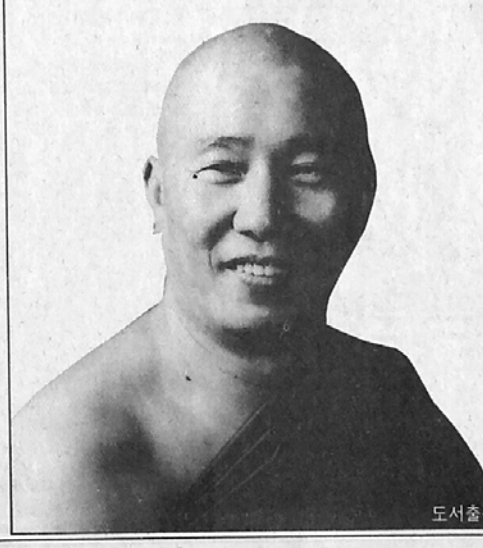
일상적인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집중(위빠사나)을 통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관찰과 걷기 정진(경행)을 통해 한 걸음 내디딜 때의 행복과 보람을 스스로 체험하게 하는 수련 모임.

일정 : 1995년 8월 14일(월)~19일(토)
시간 : 매일 오전 10시~오후 2시
장소 : 호국 원광사(용산소재)
지도 : 거해 스님(깨달음의 길 저자)
내용 : 좌선 2시간, 설법 1시간, 경행 1시간
회비 : 1인당 5만원
문의 : ☎ 720-0207, 738-8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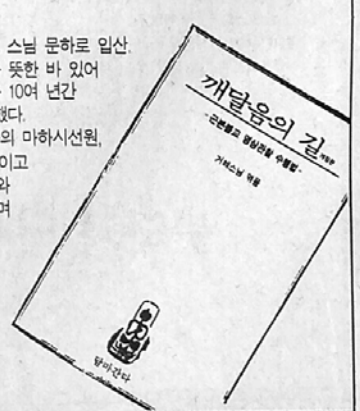
깨달음의 길

"근본불교의 명상 관찰 수행법(위빠싸나)을 수년간 마얀마·태국 등 남방 불교에서 수행하고 체험하신 거해스님이 엮은 수행 지침서. 위빠싸나의 수행 방법과 수행 과정에서 오는 여러가지 현상의 극복 그리고 근본 불교의 여러 교리를 불교 정통의 수행방법과 맞추어 해설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관념적 수행을 지양하며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수행을 경험하고 그 이론을 확인할 수 있다."

※스님이 직접 설법하신 오디오 테입도 있습니다.



거해 스님
금정산 범어사에서 지효 스님 문하로 입산.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다 뜻한 바 있어 남방 불교권으로 건너가 10여 년간 근본 불교 수행에 전념했다. 주요 수행처로는 미얀마의 마하시선원, 태국의 선원, 세일론 등이고 그 밖의 남방불교 국가와 미국에서도 정진하였으며 지금은 한국에서 위빠싸나선 보급에 앞장 서고 있다.




도서출판 담마간다( 720-0207.738-8159) · 총판 운주사( 720-9373)

해외 고승 지상법석 — 여름 특집

# 언젠가 부채로 돌아와요”

## “육방예경 가르침 따르면 가족 붕괴·노사 갈등 등은 절로 풀립니다”

## ‘인과 믿는 것’ 수행 첫걸음…삼독없애야 폭력근절

## 아라한과 증득에 앞서 이웃 화목·정의 실현 중요

등 승려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들도 역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잘 교육을 받은 후에 많은 승려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능력에 맞는 교육기관, 대학이라든가, 교육대학 등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 피리웨나의 역사는 2천년이 넘습니다.

승단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은 재가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피리웨나에서는 승려들의 교육만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고 일반사람들의 교육도 담당해 왔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승려들의 교육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항은 승단 스스로가 사회적인 깨침을 통한 진보적인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리랑카의 스님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던가, 또는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등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학생 모두가 도회지로 나가서 받을 수 없는 교육을 스님들이 대신 받아서 마을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행의 회향 뿐 아니라 실생활적인 교육의 회향이기도 한것이죠.

또 다른 것은 승단 스스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간접적인 교육을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신경을 써야할 부분 이라고 생각 합니다.

—스리랑카는 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나라 입니다. 불교도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면서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승단에서는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현재 스리랑카에는 싱할라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종족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종족 분규가 마치 유행병인것 처럼 퍼지고 있습니다만 스리랑카도 저희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시작된 종족 분규입니다.

스리랑카가 영국의 지배를 받을때 영국 정부는 저희들을 우민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노력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비록 그들의 식민지였지만 영국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불교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저항 하였죠. 이때 영국 정부는 자신들의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남인도로부터 다수의 타밀인들을 이주 정착시켜 오늘의 문제를 야기 시킨 것 입니다. 이것이 스리랑카 문제의 시작입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물론 승단 역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승단에서는 폭력을 배제하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조언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타밀인들에게도 호소 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폭력은 배제 되어야 합니다. 불법에서 삼독으로 표현되는 마음으로부터의 폭력, 실제 개인 생활에서 볼 수 있는 폭력, 사회 집단이 자신들만의 이익의 추구를 위한 폭력등 우리는 많은 폭력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폭력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아니 피상적인 거부라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삼독의 근원을 찾아내어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어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폭력을 조장한 귀절을 찾아 볼수 있습니까?

어디 부처님 이후의 전륜성왕이라고 불리우는 아쇼카 황제의 치적중에 폭력을 찾아 볼 수 있습니까? 이는 세계사에서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하는 나라치고 폭력을 사용한 나라가 없음을 알리는 좋은 예이기도 한 것 입니다. 부처님께서 거부하신 폭력을 우리가 방조, 조장 할 수는 더욱 없는 것 입니다.

저희 스리랑카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폭력적 상황은 불교라는 종교적 매개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오늘 법회에서 설하신 경전이 육방예경이었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셨는지요?

▲육방예경의 내용은 나를 중심으로한 동 서 남 북 상 하에 있는 모든 분들을 찬탄 예배하는 것입니다. 수직적, 수평적인 주위 환경에 모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특히 이 경을 택했던 이유는 제가 법문을 하게 된 이 사원의 이름이 효를 강조하고 수행하는 곳인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이고 또 현재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적절한 경이라고 생각 되었기 때문 입니다.

한국이건 스리랑카이건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붕괴, 사제간의 불신, 승속의 반목, 노사간의 갈등등 모든 문제를 이 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본 한국에서의 많은 사건들, 특히 가정의 파괴를 불러온 사건들에 대해서도 육방예경은 해답을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불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 이신지요?

▲현재 세계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슬에 묶여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중생들은 더 많은 물만을 향하여 자신의 잘못을 덮어 둔채 앞으로 나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덮어둔 잘못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시 부채가 되어 돌아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 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런 인연의 과보를 의외로 많이 보여주는 나라중의 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배가 뒤집히고,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그 예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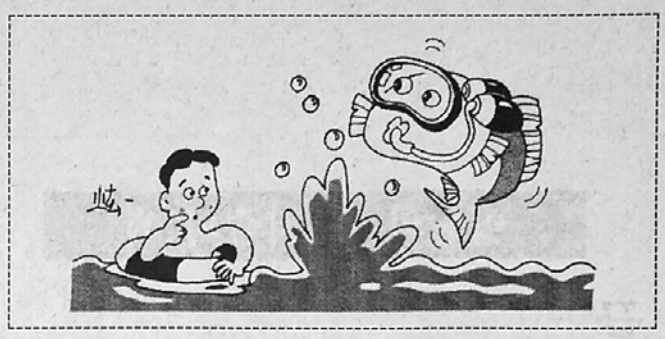
한국이 그 동안의 괄목한 만한 경제성장 속에서 한국 스스로 가지고 있던 알맹이를 무시한채 성장에만 매달린것은 아니었는지요?

지난번 경주와 해인사를 들렀을때 천년 이상이 된 유물에서 한국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보았던 한국의 참 모습은 충분히 세계의 문화 발전을 주도해 나갈수 있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바람직한 일과는 관계 없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발생한 이런 일들이 한국인들에게 인과의 법칙을 정확히 일러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스스로 인과를 바로 알아 열심히 수행정진 하셨으면 합니다. 인과를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가 수행의 과보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 입니다.

### “세계문화 주도할 힘있는 한국 성장에만 매달렸기에 다리·건물이 무너지는 화를 당했습니다”

이번 지상 설법은 지난 7월15일 서울 수효사에서 쏘비타스님이 설한 법문을 중심으로 외국어대 강사 송위지씨가 정리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35

양 형 진

## 진공묘유(眞空妙有)

## “보이지않는 공기가 눈앞에 가득하듯 공은 색의 무한한 생성 가능성을 내포”

오늘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공기 중에서 살고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산다. 공기 중에서 사는 우리가 공기를 볼 수 없듯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아마 물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물고기가 보는 세계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내 눈 앞에 가득한 것과 같다. 따라서 물고기가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물고기가 보는 곳에 다른 불순물이 없이 순수하게 물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순수한 물에 한 방울의 공기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자. 그리고 공기 방울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있었던 물방울은 물 위로 튀어 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물고기는 물 속에 위치한 공기 방울과 물 밖에 위치한 물방울을 보게 된다. 여기서 공기 방울이란 물의 없음을 뜻한다. 즉 물고기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아무 것도 보지 못하지만, 물이 좀 모자라는 경우 즉 공기 방울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무언가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수면 아래에 있는 물방울을 하나 집어서 물 바깥으로 들어 올리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던 세계에 두 존재자가 생성되게 된다. 즉 쌍생성이 일어난다.

이와 똑 같은 현상이 물리학에서 관측된다. 디랙(Dirac)은 상대론과 양자역학을 결합시켜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완성시켰다. 이 상대론적 양자역학 방정식의 해에는 보통의 양자역학에서는 나오지 않는 해가 존재한다. 그 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입자의 해와 유사한 물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한 예로 상대론적 양자역학의 해로서 전자에 대응하는 입자를 물리학자들은 전자에 대한 반입자 혹은 반전자라고 부른다. 반전자는 질량이 전자와 같고 전하가 전자와 반대이다. 이러한 성질을 지닌 반입자는 전자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입자에 대하여 존재한다. 반양성자나 반중성자가 그 예이다.

디랙은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완성한 후 이러한 반입자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예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은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면 입자와 반입자가 동시에 생성된다. 이를 쌍생성이라 한다. 또한 이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결합하면 많은 에너지를 내면서 소멸한다. 이를 쌍소멸이라 한다.

이러한 반입자는 현대물리학의 진공개념을 알아야만 비로소 이해가 가능하다. 진공이란 어항 속에 물이 수면 아래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진공이란 어떤 기준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이 기준 에너지를 0 이라고 정의하자. 다시 말하면 진공이란 기준 에너지 0 보다 에너지가 작은 모든 상태에 입자가 꽉 차 있는 상태이다. 어항 속의 물방울 하나를 수면 밖으로 들어 올리면 어항 속에는 공기 방울이 생기고 어항 밖에는 물방울이 생긴다.

에너지가 0 보다 작은 상태, 예를 들어 -E라는 상태에 있는 입자에 에너지 2E를 공급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입자는 E (= -E+2E)라는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된다. 이것이 입자의 생성이다. 그리고 그 입자가 있던 위치에는 -E라는 입자가 없게 된다. 입자가 가득 차 있는 것은 관측되지 않지만 입자가 없는 것은 관측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관측되는 반입자의 생성이다. 반입자의 에너지는 -E의 에너지가 없는 것이므로 E이다. 결과적으로 2E의 에너지가 공급되어 에너지가 각각 E인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된다. 이를 쌍생성이라 한다. 또 이 두 입자가 만나면 2E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원래의 진공으로 돌아간다. 이를 쌍소멸이라 한다.

그러므로 현대물리학이 이해하는 진공이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입자와 반입자의 쌍이 무수히 생성될 수 있는 가능태이다.

공은 색이 단순히 없는 상태가 아니다. 색의 없음, 즉 존재가 정의되고 그를 무화(無化)시킴으로써 공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공은 색의 무한한 생성 가능성을 그 안에 내포한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활천당 한약방
(대구 약전골목 중간)
한약의 명소 40년 전통 간염 간경화증 상담 요함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86-1 (053-252-8274)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소매, 초, 향, 촛대, 각종 유기 도자기, 염주, 목탁, 테이프 개금, 단청, 불상, 탱화, 승복, 법복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739-2450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 (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여직원 급모집
탄허 불교 문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모 단정한 여직원을 모집합니다.
■ 다음
• 여고 졸업자 약간명
• 30세 미만
• 불교 신자 또는 불교 활동을 한 자
• PC 가능자
■ 제출 서류
•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부착·전화 연락처 기입)
• 자기소개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방문요함)
제출처 : 서울 중구 신당3동 368-100
전 화 : 237-4438
탄허불교문화재단

經歷幹部招聘
귀하의 고귀한 경력을 모십니다.
당 그룹 계열사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 종합상사로써 창설 5주년을 맞아 서울 및 수도권 거주 佛者님 약간명 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모집부문 | 응시자격 |
|---|---|
| 경영관리 | ① 40~60 才限 |
| 지점관리 | ② 자영업 경영자 및 임원 |
| 기술영업 | 우대사항 ③ 軍·公職 퇴직자 ④ 佛敎係 관련종사자 |
| 영업관리 | ① 30~39 才限·大卒 |
| 전산운영 | ② 전산직은 20~23 才女사원 |

2. 전형방법 : 1차 면접후 결정
3. 근 무 처 : 종로구 관훈동 관훈B/D 7층전관
상담문의 : 737-0588~9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합장
대 표 이 규 영
동양석재 주간 : (0357) 541-4705 야간 : (0351) 847-2001

관 음 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설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5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증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 | |
|---|---|
|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
| 중학 졸업과정 | ⊙ 업계 풍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
|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
| 대학 졸업과정 | ⊙ 철저한 1: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개천절도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회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4600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이승의 재 저승의 씨

끝내 불이와 합두는 불타버린 나승처소의 잿더미 가운데서 한갓 뼈로 남았다. 뼈조차도 고열(高熱)의 불구덩이에서 철저하게 바스러진 상태였다.

그토록 두 사람의 그런 합당한 흔적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뒤섞여서 따로 두 사람의 그것일 수 없었다. 실로 그들의 염원 그대로 둘은 하나가 되었는지 모른다.

인담은 넋을 놓았다. 다른 사람들도 으레 그래야 했던 것까지 그가 도맡아서 그러는 것처럼 거의 넋을 다 놓아버린 백치와도 같았다.




〈 38 〉

인담을 비롯해서 우녀 파현 그리고 수원 수월들이 그렇게도 많은 바닷물을 바로 옆에 두고도 그 불타는 집 한채에 대해서 몇 번 물을 끼얹어보고는 그런 일로는 불을 잡는다는 사실이 불가능함을 알아야 하였다. 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그 불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아니 그들의 도반(道伴)이 눈 앞에서 불속에서 타죽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실이 각자의 심상(心象)에 람핀한 타격을 가하게 만들었다. 그들 자신도 거의 정상적이지 못하였다.

가장 냉철할 수 있는 우녀의 경우에도 "합두스님… 합두스님… 합두스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대며 입에 침을 담지 못하고 질질 흘리는 것이었다.

이에 질세라 무욕도 도량의 대표인 인담 아야말로 몇차례나 넋을 놓았다가 솟아나는 바위에 이마를 찧어대는 동안 그 피멍이 드는 아픔으로 진정 넋이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인담은 다른 사람보다 정상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남은 뼈조각들이야 가루로 빻아 바닷물에나가 날려버리면 되거니와… 도대체 긴 동안이 아닌 불에 이렇게 철저하게 불타버릴 수 있는 해골도 있단 말인가."

그는 갑족같이 바스러진 두 사람의 뼈조각들을 뜨거운 잿더미가 식은 나머지 마치 늙은 농부의 아낙네가 저문 들녘에 나가 이삭을 줍듯이 수습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흥산 무량사에서 들었던 소신공양(燒身供養)에 대한 것을 떠올린 것은 뼈조각 한 무더기를 한데 모아서 백지에 담은 뒤였다. 두개골조차 그 형체를 겨우 짐작하게 조각으로 된 것이 차라리 두사람이 이승에 남긴 어떤 주부(呪符)였던가.

인담은 이런 두 스님의 최후가 살아있는 그들의 정수리를 쇠몽치로 쳐서 한얀뇌수를 뿌리게 만든 것이라고 여겼다. 죽은 두 사람이 살아있는 그들을 죽인 것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도록.

하지만 이런 폭행과도 같은 광적(狂的)이기까지 한 소신(燒身)의 현실에서 인담이 지난날에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갔던 소신공양의 그 비의(秘義)가 새삼 떠오른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

당나라 측천무후 시절 한 기구한 어린이가 출가하여 절간의 늙은 공양주를 은사로 삼은 신분낮은 승려가 되어 살아가다가 그의 은사가 세상을 떠나자 바로 그 은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몸을 바칠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하루에 한끼의 깨 한 줌을 생식으로 먹기로 1년을 자내며 선정(禪定)에 들어 있었다. 신수(神秀)의 북종선(北宗禪)에서 일컫는 오직 한 가지 행(行)에 잠기는 공부였다.

그런 뒤 그의 뜻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앞뜸뚱이리에 심긴 명주천을 발끝에서 어깨까지 감고 앉아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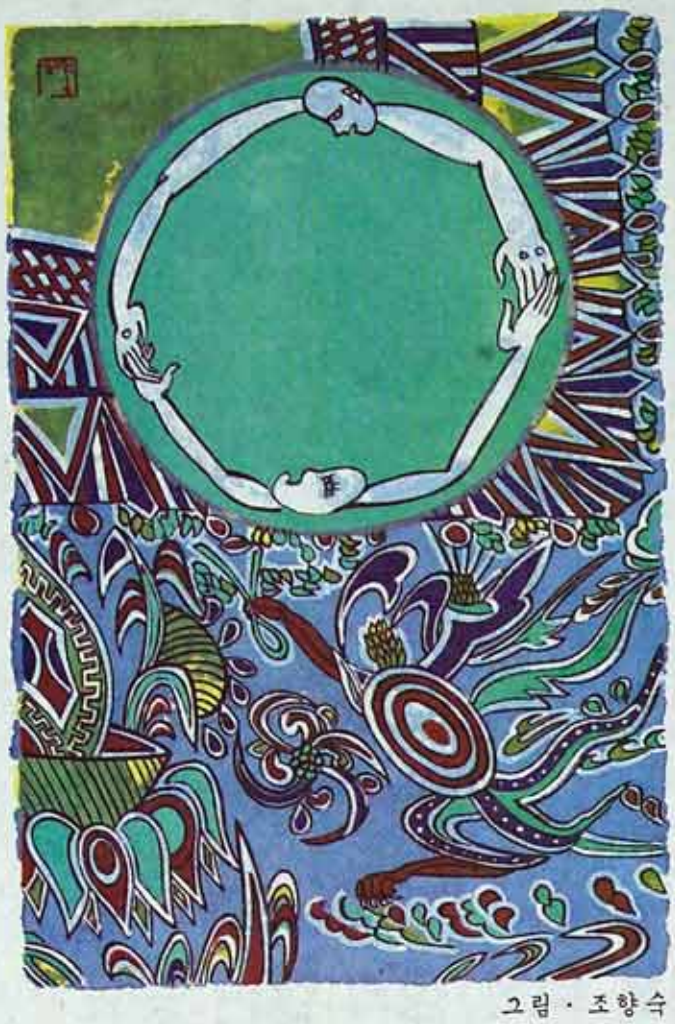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누가 누구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 자신이 받아 마땅한 심판으로서의 자율이**
**바로 49일만의 선택인 것이다**

그런 중에도 그는 선정에 들어있었다.

이 선정과 함께 명주로 감은 몸에 들기름을 부어 속속들이 배어들게 하는 것이었다.

이 기름붓기는 며칠만에 한번씩 반복되어 몇달이 지나는 동안 장본인은 거의 화석이 되어가는 몸과는 달리 그의 정신상태는 고조되어 어떤 극점에 다가가고 있었다.

바로 이런 상태의 기름이 배어들대로 배어든 명주 감긴 몸에서 유일하게 남겨진 얼굴은 이미 해골이 다 된 상태였는데 거기에 불을 담은 화로를 씌워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몸이라고 해야 이미 화석이 되어버렸으므로 기름타는 냄새 말고는 어디 하나 화장의 악취가 나지 않았다.

그 몸은 그렇게 속절없이 타다가 멈춘 모습으로 남겨졌고 거기에 도금(鍍金)하여 그대로 금불(金佛)로 받들어졌던 것이다. 그 금불의 법명은 전해오지 않는데 미륵신앙의 백성들은 미륵이라 하였고 선가에서는 여래장(如來藏)이라 불렀으며 혹은 능가(楞伽)라고도 하였으니 어느 것이 그의 이름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이 사실을 떠올린 인담으로서는 불이와 합두의 갑작스러운 소신의 죽음은 너무 비의례적(非儀禮的)이며 선적(禪的)인 대담성 때문에 몇번이나 오한이 나며 떨어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인담의 처지를 짐작한 우녀도 어느 만큼 제 넋을 찾아 인담을 위로하는 것이었다. 아니, 그녀는 아주 힘없는 어조나마 농담을 할 수 있었다.

"이제 내 집이 없어졌으니 나무가지에나 걸터앉아야 하겠어요."

이 말에 인담이 쓰겁게 웃음을 머금을 수 있었다.

"우녀스님에게 집이 없는 것은 예나 이제나 마찬가지이지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제 정신으로 돌아가기까지 1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불이와 합두의 유골부스러기는 백지에 싸여 밀봉한채 큰방 밖의 입시로 만든 단(壇)에 안치하였다.

두사람이 불구덩이에서 타버린지 이레가 되는 저녁에 배를 끌어내어 인담과 수원 수월이 타고 멀리 나가서 거기서 바닷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할 때 빻았던 뼈 가루를 풀풀 날렸다.

아주 간단한 절차였다. 수원이 가루를 만졌던 손을 뱃전의 바닷물에 넣어 씻어버렸다. 뱃머리를 돌려 섬으로 돌아올 무렵은 제법 어둑어둑하였다.

인담이 말하였다.

"49재도 부질없는 일이오. 오늘로써 두 영가(靈駕)는 갈만한 곳으로 가고 있을 것이오."

"그래도 재는 지내드려야지요."

라고 수월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두 영가는 재 같은 것도 다 태워버리고 간 것입니다."

"무정하기는!"

이라는 한탄은 수월의 것이었다.

그들이 배를 매어둔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섬에 오르자 거기에 별빛이 번득이는 눈물자국의 우녀가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갈대정사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무욕도의 날은 다시 이어지는 것이었다. 다시 7일이 지나고 다시 7일이 지나기를 일곱번쯤 되었을 때였던가.

바로 이 무렵 불이와 합두의 아뢰야식(阿賴耶識)은 명도의 태산왕(泰山王)과 함께 있었다. 불이의 것이든 합두의 것이든, 그 누구의 것이든 그 아뢰야식이란 무엇이던가. 한 송이 꽃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마리 짐승의 울부짖음 속에도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깊은 의식의 오지(奧地)에 있으나 그동안 살아온 자취나 세계의 온갖 현상을 다 아우르고 있어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몰(沒)이 없는 식(識)이다.

또한 그것은 모든 현상이 펼쳐지는데 없어서는 안될 절대의 바탕이므로 근본의 마음이 된다. 그래서 다 소장(所藏)한 식이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아뢰야식의 불이와 합두는 그들이 불타서 죽은 몸으로 그들이 살던 사바세계를 떠난지 49일이 되는 날 마지막 심판에 이르렀다. 하지만 태산왕의 심판은 어느 심판과 똑같이 그 자신이 독단으로 끝내지 않는다.

그는 바로 두 아뢰야식에게 선택을 맡기는 것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저쪽에 여섯개의 문이 보일 것이다. 저 문을 지나면 여섯개의 세계가 있다. …이 여섯개의 문 가운데서 어느 한 문을 너희 뜻대로 들어가거라. 너희가 선택한 길이 너희의 내세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여섯개의 세계란 지옥계 아귀계 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천상계이다.

말하자면 이 여섯개의 세계 중의 하나에 자신의 뜻대로 가라는 것이 심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란 전혀 심판의 권위도 없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뜻이야말로 바로 자신이 지은 것의 결과일진대 그것이 곧 심판이다.

누가 누구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 자신이 받아 마땅한 심판으로서의 자율(自律)이 바로 49일만의 선택인 것이다.

그녀 합두 아뢰야식이 불이 아뢰야식에게 향기로서 말하였다.

"불이스님! 어디로 가렵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머뭇거리는 불이가 합두에게 다가갔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가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얼굴도 어떤 형체도 없는 영식(靈識)의 두 존재는 향기로서의 대화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영원한 동행자로 확인한 것이다. 이 우주 어느 곳에도 똑같은 업(業)과 그 자취의 결과에 의하여 세세생생(世世生生)의 동행자가 되는 일은 억만개의 중생 가운데 하나 밖에 없을만큼 거의 불가능한 노릇이다.

바로 그런 희귀하기 짝이 없는 노릇을 그들은 하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었다.

"남각은 지옥계로 갔습니다만."

이라고 불이가 지옥을 내세웠다.

"그분은 다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수라업이 있어서 아수라를 거쳐서 수미산을 향하렵니다."

"그렇다면 나도 아수라로 가야겠지요. 나에게도 아수라업이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 불이가 합두에게 한마디 덧붙혔다.

"우리 그곳에 가서 실컷 싸움이나 합시다."

"호오 애욕이나 아수라업이나 다 빈 것입니다만… 실컷 싸운 나머지 제 손톱자국이 온몸을 덮을 것입니다."

"허어 내 주먹이 합두스님의 어깨를 쳐서 시커먼 멍이 들어 밤새도록 쑤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아수라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문은 아귀계의 문이었다. 그들이 잘못 들어간 일이야말로 그들의 아귀업이 아수라업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었던가.

> 불이와 합두스님은 아수라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문은 아귀계의 문이었다. 그들이 잘못 들어간 일이야말로 그들의 아귀업이 아수라업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었던가.


단청 · 불상 · 탱화 · 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 468-8329
■호출기: 012-307-8329
박석언 합장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총판 윤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창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쌕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주 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612-5
전화번호: 02)795-4083
팩스 02)792-9659

천혜의 기도도량
금수산 천진사
단양 팔경의 하나인
구담봉, 옥순봉을 굽어보며
금수산 품에 안긴
천혜의 기도도량 천진사
함께 기도하며 이 국토를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려는
불제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는 도량입니다.
조 용히 머물며 기도 정진하실 스님 (비구니 스님이나 연로하신 스님도 좋습니다)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법 당을 관리하면서 기도하실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연락처 단양 천진사 : 0444-423-2085
서울 법천사 : 02-762-2204

명문대가집
현미먹고 비법
먹기어렵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2분도현미 (먹기 어렵다)
3분도현미 (먹기 쉽다)
4분도현미 (먹기 더쉽다)
5분도현미 (먹기 더욱 쉽다)
6분도현미 (먹기 더욱욱 쉽다)
백미10분도 (밥눈이 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배달"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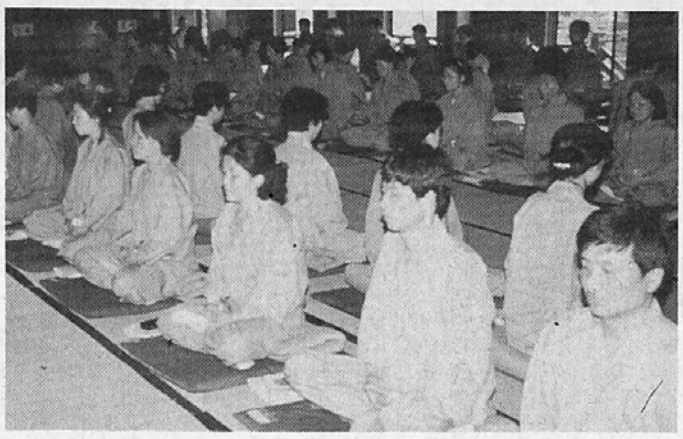
정통 중국어 속성강좌
당 · 난방, 최고급 시설과 어학실습실 완비
중국 사범대학 교수 초청강의, 캐임지도
기초반, 회화반, 유학반, 비지니스반
■ 스님 유학반 모집(이미 출국유학중)
■ 학위및 자격취득 책임보장
■ JW202 유학허가및 입학통지서 보장
■ HSK 시험대비 중점 강의
中國語 : 漢文 : 書法
정일 6:30~22:00(9월 학기 유학생 모집)
특별반 토→14:00~18:00 일→10:00~18:00
정기 학원생 취업보장(수시접수)
상담 : ☎ (02) 246-8256, 246-8257
韓中語學院
원장 중국 할빈 사범대학교 경제학 교수
중국 하위 심사위원(한국인 최초)
관허 1670호 기업진흥상담



사찰인수 증설에 참여하실 분
• 사찰 부지 및 도로 옆 휴게소 가든
건물 55평(현재 성업중)
• 대지 주차장 300평
신축 모텔 부지 1,000평 ) 매도가 5억원
-가든 휴게소 건물 2-3층 모텔 증축 가능지
-농산물 · 일용생활품 매점 가능지
-주차장 도로부지 120평 포함
연락처 집(조석) 0441-851-3866
사찰(12시) 0441-853-2896
※ 불교신자 · 독지가 환영

법당 신축 협찬자 구함
-총주댐 강변 진입도로변 별장지 요지
계명산 석굴암 요사채 시설지
• 석굴암 본존 석가모니 불상 7자 높이, 굴 50평
• 석가 5층탑 22자 높이
• 관세음보살상 15자 높이
• 아미타불 좌불상 5자 높이
• 요사채 2층 방 6 ) 35평형
〃 1층 방 3 )
-대지 705평 도로 포장 시설지
• 현 3억 5천 투자 시설된 곳 이후 5억 투자하실 분 구함
• 향후 법당, 대중선 증축 요사채 및 산신각 증축 계획
• 기절사찰, 신축지 1,000평 내외 양도 가능
# 사찰 운영할 보살스님, 독지가, 새사찰개발 운영하실 분 환영





◇ 정좌하고 앉은 수련생들·참삶의 의미를 찾는 화두를 챙기고 있다.

'4박5일의 출가' 사찰 수련회 지상중계

# '참나 찾기' 배운 값진 일정

## 새벽예불·참선·바루공양하며 새로 발심
## 외국인·타종교인도 참여…프로 다양화 필요

여름을 맞아 각종 사찰수련회가 전국 곳곳에서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7월 21일 BBS방송 여름특집 '참나를 찾아서'는 수행열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송광사 여름수련회 현장을 소개해 불자들의 구도열기를 실감케 했다.

일상의 틀을 박차고 나를 찾기위해 구도의 길에 나선 사람들때문이다. 여름에 사찰을 찾아 자신을 가다듬는 사람들은 생각밖으로 그 수가 많다.

신도회나 신행단체별로 떠나는 크고 작은 수련회 말고도 오직 부처님제자라는 공통성 하나로 전통사찰을 찾는 사람들은 3~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수련회를 찾는 사람들도 학생, 직장인, 택시운전사, 주부를 비롯 불교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외국인과 타종교인까지 각양각색이며 연령층 또한 20대 젊은이에서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생활에 찌든 자신을 되돌아 보고, 그동안 품었던 불교에의 호기심을 확인하기 위해 수련회를 찾는다.

수련회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이 돌아가야할 근본을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 4박5일간의 출가생활에 몸을 맡기는 이유다.

"가장 순수하게 불자로서 불교를 올바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참가했다"는 한 불자는 "자기라는 문제에 부딪혀 그 해결을 종교적 수행에 의지해 보려는 성향들과 종교에 상관없이 수행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 이들은 한번 와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송광사여름수련회는 '출가 4박5일'의 대명사를 탄생시킨 곳으로 그 명성을 높은 경쟁률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다. 참선수행과 바루공양, 아침저녁으로 108배, 묵언수행, 예불문강의, 불타의생애, 보조스님의 수심결, 입적하신 전 방장스님이신 구산스님의 화두법문등을 짬지게 진행해 나간다.

사찰나름의 고유한 특성과 수행풍토도 많은 불자들의 간절한 발심을 내게한다.

불보사찰 통도사는 금과옥조의 말씀으로 수련생들을 사로잡고, 법보사찰 해인사는 예전의 절수행에 이어 최근에는 독경·사경수행으로 불자들을 이끌고 있다. 특히 독경과 사경의 경우는 수련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일상에 돌아가서도 스스로 수행을 지속토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직지사, 월정사, 대둔사등 전국 20여개 사찰에서 나름의 수련회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에서 행해지는 수련회의 방식이 획일적이고 비슷해 자칫 지루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다.

법사스님들은 "앞으로 오후불식과 울력시간을 마련하는 등 수행을 실생활속에서 행하도록 일깨워줄것"임을 밝히며 사찰의 영상시설도 갖춰 효과적인 수련회를 꾸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불자들에게 있어 수좌스님들의 수행생활을 몸소 느껴 체험하고 자기안의 주인공 불성을 깨닫는 것은 충분히 기쁜일이 아닐 수 없다. 수련회를 마친 한 불자는 "정좌하고 앉아 하던 '이뭐꼬'화두를 이제야 조금 알것 같은데 벌써 돌아가야 할 시간이뭤어요. 집으로 돌아가서도 수련회에서 배운것들을 잊지않고 좌선생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많은 불자들이 불과 며칠사이에 벼락치듯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이것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하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수련회 기간동안 찾아내고 간직했던 큰 서원을 스스로 검증하고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자리에 다시 더 큰 원력을 세우는 것이 평생의 화두로 불자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이은자 기자

## "여름휴가를 불교 박물관에서…"

푸른 물결이 손짓하는 바다도 뒤로한 채 오롯한 자태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간직하고 있는 불교박물관에서 불교문화의 백미를 감상하는 일.

이글거리는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불심을 다시한번 다지며 올여름 휴가를 남다르게 보내기위한 야심찬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우리 주변에는 불교박물관외에도 생활박물관, 민속박물관 인쇄박물관, 화폐박물관, 김치박물관, 잡지박물관등 이색적인 박물관도 많다. 불교박물관에서 만나는 인자한 부처님의 미소와 각종 박물관의 이색풍경은 지루했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처럼 좋은 계기를 제공해 줄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바로 종합박물관이다. 무더운 여름! 일과성에 그치는 낭비성 휴가보다는 온가족이 함께 가까운 박물관을 찾아 진귀한 유물과의 뜻깊은 만남을 갖고 그것을 통해 그동안 알지못했던 새로운 일상들을 경험해보면 어떨까.

세월의 흔적과 지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박물관에서 우리자신의 근원을 확인하는 일. 올 여름 한번 시도해 보자. 〈은〉

기사넘쳐 '이근후의 건강칼럼' 쉽니다.

| 박 물 관 | 특 징 | 개 관 정 보 | 위 치 | 전 화 번 호 |
|---|---|---|---|---|
| 법주사 | 불교관련 유물 | 연중무휴 | 충북 보은군 속리산 | 0433)43-3615 |
| 화엄사 | 〃 | 〃 | 전남 구례군 지리산 | 0664)782-7600 |
| 대둔사 | 〃 | 〃 | 전남 대둔산 | 0633)34-5502~3 |
| 통도사 | 〃 | 월요일 휴관 | 경남 양산군 영축산 | 0523)82-7172 |
| 기림사 | 〃 | 일·공휴일 개관 | 경북 경주군 함월산 | 0561)44-2292 |
| 표충사 | 〃 | 월요일 휴관 | 경남 밀양 | 0527)52-1150 |
| 목아박물관 | 불교 민속관련 유물 | 화요일·명절 휴관 | 경기 여주군 강천면 | 0337)85-9954 |
| 불교미술박물관 | 불교문화와 미술품 | 월요일 휴관 | 서울 원서동 | 02)766-5000 |
| 건들바우박물관 | 민속종교자료 | 월요일 휴관 | 대구 대봉동 | 053)421-6677 |
| 청주고인쇄박물관 | 인쇄역사 한눈에 | 월요일 휴관 | 충북 청주시 운천동 | 0431)69-0556 |
| 은양민속박물관 | 각종 민속자료 | 연중무휴 | 충남 온양시 권곡동 | 0412)42-6001 |
| 동진수리민속박물관 | 수리 농경 민속자료 | 일·공휴일 휴관 | 전북 김제시 요천동 | 0658)547-3121 |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 각종 민속자료 | 월·공휴일다음날 휴관 | 광주 북구 용봉동 | 062)526-2259 |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 및 자연사자료 | 명절 휴관 | 제주시 일도2동 | 064)22-1588 |
| 제주민속박물관 | 민속 및 풍속자료 | 연중무휴 | 제주시 삼양3동 | 064)55-1976 |
| 안동민속박물관 | 민속 및 생활문화자료 | 명절, 월요일 휴관 | 안동시 성곡동 | 0571)3-0649 |
| 대관령박물관 | 선사유물, 불교미술품등 | 동절기 휴관 | 강원 명주 성산 | 0391)41-4683 |
| 호암미술관 | 보물급 문화재 | 월요일 휴관 | 경기 용인 포곡면 | 0335)30-3551 |
| 농업박물관 | 농경문화관찰 | 공휴일 휴관 | 서울 충정로1가 | 02)397-5673~4 |
| 명가김치박물관 | 김치의 변천사 | 명절 휴관 | 서울 삼성동 | 02)562-1075 |
| 삼성출판박물관 | 출판의 시대사적 정리 | 일·공휴일 휴관 | 서울 당산동6가 | 02)679-4597 |
| 디자인박물관 | 생활용품 중심 | 월요일 휴관 | 서울 방배동 | 02)590-3473 |
| 옹기민속박물관 | 생활용기 | 공휴일 휴관 | 서울 쌍문동 | 02)900-0900 |
| 짚풀생활사박물관 | 농경생활 용품 | 수·목요일 개관 | 서울 청담동 | 02)562-1075 |
| 태평양박물관 | 세계최초의 화장품 박물관 | 일·공휴일 개관 | 서울 신대방동 | 02)832-3486 |
| 한국가구박물관 | 전통 목가구 | 토·일·공휴일 휴관 | 서울 성북동 | 02)766-0168 |
| 한국자수박물관 | 규중 공예품 전문 | 토·일·공휴일 휴관 | 서울 논현동 | 02)515-5114 |
| 잡지박물관 | 구한말부터 잡지 3만여점 | 일·국경일 휴관 | 서울 청진동 | 02)745-9464 |
| 호림박물관 | 호림선생 수집품 | 월·국경일 휴관 | 서울 대치동 | 02)566-8329 |
| 홍산박물관 | 토기전문박물관 | 월·화요일 휴관 | 서울 양재동 | 02)572-7496 |
| 한밭교육박물관 | 각종 교육자료 | 월·공휴일 휴관 | 대전 삼성1동 | 042)626-5393 |
| 화폐박물관 | 화폐의 역사 관람 | 공휴일 다음날 휴관 | 대전 유성 가정동 | 042)421-6677 |

만화

# 法句經 법구경

•악의 장• 독을 피하듯 모든 악을 피해야 한다.

이 향 원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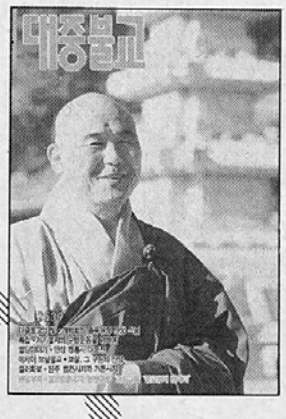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856-3280

"월간 〈대중불교〉를 만나십시오"

수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도반은 필요합니다.
〈대중불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법에 입각한 신행운동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불자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과 역할을 끊임없이
모색해온 불교정론지 〈대중불교〉가
이제 수행운동을 함께 펼쳐갑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과 보람으로
이끌어줄 대중불교!
지금 당장 전화로 신청하세요!




불교방송교재
'경전공부'
'교리강좌'
'불교영어 한마디'를
권말부록으로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월간〈대중불교〉
전화 : (02)773-5731, 752-7047 / 팩스 (02)771-6796

# 불서 출판 '가을 준비'

## 禪관련서·청소년 기획물 주류 이룰듯

## 장기 불황여파 '양보다 읽을거리' 승부

불서전문출판사들이 올가을 독서시장을 겨냥해 알찬 읽을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올가을 불서출판은 출판시장의 불황여파로 발행종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관련서와 청소년대상의 불서출판이 관심을 모은다.

불광출판부는 〈경허선사문집〉 〈초의선사 다선집(茶選集)〉 〈선의 정신의학〉을 준비하고 있다. 〈경허선사문집〉은 지난 91년 극락선원에서 펴낸 〈경허문집〉을 재편집해 읽기 쉽게 한글우선의 체재로 펴낼 계획이다.

〈초의선사 다선집〉은 '동다송'을 비롯해 그동안 번역되지 않았던 '다신전(茶神傳)'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를 포함해 선다일여(禪茶一如)의 면목을 보여준다. 번역자는 퉁광스님(칠불암 주지). 고 김종해박사(전 국립의료원장)의 유고를 모은 〈선의 정신의학〉은 빠르면 8월중 선보인다. 오랜 선수행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불광출판부는 또 신라~조선시대까지의 선사들의 수행일화를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백운스님이 동산스님을 시봉하며 들었던 '선방 뒷이야기'에 여러 자료를 덧붙여 11월께 펴낸다.

우리출판사는 새기획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 시리즈 가운데 이차돈 김시습 경허 용성 성철스님 등 1차분 5권을 9월중 펴내는 데 이어 올해안에 10권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한국불교사에 걸출한 족적을 남긴 20명 불교인의 삶과 사상을 한글세대의 정서에 맞는 문체와 이야기로 구성,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읽는 가운데 불교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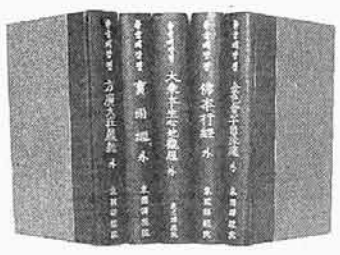
불교시대사는 '불교의 수용과 변화' 시리즈를 펴낼 계획이다.

'불교의 수용과 변화'는 불교가 전파되면서 각국의 고유한 종교사상과 어떻게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자리잡게 되었는가를 밝히고 있다. 인도 티벳 중국 한국 동남아 일본의 사례를 불교와 정치·예술·사회·철학으로 분류해 서술했다. 각국의 문화이해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원사는 '불교와 기독교 대화총서' 시리즈에 〈선과 현대철학〉 〈선과 현대신학〉 2종을 보탠다. 〈선과 현대철학〉에서 저자는 서양철학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 오류를 공(空)과 선(禪)이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여준다. 아울러 불교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 비역사적 비창조적 태도의 극복을 위해 서양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2종 모두 세계적인 불교석학 아베 마사오의 저작이며, 변선환목사가 번역해 관심을 모은다.

이밖의 불서전문출판사는 출판시장의 장기불황에 따라 새 기획물보다는 기존의 계획도 축소하는 '복지부동' 상태. 제작비 광고비 등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관매는 오히려 예년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민족사 불지사는 '세계명상시선' '불교경전총서' 〈선학사전〉 〈비유예화사전〉등 기존의 기획물만 펴낼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 역경원, '불본행경' 등 5권 동시 완역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은 최근 부처님의 전생담과 인연이야기를 담은 〈방광대장엄경〉 〈불본행경〉 〈대승본생심지관경〉을 비롯 〈금색동자인연경〉 〈보우경〉등 5권을 동시에 번역, 출간했다.

〈방광대장엄경〉에는 불타전기의 제3부, 즉 성도 후의 초전법륜부터 이승에서의 교화사업까지를 기술한 〈불설중본기경〉을 비롯 〈불설보요경〉이 포함돼 있다. 〈불본행경〉은 부처님의 복덕을 찬탄하는 운문형식의 경전이다. 뒷편에는 〈장로게〉와 〈장로니게〉를 포함했다.

〈금색동자인연경〉 (광명동자인연경, 덕호장자경, 초분설경 등 포함)은 부처님 입적후, 아난존자가 교화한 어느 상인의 아들 금색동자의 출생과 출가의 전기를 담고 있다. 〈보우경〉(화수경, 대승백복장엄생경 포함)에서는 불교수행덕목의 해설이 실려있다.

### 여시아문, 소식지 배포 신간안내등 서지정보

불서전문책방 여시아문(如是我聞)에서는 소식지 '여시아문'을 발행, 배포하고 있다. 매달 포켓판 16면으로 발행되며, 불교서적 신간안내와 서평 독자독후감 기타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소식지는 여시아문 도서회원에게는 우편으로 배달되며, 서점에서도 배포한다. 소식지를 받아보길 원하는 사람은 전화 (02)737-0695, 팩시밀리 (02)737-0696으로 연락하면 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역자 | 출판사 |
|---|---|---|---|
| 1 | 하늘 닮은 날 | 석성우 | 토 방 |
| 2 | 하산 | 홍 주 | 불지사 |
| 3 | 영가현흔법어 | 석성우 | 토 방 |
| 4 |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 | 임현담 | 효 형 |
| 5 | 삶에서 깨어나기 | 틱낫한 | 장경각 |
| 6 | 금강경강의 | 무 비 | 불 광 |
| 7 | 알기쉬운 불교 | 편성부 | 불교방송 |
| 8 | 42장경 | 라즈니쉬 | 성 하 |
| 9 | 존재론·시간론 | 사이구사 미쓰요시 | 불교시대사 |
| 10 | 달마에서 임제까지 | 일 지 | 불 일 |

구입문의:(02)737-0695

禪만화 '달마의 제자들' 펴낸 고우영 화백



## "웃음·해학으로 접하는 역대선사 구도세계"

본격禪만화〈달마의 제자들〉이 나왔다. 고우영 글·그림, 불지사 펴냄.

"선은 우리시대에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철학과는 비교가 안되는 동양만의 고준한 정신세계가 담겨있는 광활한 바다이며 험산준령을 거느린 우람한 산맥입니다."

고우영화백은 특히 원자화되고 속도에 쫓겨 자기모습을 잃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선은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마의 제자들〉은 달마로부터 6조혜능에 이르기까지 중국 선불교의 법맥을 이어온 조사들과 한국불교를 빛낸 고승들의 치열한 구도의 세계를 고우영화백이 특유의 번득이는 재치와 해학으로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따라서 선이란 산꼭대기에 걸려있는 흰 구름처럼 막연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지금까지 선을 주제로 꾸민 만화는 여러 종 있었으나 대부분 일본 것의 번역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본은 묵조선 중심인 반면 한국과 중국의 선은 화두선의 전통이 강하다. 또 일본의 선만화는 선을 소개하는 개론의 성격을 띠었다. 이번에 선보인 〈달마의 제자들〉은 선사들의 선문답 즉, 화두를 주제로 삼고 있어 한국선불교의 전통인 화두선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선문답은 엉뚱한 것 같지만 복잡한 정신세계를 몇마디의 문답으로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나 선의 'ㅅ'자도 모르는 사람이 선만화를 그려 선을 모독하지 않았나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고화백은 "만화를 보면서 가볍게 웃는 가운데 스님들의 깊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독을 권하는 말을 덧붙였다. 〈운〉

명사추천 불서100선

용수보살의 '中論'



최 일 범
(성균관대 교수)

## 불법의 철학·논리적 진리 서술 아함경등 원시불교 모습 계승

흔히 가장 갈등이 없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하듯이 불교가 갖는 포용성은 불교만의 독특한 성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포용적인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 못지 않게 가면 갈수록 불교를 어렵게 인식하게 되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위험성도 아울러 내포하는 것 같다. 아마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윤회한다는 것은 내가 다음 세상에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인가' '깨달음이란 신통력을 얻는 것인가' '진정한 해탈이란 세속을 초월하는 것인가' '열심히 기도하면 무언가 응답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색즉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등등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생각에 잠겨 마치 부처님으로 하여금 곤혹스럽게 '무기(無記)'라고 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철없는 제자와 같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필자는 요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불자 누구누구가 당선이 되었다든가, 열심히 주력했더니 난치병이 치료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기복불교, 신비주의 불교, 배타성의 불교가 일반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불교에 내재하는 종교적 신비성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불보살의 가피를 받아야겠다든가, 내가 신통력을 이루어 이적(異蹟)을 보여야겠다는 이기심을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을 뿐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론'을 권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론'이 팔종(八宗)의 조(祖)로 추앙되는 대승불교의 선구자인 용수보살의 저작이며 그 내용이 공(空) 사상에 입각한 중도실상의 천명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중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속에 일관되게 흐르는 치밀한 논리성, 철학성이다. 용수는 결코 신통이나 초월을 말하지 않으며, 삼매와 같은 방법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의해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상 우리가 보통 대하는 대승경전들은 분석적이거나 논리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아함경에 보이는 부처님은 지극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다. '중론'은 그러한 원시불교의 모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철학적이든 논리적이든 언어와 사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지만, 언어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언어를 초월하는 선(禪)의 수습(修習) 마저도 명철한 이성과 논리적인 사유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야 다양한 불교의 모습을 이성의 토대위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론'을 산스끄리뜨어 원전이나 한역(漢譯) 주석본으로 읽는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 최근에 한역 주석본과 산스끄리뜨어 원전을 번역한 노작(勞作)들이 출간되어 쉽게 '중론'에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서원에서 출간된 김성철 역주 '중론'과 장경각의 박인성 역의 '나가르주나' 등이 그것이다.

화제의 책

### 일본의 불교 — 와다나베 쇼코지음




일본의 불교는 일본인에게 너무나도 눈에 익은 존재이지만, 또 동시에 지금까지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은 맹점도 있다. 너무 의례화되어 왜곡된 불교쯤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생활불교의 모범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일본의 불교〉는 일본불교의 총체적인 면모를 개관하고, 그 본질을 탐색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일본인은 외래사상인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승했는가, 불교는 주술이나 사자의 례(死者儀禮)와 어떻게 결부되었는가, 일본인의 생활속에서 불교가 한 역할은 어떤 것이었나를 역사적 자료와 문화현상을 분석하며 살피고 있다.

### 일본인 생활속 불교문화 조명

이와함께 오늘날 일본인의 생활속에 남아있는 불교적 사상을 율·선·밀교의 계보와 화엄사상, 법화신앙, 아미타신앙의 흐름속에서 조명했다.

〈김진만 옮김, 소화출판사, 4천2백원〉

### 영동지방 역사기행 — 방동인 지음




강원도는 우리나라 어느 곳 못지않게 역사유적이 많은 곳이다. 특히 선사·고신라·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에 걸쳐 각 시대마다 굵직한 흔적들을 남기고 있어 지역전체가 역사박물관으로 손색이 없다. 또 빼어난 자연경관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영동지방 역사기행〉은 강원지역의 한 역사학자에 의해 쓰여진 지역의 역사·문화보고서이다. 따라서 '공부관광'의 충실한 안내서로 읽힌다. 모두 5부로 나눠 인물, 교통·통신, 교육·문화, 축조물, 관동11경에 대해 답사현장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듯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강원지역의 자연경관은 관동8경으로만 알려졌다. 이 책에서는 영조 때의 화가 김상성의 화첩을 실어 월송정 낙산사 해산정(삼일포)을 포함한 관동11경을 최초로 소개해 주목된다. 〈신구문화사, 1만원〉

### 강원지역 유적 시대별로 해설

불광가족·법보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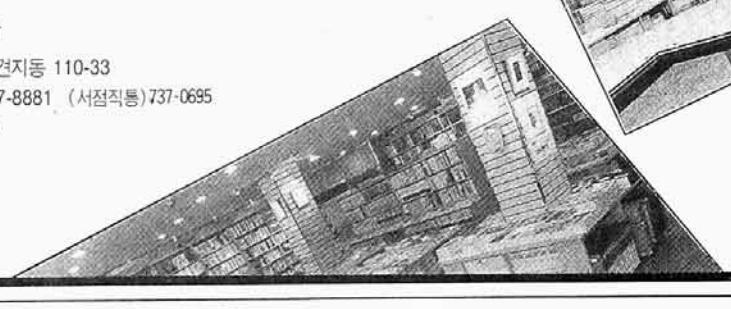
여시아문에서 찾은 한 권의 책!

참된 불자라면
불법 더위조차 도반,
진리를 열망하는 불제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대표) 737-8881 (서점직통) 737-0695
팩스 737-0696

국내-최대-최고의-불교-전문-서점

• 책방 여시아문은 불교 관련 서적 및 역사·철학·사회과학 등을 총망라, 5천여 종, 3만여 권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타 서점에서 구입하기 힘든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 판매와 도서 회원제를 운영합니다.

가입 전화 또는 팩스로 가입 신청을 받으며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받아보실 책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전화나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십시오. 신속하게 우송해 드립니다.

특전 회원들에게는 책방 여시아문 발행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리며 도서출판 여시아문·현대불교신문사 발행도서에 한하여 20% 할인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자와의 만남, 계절별 책잔치 등 현대불교신문사·책방 여시아문이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가장 먼저 초대됩니다.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편안한 독서공간에서 누리는 최고의 독서 체험—책방 여시아문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나' 통해 자아찾는 무대

## 이만희作 '그래 암스텔담에 가자' 10월4일까지 공연

**본래 오고감이 없거늘**
**뉘라서 사바세계를**
**다녀간다 말하랴**
**태어남이 태어남이 아니요**
**죽음이 죽음이 아닌데**
**우리 모두 돌아서는 사람들**
**안개처럼 모였다 흩어지는**
**사람들, 강물이로다.**

이만희씨의 희곡을 박종선씨가 연출한 모노드라마 「그래 암스텔담에 가자」가 동숭동 인간극장에서 지난 8일 막을 올려 10월4일까지 공연된다.

연극 중간에 불려지는 노래 '본래 오고감이 없거늘'은 이 연극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치열한 현실의 삶 속에서 만나는 자신의 분신인 '또다른 나와의 대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본다는 것이 이 연극의 기획의도다.

불교적 정서 속에서 유년과 청년기를 거친 작가의 삶이 이 연극의 대사 하나하나에 진하게 배어 있어 현대인의 인생관을 더욱 진솔하게 느낄 수 있다.

모노드라마이면서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 연극은 주인공 박장수와 그의 4가지 모습을 지닌 분신들과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한 그룹의 총수인 박장수(고인배역)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하면서도 결과가 불분명한 우주항공산업진출안을 놓고 심한 갈등을 겪는다. 그는 신혼여행의 추억과 낭만이 깃든 암스텔담의 호텔방에서 이틀밤을 혼자 지새며 고민을 한다. 그는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한 각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다가 머릿속의 친구들(분신들)을 불러내 격론을 벌인다. 그 분신들은 희망적 분신과 이성적 분신, 도덕적 분신, 낭만적 분신들이며 그들과의 격론으로 결국 박장수는 '자아'와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 연극은 1인극이 되 그 1인이 갖는 다양한 얼굴이 동시에 나타나는 분신극이다. 암스텔담이라는 출세간적 상황에서 겪게 되는 자신과의 갈등은 곧 수행승의 한 구도과정과도 같은 것이다. 때문에 극 중간에 삽입된 노래는 초탈의 인간세계를 현실로 자각 시키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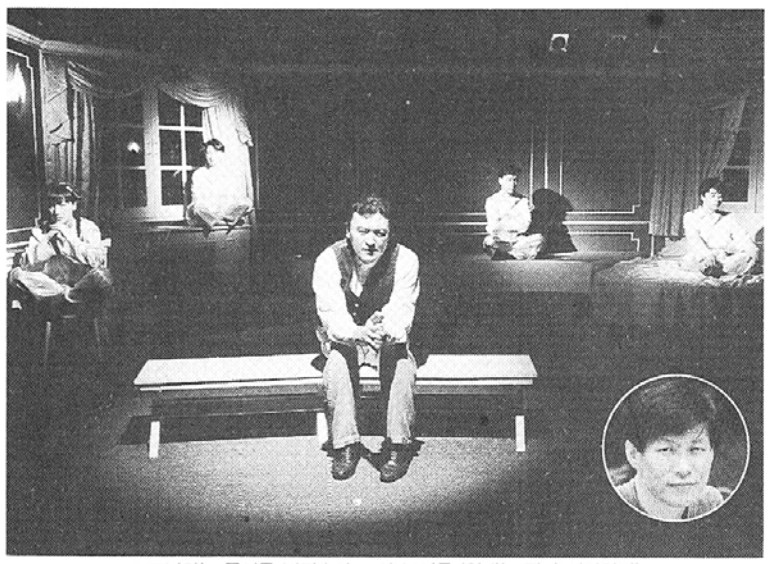
작가 이만희씨는 "본격적인 불교극이라는 영역 설정보다는 내용 자체가 얼마나 불교적 가르침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 연극은 현대인 모두가 절실히 욕구하는 '자아'라는 회두풀기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지난 90년 이만희씨는 희곡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로 삼성도의문화상을 수상했으며 민예극단이 이 작품을 공연해 서울예술제에서 희곡상, 연기상, 분장상을 포함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었다.

### '그것은 목탁…' 해외수출 내년 국내 재공연도 계획

90년대 초반의 불교연극계에 활력소를 불어넣었던 〈그것은 목탁…〉이 최근 불어와 영어로 번역됐으며 내년쯤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에서 무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불교연극의 세계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만희씨는 오는 9월 중순 '불좀 꺼주세요' 공연과 관련해 미국에 가면 현지 연극계와 〈그것은 목탁…〉의 공연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그것은 목탁…〉을 국내에서도 재공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고뇌하는 주인공 박장수와 그의 분신들.(원내는 작가 이만희씨)

## 불심시심 〈26〉

### 천금에 값하는 한 조각 구름

紫陌紅塵尺許深 (자맥홍진척허심) 번화거리 붉은 먼지 한 자나 깊어
幾多遊官客浮沈 (기다유관객부침) 허구많은 벼슬아치 뜨락 잠기락
誰知一片白雲墅 (수지일편백운학) 누가 알까 한 조각 구름 덮힌 골짜기가
天付貧僧值萬金 (천부빈승치만금) 가난한 중에게 하늘이 준 만금의 값어치

윗 시는 소요대사가 산 속에 사는 회포(山中咏懷)라 한 시의 하나이다. 산 속과 대비되는 속세. 그것도 인간적 호사스러움으로 가득차 있는 장안의 거리와 대비되는 산 속을 읊었다. 이 장안 거리에는 오늘도 세속의 부귀를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벼슬아치로 분주하다. 이 분주한 거리에는 붉은 먼지로 가득 찬 거리이지만 속세의 벼슬아치에게는 황금의 거리로 보인다. 이 거리의 발길에 따라 세속적 영화의 길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세속적 인심의 추향은 장안 거리로만 달리는 것이다.

여기에 대비되는 산중의 도량은 번화함보다는 적막함으로 항상 싸여 있다. 저쪽이 있음이라면 이쪽은 없음으로 대칭되고, 저쪽이 부자라면 이쪽은 가난으로 대표되는 공간이다. 저쪽이 붉은 먼지(紅塵)로 상징된다면 이쪽은 흰구름(白雲)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공간이 바로 산 속이요 그 속에서의 삶을 즐기는 것이 산승이다. 그러기에 작자는 가난한 중이라 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있고 없음, 곧 많이 가짐과 적게 가짐으로 가난과 부자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장안 거리의 호사스러움이 많음과 산속의 초라한 정적은 부자와 가난의 맞섬의 절정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많고 작음이라는 가시적 양적 기준에 따라 빈부의 구별이 성립되니 산중과 도성은 어쩔 수 없는 빈부의 격차이다.

그러나 가시적 양이 아닌 떠안고 있는 값어치 곧 가치가 빈부의 기준이라면 꼭 양의 다소에 구애받을 일도 아니다. 어차피 산에 사는 산승에게 세속적 기준에서 가난으로 규정됨은 당연하지만 자연으로 대표되는 하늘(天)의 인정적도로야 반드시 그럴 이유가 없다. 한 조각으로 정양되는 흰 구름이며 값어치로야 만금이라는 극한의 다량으로 계산될 황금의 가치이다. 이 시는 이렇듯 세속의 질량을 벗어난 빈부의 세계를 보인 시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 양귀자씨 소설 '천년의…' 발간
## 윤회론적 남녀의 사랑 이야기



◇양귀자씨

「…20세기의 이 나라 이 땅에서 당신과 내가 만나 그리움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여 기어이는 사랑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이 부여 받은 현생에서의 과제입니다.…」

불자 소설가 양귀자(40)씨가 3년만에 내놓은 장편 〈천년의 사랑〉은 천년전에 사랑을 못 이룬 채 죽은 남녀가 현세에 다시 만난다는 윤회론적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들이 완성하려는 사랑이 기공수련을 통한 초과학적 능력에 의존되고 있는 점이 매우 특별한 흥미를 준다. 또 전기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나 극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현대시인들의 시를 자주 인용한 것도 양씨의 소설이 갖는 새로운 맛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년이란 세월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인간의 사랑, 가장 현실적인 고통인 사랑의 이야기를 초과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만 〈천년의 사랑〉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이야기로 귀착되고 있다. 때문에 평론가 조정일씨는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치맛자락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해 온 문학관행에 대한 반기로써 이 소설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독자들에게 과학불신과 신비주의에 기울도록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다.

## 지혜스님 그림수필집 펴내



◇지혜스님

산수화 그리기로 수행 정진해 온 지혜스님(두타산 삼화사)이 그간 국내외에서 전시했던 작품들을 묶은 〈당신의 모습이 이 그림속에〉를 펴냈다.

스님은 이 화집에 그림과 함께 짤막짤막한 수필과 경전 속의 이야기등을 함께 담았다. 국전에도 특선과 입선을 했던 스님은 그간 국내외에서 여섯번의 전시회를 가졌으며 올 가을에 또 한번의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 석조여래입상등 12건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경기도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어용리 석조여래입상등 불교문화재 4건을 포함, 경기도내 12개 유적 및 전통예술인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불교문화재는 △어용리 석조여래입상 △진동면 동파리 마애사면석불 △와부읍 송촌리 수종사부도 △고령산 보광사 숭정칠년명종이다.

# 고려미술 재평가 "세계 유물 확인"

## '대고려국보전' 한병삼·이난영·가와다씨 학술강연



### 불교사상 기초한 미술작품 섬세·우아·화려美 '자랑'

한병삼 관장

호암미술관이 중앙일보사, SBS와 '자랑스런 문화유산찾기 운동'의 하나로 기획한 「대고려국보전-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1)」의 학술강연회가 지난 26일 삼성생명빌딩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고려국보전의 의의」라는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선 한병삼씨(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는 "사상적으로는 불교를, 정치적으로는 귀족정치를 근간으로 한 고려문화는 지금까지 고려청자, 팔간대장경, 금속활자 등 몇가지만 떠올려 피상적으로 이해하여 왔지만 사실 미술분야에서 섬세함과 우아함, 화려함을 특징으로 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남기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고려시대에 대한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고, 고려미술의 위대성을 온전하게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씨는 이번 전시회가 단편적인 유물의 나열이 아니라 고려시대 전반에 걸친 문화유산을 통해 통시적으로 그 시대를 조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고려 금속공예품 중 다수 통일신라 때 것"

이난영 교수

이어 이난영교수(동아대학교 미술사학과)는 「고려시대 금속공예」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지금까지 고려시대로 분류하였던 많은 문물 가운데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로 고려경이라 일컬어져 온 동경(銅鏡)의 시대구분이 최근들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청동제 수저, 금속기명(金屬器皿)등에서 신라와 고려의 유물이 분명히 밝혀지게 되면서 고려시대의 금공품에 대한 문제점을 재조명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교수는 "고려의 금공기술은 각종의 기법이 고루 구사되어 오던 통일신라시대에서 이어 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중 공양구, 법요기(法要器), 불상, 사리장엄구, 경관(經板), 범종 등을 종교·신앙관계 금속공예품으로 구분했다.

이어 이교수는 비구스님이 몸에 지니는 정수를 담은 병이란 뜻의 정병, 고대 보살상들이 들고 있던 병, 향로, 사찰에서 사용하는 쇠북의 일종인 청동반자, 청동보탑, 원형(圓形)이나 방형(方形)의 동판 관음상, 보탑, 사천왕 또는 경문(經文)이 새겨져 있는 경상(鏡像) 등을 들어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의 역사와 형태를 나누어 소개했다.

일본 제총산대 가와다 사다무교수는 "'고려불화'로 칭해져 한 시대를 풍미한 화려함의 극치인 불교회화, 백은(白銀)의 치밀한 상감선이 흑갈색의 바탕에 새겨져 뛰어난 장식효과를 보이는 금은상감의 금속기등, 고려인의 높은 미의식과 민족성을 반영한 유품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11·12세기경의 고려는 정말로 최성기에 어울리는 세련된 미술공예품을 만들어냈다"고 전제하고, 「고려의 나전칠기」라는 주제에 대한 를 강연을 통해 고려나전의 우수성과 역사를 밝혔다.

한편 '대고려 국보전'은 지난 15일부터 연일 관람객이 줄을 잇는 가운데 호암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 최대 수월관음도를 비롯 불화 11점, 사경관경 5점, 불상 10점, 법종등 모두 2백66점이 전시되고 있다.

도필선 기자



### 불화·나전칠기 '예술 극치' 고려시대는 문화전성기

가와다 교수


세일즈맨의 필독서
**솔솔 신바람·살살 세일즈**
정 가 : 12,000원
신국판 : 400페이지
저 자 : 이철근
판매처 : 진한도서 319-3535
FAX 319-3537

세미나 참가자에게 무료제공

**왜?** 국내 유수의 기업체와 금융기관, 특히, 보험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본 본서 출간을 학수고대하며, 3월 20일 대강연회 문의및 등록접수를 위하여 몸부림으로 업무를 마비케하는가?
국제화, 미래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솔솔** 불어오는 신바람에다 **살살** 파고드는 세일즈 영업전략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300만 세일즈맨의 시들어 버린 영혼에 한줌의 빛이며 혁명이요 해방이다!




300만 세일즈맨의 필독서!
이 책을 보지 않고서는
감히 세일즈맨이라 자부하지 말라
이 철 근 著

▶ 지금 전국 유명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본 도서를 1권씩 증정합니다.

신국판/420면/정가 12,000원

"세일즈맨 교육시 강사초빙환영" 전화협의 바람 (02)561-7515, 561-7076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얻는 것도 "세일즈전략"이요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는 것도 "세일즈전략"이다. 어느기업이든 세일즈전략에 의해서 그 企業의 흥망성쇄가 左右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미나가 어떤 것인지 한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바람과 일선세일즈세미나
●세미나일시 : 1995년 3월 20일 (월) 13:00~17:00
●세미나장소 : 사회과학도서관 ●문의및 신청 : 561-7515, 7076
●세미나비용 : 1인 ₩70,000
●세미나강사 : 李哲根원장(現代經營技術開發院)
(三星·金星·현대·롯데·해태·효성·동원산업, 승실대최고경영자과정, 건국대 대학원, 경희대 대학원, KPC, KSA, KMA, KID,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수많은 교육을 실시)

세미나內容
Ⅰ. 획기적 전략적 세일즈맨의 역할과 책임
1. 세일즈맨의 책임과 역할의 개요
2. 신나는 세일즈맨의 절대적인 5가지 책임
3. 신나는 세일즈맨의 절대적인 3가지 역할
4. 신나는 세일즈맨의 목표달성의 3가지 7 회
5. 신나는 세일즈맨의 간택 명심사항과 사례
Ⅱ. 세일즈 영업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수법
1. 세일즈 영업정보의 효과적 전달의 개요
2. 의사전달에 있어서 빠지기 쉬운 3가지 함정
3. 거래선 영업정보 전달에 있어서 3가지 연구수법
4. 거래선 영업정보 전달에 있어서 3가지 수법의 활용방안
5. 세일즈영업정보전달의 간택 명심사항과 사례
Ⅲ. 신바람나는 거래선의 거절방지 요령
1. 신나는 거래선 거절방지의 원인과 내역
2. 완고한 거래선 거절방지의 3대원칙과 관심사항
3. 완고한 거래선 거절방지의 효과적 철회와 설득요령
4. 완고한 거래선 거절방지의 간택명심사항과 사례
Ⅳ. 신나는 신제품 판매촉진책의 전파방법
1. 신나는 신제품 판매촉진의 개요
2. 신나는 신제품 판매촉진의 3가지 직접적인 요소
3. 신나는 신제품 판매촉진의 5단계 중요사항
4. 신나는 신제품 판매촉진의 4가지 효과적 종결방법
5. 신나는 신제품 판매촉진의 간택명심사항과 사례
Ⅴ. 신나는 거래선의 계속적, 정기적 방문기법
1. 신나는 거래선 정기적 방문의 개요
2. 신나는 거래선 정기적 방문의 3대요소
3. 신나는 거래선 정기적 접점활동의 4대요건
4. 신나는 거래선 정기적 접점활동의 5단계 기법
5. 효과적 거래선 정기적 방문의 간택명심사항과 사례

主催:現代經營技術開發院 TEL:561-7515 561-7076 後援:眞韓圖書

기업내 교육훈련의 극대화와 교육담당자를 위한
**社內講師養成實務**
★신간★
정 가 : 40,000원
출판사 : 진한도서
저 자 : 조봉구, 이철근, 황태호
4×6倍版 900페이지
판매처 : 319-3535, 778-1755

세미나 참가자는 무료제공

Ⅰ. 企業研修와 기본원리 → 1. 기업내연수와 책임 2. 연수의 기본원리
Ⅱ. 연수계획과 수업계획 → 1. 연수의 Needs와 연수계획 2. 수업계획의 본질과 작성 3. 개인 개발의 7대 법칙
Ⅲ. OJT實際와 HRD연수 → 1. OJT의 實際研究 2. HRD의 研修活動
Ⅳ. 학습조직과 연수전략 → 1. 학습조직의 기초와 유형 2. 학습원리와 전이 3. 연수후의 체크포인트
Ⅴ. 연수방법과 토의기법 → 1. 강의식과 시범실습식 2. 문제해결식과 프로그램학습 3. 토의기법의 분석
Ⅵ. 연수평가와 측정방법 → 1. 연수과정의 분석과 요령 2. 문제작성요령과 분석 3. 연수의 효과적측정방법
Ⅶ. 직업훈련의 요령방법 → 1. 직업훈련 과정과 기준 2. 직업훈련의 체계와 형태 3. 직업훈련 사업안내

저자및 강사 趙鳳九 : 성암산업교육원 원장
李哲根 : 현대경영기술개발원 원장
黃泰浩 : 조직발전연구소 소장

사내강사양성특별세미나
• 일시 : 1995. 3. 13(월)~14(화) 2일간
13일 14:00~18:00 14일 10:00~18:00
• 장소 : 사회과학도서관
• 강사 : 저자직항
• 수강료 : 100,000원
• 참가대상 : 각회사강사요원, 연수부과장, 강사가 되고자하는 자
• 문의 및 신청 : TEL 561-7515, 561-7076

主催:現代經營技術開發院 TEL:561-7515 561-7076 後援:眞韓圖書

# 서대문감옥 순국선열

# 1백여位 위령재 봉행

## 삼중스님·유족회 주관…日도 참석 '참회서' 낭독 예정

광복 50년만에 처음으로 일제에 의해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한 선열들의 영령들을 천도하는 위령대법회가 오는 5일 서대문감옥 유적지인 서울 독립공원에서 봉행된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모임인 순국선열유족회(회장 이종갑)와 삼중스님(부산 자비사 주지)주관으로 열리는 '서대문 감옥 순국선열 위령대재'는 오전 10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6개 종교단체와 사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진다.

종교별 의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위령대재는 독립공원내 순국선열 추념탑 앞을 비롯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순국한 사형장터, 유관순열사가 갇혀 있던 여사터 앞에서 추모제를 봉행한다. 또한 2부행사로 이상준 무용단과 창원대 무용단등이 마련하는 추모공연도 거행된다.

이날 위령재의 제단에는 구한말 의병활동을 벌이다 체포된 13도창의군 이찬영선생, 유관순열사 이재명의사 김동삼선생 등 해방이전 서대문 감옥에서 사형당하거나 옥사한 1백여명의 위패가 모셔진다. 이밖에도 해외에서 순국한 애국열사,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순국선열 합동위패도 함께 모셔진다.

한편 일본 '일한불교복지협회' 가키누마 센신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백여명이 위령법회에 동참, 한일 과거에 대한 '참회서'를 낭독할 예정이다.

86년 자비사 신도들과 함께 서대문감옥에서 천도재를 지냈던 삼중스님은 "서대문감옥에서 돌아가신 순국영령들에 대한 천도재를 지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위령대재를 준비해왔다"며 "광복 50주년을 맞아 많은 행사가 준비되고 있지만 이름없이 순국한 선열들을 위령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국선열유족회 이종갑회장도 행사에 앞서 "이번 위령대재를 통해 순국선열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전국민이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선열들의 명복을 빌어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근 기자



**이곳이 사형장**

순국선열들이 숨져간 서대문감옥 사형장에서 삼중스님, 이종갑 순국선열유족회장(왼쪽), 박찬성씨가 5일에 있을 위령대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서대문 감옥 순국선열 진혼시

## 우리는 英靈들에게 먼저

具常

우리는 영령들에게 먼저
광복 50돌이나 되는 이제껏
이 나라의 완전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듯 님들의 그 순국형장에 모여서
恨 겹친 넋들의 鎭魂만을 축원하옵는
이 무능과 용렬을 사죄드립니다

어쩌면 님들의 그 忠節의 넋들은
아직도 저승에서 피를 흘리시지 싶은
그런 죄책과 가책이 가슴을 찢나이다

한마디로 님들이 목숨을 걸고 바쳐서
바라고 그리던 이 나라의 독립이란게
이렇듯 허리잘린 두동강의 땅조각과
겨레끼리 포문과 총구를 맞겨누고 있는
이런 해괴하고 망측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념의 쇠사슬로 백성들에게
생감옥살이를 시키는 북한의 오늘이나
황금만능으로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고
인륜에 눈이 먼 남한의 세상살이가
님들이 목숨과 바꾸신 광복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만이라도
님들의 넋을 위로하고 축원하기 앞서
우리의 오늘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자신의 오늘을 가차없이 참회하자

아무리 한치 앞이 안보이는 시대지만
또 나날이 불안과 절망을 되씹지만
우리는 인간의 징표인 양심을 밝혀서
묵은 그 이념의 허깨비에서 벗어나고
남은 그 황금의 송아지를 몰아내서
님들의 넋이 눈감지 못하고 갈망하는
완전독립을 이루고 정의사회를 만들자

그리하여 우리의 두동강 난 강토가
새살로 아물어 그 아픔도 싹 가시고
이 죽음터에 겨레의 성전이 세워져서
남북형제가 다함께 머리를 조아릴 때
님들의 넋도 영원한 안식에 드시리

## 우란분재 유래와 의의

8월11일(음 7월15일)은 불가의 5대명절 가운데 하나인 우란분재(盂蘭盆齋)이자 백중(百衆)이다.

이날은 스님들이 하안거를 마치는 날로 각 사찰에서는 지옥과 아귀보를 받은 중생은 물론 현세의 부모와 7대의 부모를 위해 천도재를 봉행한다.

우란분재의 유래는 〈우란분경〉에 목련존자가 그 어머니를 아귀도에서 구해내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7월15일(음) 안거 자자일에 여러가지 음식, 과일 등과 초 등 공양구를 갖추어 여러 스님네를 위해 공양을 베푼 것에서 비롯됐다.

△방생과 공양의 날로 이름할 수 있다.

특히 각 사찰에서는 금번 우란분재를 맞아 문민정부들어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나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로 인해 세상을 떠난 영가들은 위한 왕생기도나 영산재를 준비하고 있다.

죽음을 달래고 지혜의 눈을 뜨게하기 위해 재를 올리고 공양하는 것은 단지 한개인의 극락왕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무주고혼의 원한을 풀어 극락왕생하게 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공덕이 돌아오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 효행 주간 설정·수행지침 세워

## 효도·노동의 날 …방생공양실천

즉 출가자의 수행공덕과 보시자의 공양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중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7월15일(음)을 중원(中元)이라 일컫고 백종(百種), 백중이라하여 작은 명절로 삼아왔다. 백중은 백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농민을 위로하고 휴식하도록 하는 날이다.

이처럼 우란분재, 백중은 2종의 다양한 민속이 전해져 오는데 오늘날 새로이 조명하면 대체로 △조상을 기리는 효도의 날 △풍요로운 노동절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도 금번 우란분재를 맞아 효행주간을 정하고 수행지침을 밝혔다.

포교원이 제시한 수행지침은 ▲기도와 발원-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들의 왕생극락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살아계신 부모에 지성으로 효도. ▲사경과 독송-〈우란분경〉이나 〈부모은중경〉 사경은 곧 부처님을 뵙는 것 ▲참회와 삼보공덕-불효를 뉘우치고 부처님의 가피로 선망부모와 선조의 왕생극락 발원 ▲보시와 공덕을 쌓는 생활 ▲부모님과 대화하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등이다.

## 우란분재 '생명해방 대축제' 전국사찰 효부상·경로잔치 마련

8월11일 우란분재를 맞아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천도재를 비롯 경로잔치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란분재를 '생명해방의 대축제'로 정하고 11일 오후3시부터 천도재와 마당극을 펼친다.

이번 축제에는 범패(김구해 인묵스님), 풍물판(살판), 마당극(백두산), 만담(박철민) 등이 별도로 진행된다.

봉은사 주지 무상스님은 "우란분재는 불교명절이자 세시풍속인 백중과 결합된 날로 범국민적 축제일로 승화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도 8월11일 오후 2시 백중경노잔치를 벌인다. 이날 행사에는 효자, 효부시상식과 장기자랑, 연예인초청공연이 펼쳐진다.

석왕사는 이어 27일 오후5시 백중 노동자문화대잔치를 개최한다.

한편 전국의 각 사암도 우란분재를 기해 천도재를 비롯 효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준비해 놓고 있다.

### 전국 교구임원 연수

**법화종, 지난17일 안정사**

대한법화종(총무원장 김대호스님)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경남 통영 안정사에서 '전국교구 종무원장 및 임직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문구암종정을 비롯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가해 종무지도, 종도교화방법, 선수행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종헌종법공청회를 갖고 선거법 개정, 포교원폐지와 교육위원회 신설, 사정원의 폐지와 사정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상벌제도 관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 수계산림 11월 연기

**태고종, 사전소양시험 실시**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스님)은 지난달 21일부터 봉행할 예정이었던 제19회 합동득도수계산림을 11월6일부터 20일까지로 연기했다.

이에따라 태고종은 6월 20일까지 등록 마감된 72명의 행자를 대상으로 9월1일 오후 2시부터 총무원 설법전에서 사전소양시험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자소양시험에 합격한 행자는 3개월간 각사찰에서 행자수업과 태고총림 선암사의 행자수업을 통한 한 행자에 한해서만 수계식에 참가시킬 방침이다.

### 4일부터 하안거 입재

**천태종, 간부교육 실시도**

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은 오는 4일부터 9월3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하안거를 실시한다.

서울 성룡사를 비롯 전국의 각 사찰 신도간부들이 동참하게될 이번 하안거 기간동안 간부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설법보전에서 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를 봉행할 방침이다.

## 종헌종법개정 실무위 구성

**태고종, 사정원·승려법등 검토 개혁추진**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스님)은 지난 70회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종단개혁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종헌종법 개정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지난 27일 1차 전체회의를 갖고 5인의 기초위원을 선정, 9월 20일까지 본격적인 종헌종법개정 및 제정안 초안작성 작업에 들어갔다.

종헌종법개정이 마무리되는 9월 20일경에는 그동안의 초안작업결과를 토대로 2차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초안심의를 확정, 10월중에 열리게 될 71회 정기중앙종회에 상정하게 된다.

실무위원회가 다루게 될 종법 개정 및 제정대상은 중앙사법원(사정원)법, 승려법, 교육법, 종무직원법, 상벌법, 사찰법, 공훈법, 법인관리법, 특별위원회 설치법, 분담금부과 징수법, 종책협의회의 조례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ㅇ 가운데 사찰법, 공훈법, 법인관리법, 특별위원회 설치법, 분담금부과징수법등은 새로 제정하게 될 종법이다.

## 불교 인터넷정보 급증세

최근 인터넷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불교계 내에서도 불교정보구축을 위한 노력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사냥이 한창이다.

**해외통신**

현재 인터넷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교사이트는 전세계 50여개 정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국대에서 처음으로 만든 Buddhist web Home Page가 준비상태이다.

세계 유명 스님들의 법문을 인터넷에 띄우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 동양학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경허스님을 비롯 틱낙한 선사등의 법문이 제공되고 있다.

http://coombs.anu.edu.로 찾아 들어가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유명한 선사의 법문을 볼 수가 있다.

### 세계여성불교도회의

**1~7일 북인도 라닥서**

제4차 세계 여성불교도회의가 1일부터 7일까지 북인도 라닥에서 열린다.

국제 여성불교도 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 IABW)과 라닥 신도회, 라닥 여성신도회가 주최가 되어 △나의 여성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관습과 적응 △불교를 믿는 이유 △삶의 선택(승려와 재가신도) △불교와 어린이 △불교와 여성의 건강 등을 주제로 회의와 토론이 펼쳐진다.

## 日, 종교법인법 개정추진

일본 문부대신의 자문기관인 종교법인 심의회는 지난달 20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옴진리교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종교법인법 개정 문제를 심의.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종교법인법 개정은 종교법인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보고제 도입과 관할청을 도부현 지사에서 문부성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주로 골자로 추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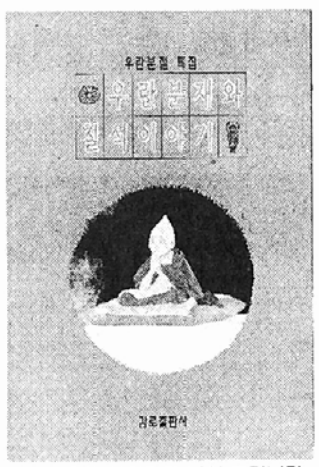
이번 개정시안은 올 가을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남수미 기자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①**

우란분재의 연원, 우란분재의 의미,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법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 우란분절 발원문
2 우란분절 봉축법회 식순

제2부 믿음의 근본, 효:우란분재
1 우란분재의 연원
2 우란분재란
3 우란분재의 의미
4 우란분절과 백중

제3부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1 나복의 출가
2 어머니를 찾아 지옥으로간 목련존자
3 우란분재를 올리다
4 부처님께서 우란분재를 베풀라 하신 참뜻은?

제4부 칠월칠석
1 칠석의 유래
2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칠석재
3 칠원성군 진언과 부적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가격/1권당 1,0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孝 사상의 3大 경전 부모은중경 · 우란분경 · 목련경을 한데 모았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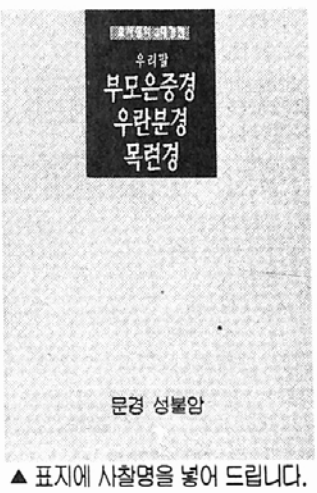
**부모님에 대한 孝사상을 고취시키십시다.**

부모은중경 · 목련경 · 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우란분회에 대하여, 우리말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효사상이 고갈된 현시대에 부모님에 대한 효사상의 고취는 물론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부모은중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제2부 우리말 부모은중경
제3부 목련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제4부 우리말 목련경
제5부 우란분경이란 어떤경전인가
제6부 우란분회란
제7부 우리말 우란분경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가격/1권당 1,0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말 지장경**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 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0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 "도반끼리 공부하니 새롭네요"

## 주지스님·포교사·경승단·방송작가 등 교계 연수 바람

### 전문지도자·프로 다양화·상설 연수원 개설 과제

제2차 조계종 교구본사 포교국장 연수, 사찰신도회 및 신행단체 지도자 연수, 군승단 연수, 방송작가초청 연수, 어린이법회 지도자 연수, 중·고등법회 지도자 연수, 법주사·월정사·마곡사 말사 주지 연수… 8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계속되는 각 연수의 내용이다.

조계종 개혁종단 출범 첫 해인 올해 연수교육이 부쩍 늘었다. 올 상반기에 실시된 연수만 보더라도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연수, 중진비구니스님 연수, 전국포교사연수, 경승단연수, 포교국장단 연수, 국제포교사 연수, 직할·해인·쌍계사 연수 등등.

승풍을 확립하고 수행과 포교를 위한 과제를 도출해내며 아울러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연수가 꼬리를 물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조계종 주최의 연수 확산은 다른 종단에도 영향을 주어 종무원 연수·동방불교대 법사연수(태고종) 전국교구 종무원장 연수(대한법화종) 포교사 연수(총화종) 등이 덩달아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특히 승려 재교육의 일환으로 일년내내 실시되고 있는 조계종 교구별 말사주지 연수에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등 3원장 스님들이 직접 참석, 참가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종단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것도 연수의 큰 소득. 지방차치 환경등 시사 쟁점들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분과별 토의를 가지는등 문제의식과 함께 불교의 대 사회적 역할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도 연수에서 얻는 또다른 수확이다.

지난 6월23일~24일 화성 신흥사에서 실시된 경승단 연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2백30여명의 경승들이 참석, 8년만에 부활된 연수회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승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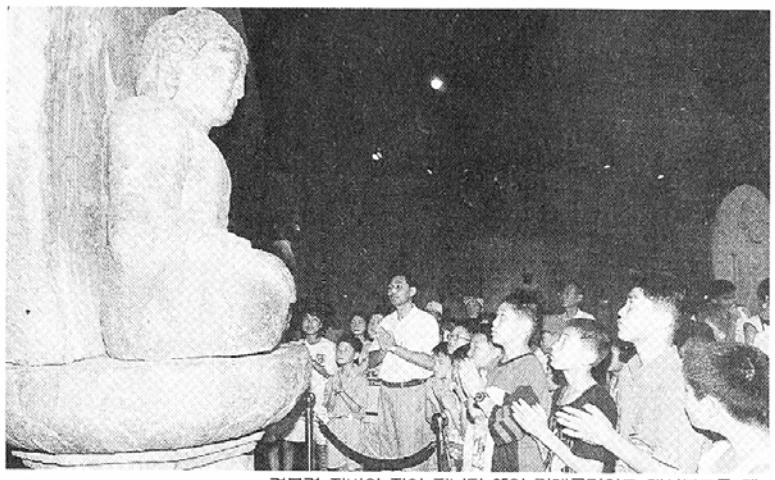
포교원 연수국장 화암스님은 "그동안 방치됐거나 유명무실했던 연수가 포교원 교육원의 별원화에 따라 활발하게 실시되는 것은 종단 발전과 종도들의 재교육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참가자들도 무척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제하고 "처음 실시되는 올해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지만 내년엔 각 단체의 자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연수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연수교육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지도하는 전문 지도자와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 상설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사에서 하는 연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주최측의 얘기다. 그러나 간혹 사찰자체 행사와 겹치거나 장소의 비좁음 등으로 준비와 진행에 차질이 야기돼 체계적인 연수교육을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종단차원의 상설 연수원 개설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화암스님은 "지역이나 본사단위로 연수원이 건립,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 기업·공무원 등의 연수도 실시한다면 포교차원에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숙 기자〉



"부처님 저는요…" 경불련 자비의 집이 지난달 25일 갈래국민학교 대성분교등 태백탄광촌 어린이 45명을 초청, 3박4일의 서울견학 행사를 가졌다. 어린이들은 첫날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을 관람하며 부처님 말씀을 전해듣고 있다.



◇ 조계종 국제포교사 12명은 지난달 화엄사에서 현장실습을 마쳤다.

## "발음이 틀렸어요" 무진스님 불호령
## 영어로 사찰소개 하면서 자부심 느껴

### 국제포교사 화엄사 연수교육 취재기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말을 하세요. 자신감없이 말을 하면 발음과 억양이 정확하지 않아요. 다시한번 해보세요."

지난달 22일 오후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에서 영국출신의 무진스님이 관광객들에게 영어로 사사자석탑을 소개하던 신미경(회사원)씨를 향해 불호령을 친다.

사람들 앞에서 사찰을 소개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어색하다던 신씨가 숨을 고르더니 탑의 상층부부터 설명을 다시 시작한다.

신씨는 조계종 포교원이 선발한 국제포교사 연수생. 이날 연수생과 함께 현장실습을 하고 있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 연수생은 12명. 모두가 지난 5월 포교원에서 실시한 선발시험에 합격한 스님 4명과 재가불자 8명이다.

이들 연수생들은 그동안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무진스님을 은사로 교육을 받고 이번에 화엄사에서 첫번째 현장실습을 했던 것.

불교기초교리를 비롯 외국인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익혔던 것을 직접 현장에서 실습하다보니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두들 어리둥절해 했다.

경내에 있는 불상을 비롯 간단한 불구들이 용어를 영어를 해석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생소했던 전각은 역사와 유래까지 공부하지 않고는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도 관람객들 가운데 외국인들이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것을 보니 국제포교사의 필요성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 국제포교사를 지원했다는 정덕스님(동국대)이 "일상회화만으로 불교를 설명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음을 느꼈다"며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말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찰소개 실습을 마친 연수생들은 현장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지적하는 평가회를 가졌다.

저녁공양을 마친 후에도 연수교육은 계속됐다. 직접 죽비를 든 무진스님의 지도로 참선, 사찰예절 등의 강의가 밤새는줄 모르고 이어졌다.

〈관련 인터뷰 4면〉

비록 1박2일의 짧은 현장실습이었지만 연수생들은 사찰생활을 직접 경험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회향했다.

한국불교를 전세계에 소개할 국제포교사. 이들은 본격적인 해외포교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위해 남은 5개월간의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화엄사를 떠났다.

화엄사=김중근기자

## 조계사 신협 창립총회

### 이사장에 월주스님…사업계획 수립

조계종 사업부(부장 설송)는 지난달 22일 총무원에서 (가칭)조계사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신협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1백15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정관승인, 임원선출, 사업추진계획과 예산서가 승인됐다.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월주스님 △부이사장: 설송스님 △이사: 법타, 시현, 혜창, 원우, 현근스님 △감사: 정념, 종삼, 정빈스님 △상무: 광복스님

## 성남불교 '화합·개혁' 추진 결의

### 지역스님 11명 원로회의 결성

성남불교개혁을 위해 지역 원로스님들이 나섰다.

성남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원로스님 11명은 지난달 25일 성남불교포교원에서 성남불교사암개혁원로회의를 갖고 지역불교 화합과 개혁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날 원로스님들은 개혁원로회의 위원장에 삼오(석남사 주지)스님을 선출하고 10명의 원로스님들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초대 개혁원로회 위원장 삼오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성남사암연합회가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나 결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성남불교 발전을 위해 화합과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불교사암연합회는 26일 보현사에서 모임을 갖고 공석중인 회장대행으로 지묵스님(성영사 주지)을 선출했다.

성남지역에는 2백50여개의 사암이 있으며 이가운데 60개 사찰이 성남시 불교사암연합 개혁추진위를 구성했다.

## '자비의 집' 시민상 수상

### 경실련, 봉사정신 평가

경불련 자비의 집(운영위원장 김동흔)이 지난달 22일 한국기독교 1백주년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경실련 창립 6주년 기념대회에서 '경실련이 기억하는 시민상'을 수상했다.

경실련은 소년소녀가장·결식노인과 아동에 대한 무료급식제공등 불우이웃에 대한 끊임없는 봉사정신을 높이 평가, 자비의집을 시민상 수상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기억하는 시민상'은 그해 시민운동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에게 주어져 왔다.

## 무안에 세계최대 연꽃방죽 조성

### 불교문화행사 유치…관광객등에 '포교의 장' 기대

무안군에 세계 최대규모의 연꽃 방죽이 조성된다.

무안군은 지난달 21일 금년 8월부터 97년까지 총 26억원을 투자해 무안군 일노읍 복룡리 복룡저수지 33만평방미터에 '회산 연꽃방죽'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1차로 올해 복룡저수지 진입도로 확장 및 조경시설공사를 완료하고 96, 97년에는 수중누각, 관광농원 등의 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따라서 연꽃방죽 조성이 완료되면 연꽃 만개시기에 맞춰 대규모 연꽃축제와 대법회 및 각종 불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 지역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한 포교는 물론 다양한 불교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일기원법회·순국선열 위령재 등
## 교계, 광복50주년 행사 다채

광복 50주년을 맞아 교계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불교 원불교 기독교 가톨릭 유교 천도교등 한국 종교인평화회의(KCRP) 주최로 오는 14일 임진각에서 6대 종교 공동 통일기원 기도법회를 갖는다.

실천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스님)도 회원스님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미타사 정수암에서 집행위원회의를 갖고 5·18관련자기소 국민대회를 비롯 8·15 50주년 평화통일기원 종교인대회와 수련대회 등 사업일정을 확정했다.

또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관)는 '조국광복 50주년기념 백두산 통일기원제'를 8월15일 개최키로 했다.

이번 행사는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의 통일기원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선열에 대한 추모위령재를 병행 봉행한다.

또한 하얼빈의 안중근의사 유적지와 윤동주선생 묘, 상해임시정부 청사, 일본 세균부대인 731부대 잔재 그리고 중국의 유적지를 둘러본다.

## 지선스님 방북신청서 제출

전불련 상임의장 지선스님이 남북불교교류를 목적으로 지난달 21일 통일원에 방북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불련은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방북이 난항과 무산의 위기에 빠져있어 부득이 지선스님의 방북신청서를 체출하게 됐다"며 "방북이 성사될 경우 북한불교유적지답사와 학술교류등 폭넓은 상호교류를 모색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노동자 여름캠핑

경불련 외국인 노동자마을과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이 공동주최한 '외국인 노동자 여름캠핑'이 지난달 30·31일 양일간 서해안 대부도에서 열렸다.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캠핑에는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등 외국인 노동자 1백여명과 한국인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가해 축구, 기마전, 줄다리기와 장기자랑 등을 펼쳤다.

## 남북 평화협정체결 촉구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지난달 27일 불교발전연구원에서 한일제종교 국토순례 회향식을 갖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체결하고 남북한 군사대결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6일 진관스님, 준지스님(일본산 묘법사)등 국토순례에 참석했던 일본승려 20여명은 일본대사관앞에서 종군위안부 문제 사과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 준지스님은 일본총리와 대사앞으로 일본정부의 침략역사 인정과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죄 및 보상을 요구하는 촉구문을 전달했다.

## 종립불교학생회 수련회

'95 전국 불교 종립학교 불교학생회 연합수련대회가 지난달 22~24일 2박3일간 강화도 전등사 및 강화청소년 심신수련장에서 성료됐다.

'우리 함께 가자, 저 지혜의 바다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 수련대회는 전국 18개 종립학교 교법사 및 지도교사와 중·고등학생등 총 6백여명이 동참했다.

# 한일 과거청산 범국민운동 전개

## 불교등 5대 종교협력 26일 결성…학계·법조계도 동참

한일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서돈각)는 지난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결성대회를 열고 △강제동원 진상규명 △한일 과거의 실제적 청산 △희생동포 위령 및 평화신장사업 등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과보고, 대회사, 결의문 채택, 김영삼대통령과 일본수상에게 전달하는 호소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5백여명의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위령비 건립 및 평화의 종 조성 △일본의 반성과 책임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월주종단협회장, 서돈각 불교진흥원이사장(공동의장), 김명윤 평통수석부의장, 최근덕 성균관장, 김재중 천도교령, 이강훈 전 광복회장, 윤길중 헌정회장, 유호준목사를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 집행위원장은 시현스님(조계종 문화사회부장)이 맡았다.

한일과거청산과 이를 바탕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키 위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유교 등 5대 종교가 협력하기는 해방후 처음 있는 일로 주목된다. 또 이날 대회에는 권이혁 학술원장, 박용준 헌법재판소장, 김승곤 광복회장, 최창규 독립기념관장, 김호일 임춘원의원 등 학계 법조계 정계를 비롯한 사회각계 지도층인사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선학원 대책위 재구성

### 조계종, 종회스님등 11인

지난 117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서 해체됐던 조계종 선학원대책위원회가 집행부 차원에서 새로 구성, 지난달 25일 총무원 청사 4층에서 첫모임을 가졌다.

이날 대책위는 총무부장 재무부장 호법부장(집행부), 종하 지하 청화 법등 지홍 현진 영배 석호(종회)스님등 11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석주 혜암 진제 성수 월주 녹원 고산스님을 지도고문으로 추대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유교등 5대 종교 대표등 5백여 대중은 지난달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일 과거청산과 평화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 인재사고 희생자 천도
## 현해탄 선상대재 봉행

인재에 의한 최근의 각종 대형사고의 불행을 추모·방지하고자 하는 '현해탄 수·륙·공 선상대재'가 지난달 22일 부산 국제여객부두 카멜리아호 선상에서 6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됐다.

봉행위원장 정각(자비원 원장)스님을 비롯하여 덕암스님(태고종 전 종정), 비룡스님(월정사 조실) 등은 카멜리아호 선상에서 오탁악세로 말미암아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린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더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했다. 한편 주최측은 행사가 끝난 후 일본 후꾸오까, 벳부 등지로 이동하여 성지순례와 불교국제화에 대한 간담회를 24일까지 연이어 개최했다.

## "21세기 새날을 준비한다"

### 대불련, 지리산서 '1600년 대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화(회장 곽상인)는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제14차 한국불교1600년대회'를 경상남도 진주와 지리산 일대에서 개최한다.

전국 24개지부 7백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여름대회는 '33 더하기 21, 그리고 대불련. 조국의 아침을 여는 지리산, 21세기 새날을 준비하는 대불련'이라는 주제로 마련된다.

대학생다운 활기와 힘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청년불자들의 대약진의 장으로 꾸며지는 이번 여름대회는 경상대 야외무대에서의 개막제를 시작으로 펼쳐진다. 이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다' '하자'라는 소주제 아래 주제극 '대불련 내각'과 해방 50돌을 맞은 대한민국 50년 역사를 되짚어 보는 '영상으로 보는 강의' '대동제' 등을 통해 대불련의 미래를 제시한다.

또한 가수 정태춘씨를 초청, '나의 삶, 나의 노래'를 통해 지난날을 돌아보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지리산 등반을 통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한다.

## 조계종 불교의식 한글화 간담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은 지난달 26일 녹수청산에서 불교의식의 한글화 작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일법요집 편찬준비 세미나 일환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을 비롯 20명의 의식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박경훈주필(법보신문)은 "한글화는 궁극적으로 차세대를 위해서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경준교수(동국대)는 "반야심경을 한글로 풀어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야심경과 다라니는 대중화와 상징성을 감안해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청년 칠석문화제 열려

칠석문화제 추진기획단 주최 '불교청년칠석문화제'가 지난달 23일 탑골공원과 조계사에서 열렸다.

7월11일 지선스님의 통일강연에 이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칠석떡 나누기, 사랑의 편지쓰기, 통일나무 가꾸기 등 놀이마당을 펼쳤다.

## 부산 기장군 사암연 창립

### 초대회장에 정암스님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암연합회 창립법회가 지난달 31일 기장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행됐다.

각 사찰주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정암스님(해동 용궁사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2일 기장군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됨에따라 각 사찰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불법홍포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 인터뷰 4면〉

이날 사암연합회는 부회장에 성진스님(약수정사) 현응스님(보덕사)을 감사에 성문스님(묘관음사) 범천스님(대도사)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구독신청: 737-0693



## 운주사 부처님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전남 화순의 운주사 천불천탑골.

글깨기 가득 탑과 부처님이 모셔진 그곳은 영원한 해탈의 세상을 염원하는 억눌린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한 곳이다.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천불천탑골이지만 갈때마다 새로운 비애를 느낀다. 한량 없는 자비의 나라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상상의 소산에 불과한 것인가.

아닐 것이다. 이 천불천탑골에서 나는 미륵의 세상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곳만큼 인간의 바른 마음을 저나라하게 표현한 곳도 없을 것이다. 운주사의 천불은 모습이 다양하다. 웃고, 울고, 아기갖고, 어른스럽고,앉아 있고, 누워있고 서있고…, 모두가 우리 사는 세상 그대로이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부처님의 얼굴로 표현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은 꿈 속의 용화세계인 것이다. 그것도 매우 촌스러웁고 퉁박스런 모습의 부처님과 이그러진 삶의 인간이 아무런 가식없이 살아가는 세계로 표현되고 있다. 그 천진난만의 세계 앞에서 나는 매번 새로운 삶의 감흥을 느끼는 것이다.

운주사 천불천탑골은 그저 삶의 감상만을 주는 곳은 아니다. 그곳은 또다른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 다름아닌 무상(無常)의 이치이다. 어느것이든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남아 있지 않는다. 이그러진 부처님, 으깨진 탑을 보며 무상의 굴레를 절실히 느낀다. 날려 보내야 한다. 무상한 이 세상의 모든 집착을 저 멀리 날려 보내고 퉁박스런 진실 하나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운주사의 천불천탑은 이 도리를 소리없는 외침으로 전해준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멋없고 이그러진 부처님들이 쏟아내는 사자후를. 눈을 뜬 사람은 볼 것이다. 미륵의 세상이 바로 우리사는 이 세상임을. 그래서 무엇이 바른 삶의 모습인가를 알아 실천할 것이다.

### 우리 사는 곳이 용화세계임을…

노 동 식 〈동양화가〉

# 한 생각 돌리고 나니 ㊦

주부신행담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다보면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나거나 예기치 않은 좋은 기회를 만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재앙은 피하고 싶고 좋은 기회는 많았으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좋은 기회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라는 것이 아닐까.

내가 불법과 인연을 맺은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그야말로 뜻하지 않은 것이었다.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의 내용을 구태여 빌리지 않더라도 나는 내 삶의 의욕과 가치를 상실하고 의무감과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한 채 수많은 나날을 허비해야 했다.

남편과 자식과의 갈등, 이런 것은 누구나 겪고 있는 사소한 문제이고 주부로서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면 할말이 없음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내 감성이 지나치게 예민해 작은 부분을 크게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치부하기에는 내 자신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앞뜰이 너무도 많았다.

남편의 지나친 독선과 내 자신에 대한 비관으로 인해 생기는 충동만큼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멀리했다. 또 내 욕심껏 따라 주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도 자식과 부모간에 있어서는 안될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하는 요인이었다.

급기야 이런 생활속의 충동과 권태로운은 내 자신을 향한 자성의 활시위를 수없이 당기게 만들었으나 그럴만큼 더더욱 비참한 내 자신의 모습만이 확인될 뿐 아무런 소득없는 나날들만 이어졌다.

탈출하고 싶었다.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아옹다옹 살아야 하는 것인지 회의감이 앓기 시작했다. 체념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내 삶이 너무도 아깝고 소중한 것이었기에 차마 무감각한 생각으로 내 삶의 물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갈등과 혼돈이 여지없이 반복되던 어느날 오후, 무기력한 내 생활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까운 친지가 나를 방문했다. 남편 얘기며 자식 얘기며 온통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며 자신의 주변 자랑만을 늘어놓는 친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는 이런저런 얘기 끝에 불쑥 내게 한 권의 책을 내놓았다. 얼핏 눈에 들어 오는 책 제목이 눈에 띄었다. '無'라는 제목으로 대행스님의 말씀을 담았다는 책이었다. 도대체 왜 내게 이 책을 내놓은 걸까? 무슨 책인지 궁금하기보다는 그 책을 내놓은 친지의 의도가 더욱 궁금했기에 책에 대한 호기심이 한층 나를 자극했다.

**왜 이제야 이런 도리를 만나게 되었을까**
**그렇게 무기력했던 내게 힘이 솟아 오르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책 한권 때문이었다**



친지는 대문을 나서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도 읽어봤는데 정말 읽기를 잘했다는 느낌이 들어 가져왔어요. 생활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인사도 감박 잊은채 책을 먼저 떠올리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와서 책을 집어들었다.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잡힐것만 같은 느낌이 든건 내 생활의 위기감과 그것을 해결해 줄만한 그무엇인가를 기대해 온 심리적 상태감으로 인한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밤을 밝히며 읽어 내려가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대했던 그 무엇인가가 잡힐 것만 같은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처럼 가슴설레고 그 무엇을 기다린 적이 내게 있었던가!

눈물이 솟았다. 그건 슬퍼서도 기뻐서도 아니었다. 아니 둘 다였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무엇을 잘못 행동해왔는지…, 자난날의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사람이 한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항상 다른 사람을 원망해 오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다는 건 지금 쓰고 있는 글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내 스스로의 대견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던 건 어떻게 책 한권으로 인해 내 자신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더욱 짙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러나 짧은 내 식견으로는 스님의 글 내용만이 가슴에 와 닿을 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도리어 왜 이제서야 이런 도리를 만나게 되었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일었다면 지나친 욕심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무기력했던 내게 힘이 솟아 오르기 시작한 건 어쨌든 바로 그 책 한 권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선원엘 나가게 되었다. 도대체 어떤 힘이 그 스님에게 있는 것일까?

오계민 〈서울 중계동〉

♦ 'My mind is obedient, delivered from all worldliness,' -so said Bhagavat,- 'it has for a long time been highly cultivated and well-subdued, there is no longer anything wicked in me: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내 마음은 고분고분하고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해방되어 있다. 스승이 말씀하셨다. 내 마음은 오랫동안 깊이 수양했고 잘 다스려져 내 안에는 삿된 것이 없다. 그러니 좋다면 비를 내리라, 오 하늘이여!'

♦ 'I support myself by my own earnings,'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and my children are all about me, healthy, I hear nothing wicked of them: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나는 내가 벌어서 살아가고, 목동 다니야가 말했다, 나의 아이들은 내 주위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그들에 관한 어떤 나쁜 이야기도 듣지 못하니, 좋으시다면 비를 내리소서, 오 하늘이여!

♦ 'I am no one's servant' –so said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⑤

Bhagavat, 'with what I have gained I wander about in all the world, there is no need for me to serve: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스승(부처님)이 말했다. 나는 그 누구의 고용인도 아니다. 스스로 얻은 것에 의해 온 세상을 거니노라. 남에게 고용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 하늘이여 좋다면 비를 내리소서.

♦ 'I have cows, I have calves,'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I have cows in calf and heifers, and I have also a bull as lord over the cows: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갓 태어난 송아지도 있고 젖을 뗄 수 있는 암소도 있다. 목동 다니야가 말했다. 새끼 밴 어미소도 있고 발정기의 암소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들의 짝인 황소도 있으니 하늘이여 좋다면 비를 내리소서.

*subdue 부드럽게(온화하게) 하다
*wicked 부도덕한 부정한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폭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프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 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막아 줄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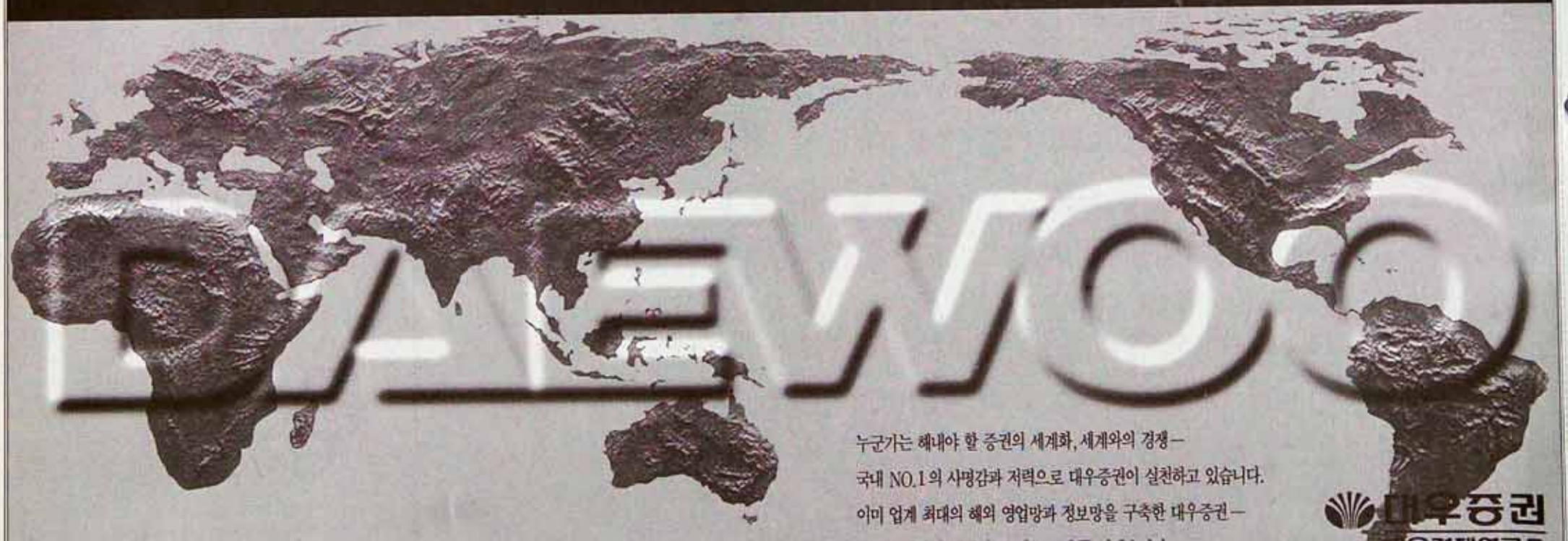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 267-18
• 전화: (02)308-1818-9, 303-7376, 372-7941

세계와의 승부— 1위 회사의 사명입니다



누군가는 해내야 할 증권의 세계화, 세계와의 경쟁—
국내 NO.1의 사명감과 저력으로 대우증권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계 최대의 해외 영업망과 정보망을 구축한 대우증권—
고객과 더불어 세계의 큰 산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대우증권
대우경제연구소
대우투자자문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 현대불교

법공양판 18~19면
방송연예 20면

내일의 아라한들 ⑤

젊은 학승 탐방 통도사 전문강원

# '21세기 자장율사' 기르는 청정강단

## 소수정예 양성·철저한 문답식 강의 전통

### 종정 월하스님 학인들과 바루공양…포살·특강도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는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참배객과 관광객들로 늘 붐빈다. 부산과 경남북지역 붙자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들로 다소 번잡하다는 느낌마저 받는다.

그러나 경내의 그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학인스님들의 독경소리가 영축산의 정기와 어우러져 1천 3백년이 넘는 통도사의 장엄함을 만들어내고 있다.

안개비가 속진을 씻어 낸 것같은 월요일 이른 아침에 만난 통도사 불교전문강원 강주 현근(玄根)스님은 통도사 강원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한다.

"최근 다른 지방강원들에서는 영어회화, 컴퓨터 등 내전과는 별도로 외전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좇아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포함한 통도사의 강원 전통은 무엇보다도 내전에 한층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긴장감 도는 강의 시간

강주스님은 학인스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전도 사실상 제대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태부족이라고 지적한다. 강원 초심자의 경우 하루에 두 세줄, 글자수로 따지면 고작 60자 정도 공부하는게 전부라고 설명한다.

아닌게 아니라 통도사 강원은 경(經), 율(律), 논(論) 삼장(三藏)과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 연구를 위해 대교, 사교, 사집, 치문 등 학제별로 나누어져 각 과별 15명 안팎 총 50여명의 학인스님들이 경전공부에 촌각을 다투고 있다.

새벽 3시에 기상하여 전국의 사찰 중 가장 많다는 당우들을 나누어 도량석과 예불을 마치고 나면 4시15분, 이때부터 간경과 독경에 들어가 5시50분 아침공양 직전까지 공부에 매진한다. 공양을 마치고는 합동운력에 들어가 아침 7시 상강례까지 크고 작은 도량의 일들을 돌본다.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교양과목 시간이며 11시20분 점심공양 후 5시20분까지 학제별로 공부한다. 이후 저녁예불, 특별활동, 9시10분 취침 준비에 이르기까지 18시간의 빈틈없는 하루일과가 빡빡하게 돌아간다.

특히 철저하게 문답과 논강법으로 진행되는 강의 시간에는 그야말로 긴장의 밀도가 드높아 눈푸른 납자들의 깨침을 향한 열기뿐이다. 각종 운력 등 육체적 노동으로 때로 강의 시간에 졸음을 참지 못해 강사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내전공부의 치밀함은 통도사 강원이 예로부터 간직하고 있는 소수정예와 내실있는 경전공부의 전통을 이어받은 데서 비롯된 것.

통도사 불교전문강원은 조계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 월하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곳이어서 아무래도 다른 강원에 비해 알찬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소찬법문'으로 이름된 종정스님의 '중노릇 하는 법'이란 특강이 년 2회 실시되고 있다. 월하스님은 강원의 학인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이름나 있다. 대중과 같이 바루 공양할 뿐 아니라 보름마다의 포살도 학인 대중과 같이 해 왔다.

그렇기에 통도사 학인들은 '율'을 그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길 수 밖에 없다. 특히 종정스님은 강원에서의 공부의 중요성과 함께 애사심(愛寺心)을 강조한다.

학인들의 공부나 모든 수행 생활은 통도사 창건자인 자장율사의 이념을 근거로 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강원보다도 엄격한 규율과 보름마다의 포살이 통도사 강원의 전통이 되어 내려오고 있다.

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통도사 강원도 최근에는 천주교 신부를 초빙해 개론형식의 특강을 실시해 타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학인스님들의 다양한 학문 의욕을 수용하기 위해 얼마전 학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를 벌인 결과 스님들은 '동양철학', '수지침', '비교종교학', '정신과학', '국제경제', '기독교 일반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전폭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일본어 강좌를 신설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전연구 분야에 있어 1백년 이상 앞서가는 일본 불교계의 실적을 탐구하고 따라 잡아야겠다는 생각때문이다.

통도사 강원은 세간의 학문처럼 특정한 기능이나 재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정신적 비전을 제시할수 있는 전인적 수행자를 양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도사=박병근 기자



◇ 불보종찰 통도사의 전문강원은 엄격한 규율과 매월 보름 행해지는 포살이 유명하다. 특히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의 커다란 관심은 프리미엄 중의 하나다. 사진은 강원의 전경.

### 인터뷰 입승 도견스님

## "내전 공부에 더욱 충실"

### 외부접촉·동아리 결성도 자제



"과거에는 특강형식으로 외래 강사를 초빙해 각종의 외전공부도 해봤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속인들의 강의방식과 또 학인스님들의 받아들이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통도사 강원은 내전공부에도 시간이 모자라 그것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통도사 강원의 입승(학생회장) 도견스님은 외전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내전공부에 한층 더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통도사 강원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 강원은 세간의 흔하디 흔한 스터디 그룹같은 동아리 모임같은 것도 없다. 이에 대해 도견스님은 "강원의 공부는 속가의 공부방식이나 목적과는 달리 의도된 목적을 띠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생각 고쳐먹어 마음닦는 일에 열중할 뿐"이라고 말한다.

최초의 사보였던 〈축산보림(1920년)〉에서 시작돼 지난 7월호로 통권 1백64호 연륜을 가진 강원 회지 '등불'이 얼마전 종무소로 권집준비 되고 있다는 것이 이채롭다.

도견스님은 선출방식이 아주 민주적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입승이든 찰중이든 마음공부의 여정에는 모두 똑같은 도반이라며 "학기 중에는 각종의 육체노동과 수업준비 그리고 강의 등으로 그야말로 안비막개(眼鼻莫開)의 나날들"이라고 덧붙였다.

### 강맥과 역대강주



◇ 원허스님



◇ 월운스님



◇ 종법스님



◇ 원간스님

#### 월하스님 대교과 출신 일제, 6·25 때도 수업

통도사 불교전문강원은 1911년, 지금의 보광전에 강원을 설치 운영하면서 근대적인 강원학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30년부터는 오해련스님이 강주를 맡아 1950년 6·25사변 직전까지 승려인재를 양성하였으며 전쟁중에도 당대의 스님들을 초청해 꾸준히 강맥을 이어왔는데 종정 월하스님도 44년 이곳 대교과를 졸업했다.

즉 통도사 강원은 일제시대를 거치는 기간동안에도 그 강맥이 끊이지 않고 계속돼 온 것이다.

1954년 불교정화운동으로 전국의 사찰이 몹시 혼란스러웠으나 통도사 강원은 56년 초에 운허스님을 강주로 인재양성을 계을리 하지 않았다.

이후 성능, 월운, 종법, 호경, 각성, 종범, 지안, 용문, 원산스님등 걸출한 강백들이 강원을 이끌어 와 지금까지 총 39회에 걸쳐 인재를 배출해 왔다.



# 법공양 페이지

##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낙태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가운데 불교정신에서 낙태를 바라보는 본격적인 연구서가 나온다. 자우스님(금강사주지) 편저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는 불교의 입장에서 낙태행위를 반대하는 이유와 경험자의 참회 낙태영기의 천도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도서출판 '밀알'이 펴낸 이 책의 편찬동기와 과정을 들어본다.

* …·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 …·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펴내고 있습니다. 법공양면은 본
* …· 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16면)
* …· 과는 별도로,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
* …· 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지

# 낙태는 '살인' … 천도·참회 생활화하자

### '어둠의 빛으로…' 펴낸 자우스님

"사람은 태(胎) 안에서 49일만에 형체를 갖춥니다. 사람은 오직 살고 싶어할지언정 죽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어하는 생명은 산것이기 때문입니다. 산것은 본래부터 산것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이미 오래된 낙태는 엄격히 말해 '살인'에 해당되는 중대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시점에서 자우스님이 펴내는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는 불교의 반낙태 정신과 실천과제를 함께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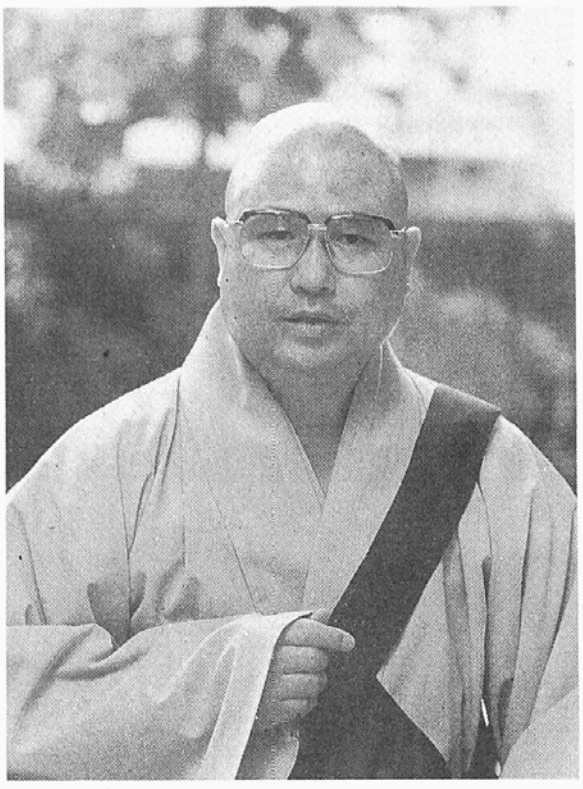
"불교는 불살생(不殺生)의 실천행을 제일의 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라는 살인행위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곧 불자가 계율을 지키겠다는 서원이며 그 실천행인 것입니다."

자우스님은 계행의 실천으로서 반낙태의 행위는 지극히 마땅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이같은 계행의 실천을 뒷받침할 경전적 근거를 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불교야말로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앞서야 할 종교이며 그중에서도 살인행위에 해당되는 낙태를 반대하는 교설까지 분명히 갖추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즉 자우스님이 펴내는 〈어둠의 빛으로…〉는 낙태에 대한 불교인의 반대이유가 무엇인지를 불살생의 생명존중 정신에 입각해 밝히고 그에대한 경전적 근거를 제시 한점, 그리고 이미 행해진 낙태행위에 대한 참회와 영가천도의 방법을 내놓은 것은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 두 영역을 학문적인 입장으로 접근해 본 논문들은 불교계의 반낙태 운동에 대한 좋은 전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월22일부터 49일간 금강사에서 '태아영가를 위한 천도법회'를 봉행하게 될 자우스님은 이 책의 중요성과 발간동기 등을 서문에서 자세히 피력하고 있다.

### 태아는 49일만에 사람의 형체 갖춰
### 22일부터 7주간 금강사 영가천도재



◇〈어둠의 빛으로…〉의 편저자 자우스님.

## 업·윤회 사상 따라 '생명 존중' 앞장서야
## 태아관련 경전 많아…널리 독송 실천절실

### '책을 펴내며' 요지

불교의 중심은 인생의 지혜를 얻어 해탈하는데에도 있지만 일체 중생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자비정신의 실현에도 있다.

90년대 초에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해에 태어나는 유아의 숫자는 60만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비해 인공유산으로 인해 소실되는 태아는 1백5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의 인구가 2억4천만명 가량인데 연간 낙태 건수는 우리와 비슷하다. 일본은 1억2천33백만명 인구에 50만건, 인구 5천6백만명의 프랑스는 약17만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비해 4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의 낙태 건수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들어 낙태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 살고싶어하는 근본생명

인공 임신중절실태에 대한 연구중에 아직 불교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극히 미비한 상태이다. 1994년 중앙승가대학 교수 논문집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임신중절이 살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살생을 저지른 비율이 응답자의 85%로 나타나 놀라움을 주었다. 이들 모두는 스스로의 마음에 갈등을 느끼며 괴로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유념해야 할 점이다.

특히 낙태의 원인이 성도덕 문란에 있다는 조사결과는 생명의 존엄성이 종교의 포교로도 강조되지 못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산부인과 의사 버드나 나탄슨이 제작한 '침묵의 절규'라는 비디오 필름을 보면 임신3주면 태아는 심장을 비롯해 모든 장기를 갖춘다. 임신 12주가 되면 키가 5cm 몸무게 28g 팔길이 5mm정도로 성장한다. 태아는 손가락을 빨거나 발가락 놀음을 한다. 그때 자궁안으로 흡입시술기가 들어가면 태아가 위기의식을 느낀 듯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기구의 움직임이 격렬해질 수록 태아는 몸부림치며 태아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필사적으로 피해다니다가 탯줄이 잘려지는 순간 입을 '악'벌린 채 죽어가는 모습으로 흡입기구에 빨려 들어 간다. 이미 12주면 심장을 갖추고 명색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태아에게도 분명히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낙태원인은 도덕성 결여

각 종교단체에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지난 1975년에 설립된 가톨릭단체인 '행복한 가정운동본부'는 인천, 수원, 대전 등 지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낙태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가톨릭병원을 통해 상담을 실시해 왔으며, 1983년에 설립된 '새 생명 사랑회'는 150여명의 회원이 서울과 전주에서 설립한 마리아 수녀회에서도 비디오를 무료로 보급하며 낙태 반대운동 및 생명체 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에서도 일찍부터 병원에서 태아의 시체를 작은 용기에 담아 태아의 시신만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용역회사에 넘기고 있는데 태아의 시신을 다루는 회사에서는 정중하게 화장한 후 그 유해를 지정 사원에 봉안하여 "옴 지장 수자 영가"라는 명칭으로 천도 불공을 정성드려 봉행하고 있음을 필자는 많이 보았다.

#### "더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 불살생계와 자비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자기의 얄팍한 체면치레에 의하여 생명체의 존엄성과 그 숭고한 삶에 대한 정신을 찬양하여야 하는 도덕성의 결여 때문이다.

전국의 몇몇 사찰에서 단위별로 천도 불공을 올리면서 불자들에게 죄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부모와 울부짖으며 떠돌아다니는 태아의 슬픈 영혼을 천도하고 있지만 좀더 자비사상에 입각하여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워주고 업과 윤회설로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마음을 써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불교는 타 종교와 달리 태아에 대한 경전을 갖고 있다. 〈증일아함경〉에는 수태의 과정과 태아의 성장과정이 매우 상세히 기록돼 있다. 또 〈불설포태경〉도 태아의 발달과정과 윤회에 의한 과보의 적용과정 등이 설해져 있으며 〈근본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낙태 현실의 심각성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종교차원에서 천도공양하며 참회하고 죄업을 소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근본원인인 건전한 생활 영위에도 불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태 속에서 생명을 잃은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 참회 법요집 '오십삼존불경'

낙태자의 참회를 위한 법요집도 이 책에서 정리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사중금죄(四中禁罪), 오역죄(五逆罪), 십악죄(十惡罪)를 참회하고자 하거나 근거없이 불법을 비방한 죄를 제거,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오십삼불을 공경하며, 예배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십삼존불 명호〉

1. 보광불 2. 보명불 3. 보정불 4. 다마라발전단향불 5. 전단광불 6. 마니당불 7. 환희장마니보적불 8. 일체세간요견상대정진불 9. 마니당등광불 10. 혜거조불 11. 해덕광명불 12. 금강뢰강보산금강불 13. 대강정진용맹불 14. 대비광불 15. 자력왕불 16. 자장불 17. 전단굴장엄승불 18. 현선수불 19. 선의불 20. 광장엄왕불 21. 금화광불 22. 보개조공자재왕불 23. 허공보화광불 24. 유리장엄왕불 25. 보현색신광불 26. 부동지광불 27. 항복제마왕불 28. 재광명불 29. 지혜승불 30. 미륵선광불 31. 세정광불 32. 선적월음묘존지왕불 33. 용종상지존왕불 34. 일월광불 35. 일월주광불 36. 혜번승왕불 37. 사자후자재력왕불 38. 묘음승불 39. 상광당불 40. 관세등불 41. 혜위등왕불 42. 법승왕불 43. 수미광불 44.수만나화광불 45. 우담바라화수승왕불 46. 대혜력왕불 47. 아촉비환희광불 48. 무량음성왕불 49. 재광불 50. 금해광불 51. 산해혜자재통왕불 52. 대통광불 53. 일체법상만왕불

### 임신손실의 영향

임신은 되었지만 정상적인 출산에 이르지 못한 임신손실의 원인과 처치 및 그 영향에 대하여 의학적 측면에서 정리한다.

임신은 되었지만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정상적 출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임실손실이라고 하고 임신소모증 태아가 생존가능한 발육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를 유산이라 하며, 생존가능한 시기 이후에 종결되는 경우는 분만이라고 한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비교적 안전한 임신중절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유산방법으로는 적절히 개대된 경관을 통한 임신 산물의 외과적인 제거법인 경질제거술과 복부를 통한 자궁절개 후 제거법, 또는 임신산물이 들어 있는 채로 자궁전체를 제거하는 자궁절제술이 있다. 또 임신중반기(임신 20주)이후에 외과적 방법이 아닌 약물을 이용하여 분만과 같이 자궁수축을 유발시켜 경관개대를 거쳐 임신산물을 배출시키는 약물이용법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효과와 안전면에서 탁월한 낙태제는 극히 희소한 실정이다.

## 심장마비·경련등 합병증
## 자아상실등 후유증 우려

유산중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유산을 자연유산이라고 하는데, 80% 이상이 임신 12주 이전에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한다. 태아사망은 산모의 임신 횟수가 많을수록, 산모나 아버지의 나이가 많을 수록 자연유산의 위험은 커진다. 또 인위적으로 유발시킨 경우를 인공유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위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적 질환등이 있는 경우의 치료적유산과 모성건강 또는 태아질병 등의 사유가 아닌 기타 이유로 유산하는 선택적유산이 있다.

유산 후에는 합병증과 심신 후유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 합병증으로는 사망, 심장마비, 경련, 방광손상, 폐전색증, 출혈등이 있다. 또 정신적이 나영향으로는 자아상실, 죄의식으로 진전될 수 있고, 불안감, 비애감등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기도 한다.

**김용탁** 〈동국대 의대 산부인과장〉


효림의 책에는 깨달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쉬운 불교책



읽기 쉽습니다. 배우고 행하기 쉽습니다.
일타 큰스님의 가르침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불교 초심자들이 배워야 할 수행생활의 기본정신 『초발심자경문』. 일타 큰스님의 해설로 세 권이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얻게 된다.
Ⅰ. 큰스님 주변 이야기
Ⅱ.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Ⅲ.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 윤회담
Ⅳ.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Ⅴ.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신국판 / 242면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 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깨어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간
후회없는 구도자의 삶으로 이끄는 열가지 보배경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 큰스님께서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불교신행의 나침반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복된 삶과 성불의 비결이 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환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공양문** 신간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72년 초판 발행 이후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읽혀온 책.
불서가 귀하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렵사리 구해다 놓고
두고두고 읽었던 책.
이제 그 책을 효림에서 새롭게 증보
발간하여 불자님들 앞에 선보입니다.
시원시원한 편집, 읽기 쉬운 가로찌기,
한글 번역문과 함께 실린 원문으로
초심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발심·수행·구경(究竟)의 길을
『법공양문』과 함께 여행하며
참다운 법공양의 기쁨을 느껴 보십시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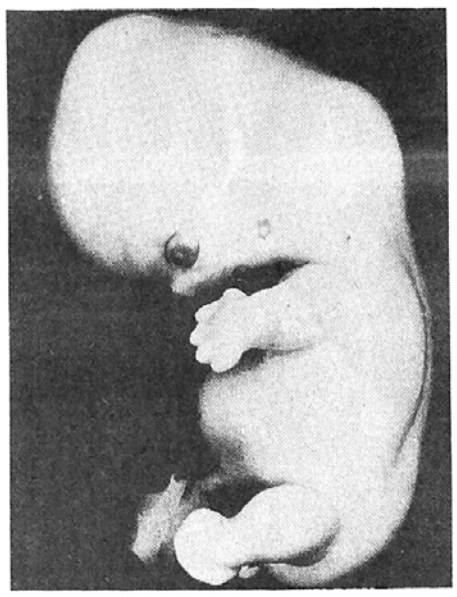
법보시를 원하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02)587~6612·6613 팩스:(02)586~9078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면은 악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

# 법공양 페이지

##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불교는 어떤 근거에서 낙태행위를 반대하는가. 낙태에 대한 불교학적 연구는 그간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교만큼 낙태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제시한 종교가 없다는게 관련학자들의 의견이다. 〈어둠의 빛으로…〉에 수록된 학자들의 낙태와 관련한 연구논문들은 2년 이상씩의 몰두끝에 작성된 것이다.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인간은 태속에서 49일만에 이미 인간의 기능과 의식을 갖추게 된다.

## '불설입태장회'에 나타난 태아의 비밀

### 여섯·일곱번째 칠일 되면 팔 다리 손 발 생겨나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수많은 비구들과 함께 겁비라성(劫比羅城)의 다근수원(多根樹園)에 계셨다.

때에 부처님의 동생이 있었으니 이름은 난타(難陀)라 하였다. 황금빛깔의 몸에 삼십호상(三十好相)을 갖췄으나, 키는 부처님보다 작았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앉아 있는 대중을 둘러보며 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중요한 법문(法門)이 있으니,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훌륭하고, 글과 뜻이 교묘(巧妙)할 뿐 아니라, 또 순수하고 원만하다. 이는 범행(梵行)을 깨끗이 닦는 법으로서 이른 바 입모태경(入母胎經)이니, 너는 자세히 듣고 올바른 뜻으로 잘 생각해 보라! 이제 너를 위해 설하리라….' 부처님께서 난타를 위하여 그 경을 설하다.

'비록 어머니에게 태기(胎氣)가 있을 지라도 중간돌이(中陰神 또는 中有)가 모태(母胎)에 들기도 하고, 모태에 들지 않기도 하느니라. 중간돌이는 어떤 경우에 생(生)을 받아 어머니의 태 안에 드는 것인가, 부모가 함께 성욕이 일어나서 같이 성행위를 해야하고, 어머니의 뱃속이 깨끗하여 월경의 시기가 들어 맞아야 하며, 중간돌이가 그들 앞에 와있어야 한다. 마땅히 알라, 이런 경우에만 중간돌이가 모태에 드는 것이다….

난타야, 마땅히 알라. 보통 태 안에 들어 있는 기간을 대충 헤아리면 삼십팔·칠일(三十八·七日)이다.

처음 칠일에는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 있는 태가 쌓인 듯, 엉긴 듯 똥무더기에 누워있는 것이 마치 뜨거운 아궁이 속에 들어 있는 것처럼 몸뚱이와 식(識)이 한 곳에서 뜨거운 열기로 지지고 볶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는데, 이를 갈라람이라 한다….

여섯번째 칠일에는 두 팔꿈치 두 무릎이 생기고 일곱번째 칠일에는 두 손 두 발이 나타난다….

난타야, 서른일곱번째 칠일에 이르러 그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 가지 뒤바뀐 생각을 일으킨다. 그 세 가지는 더럽다는 생각, 냄새가 난다는 생각, 어둡다는 생각이니 일분(一分)에 의해 설한 것이니라.

난타야, 서른여덟번째 칠일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남화(藍花)라는 바람이 불어와서 태아의 몸을 굴리어 아래로 향하게 하고, 태아의 두 팔도 앞으로 길게 펴게 하여 산문(產門)을 향해서 가게 한다. 또 취하(趣下)라는 바람이 불어와서 태아의 몸에 부딪히면 태아의 머리는 아래를 향하고, 두 다리는 위로 뻗치면서 산문을 나오려는 것이다….

**현 명 곤** 〈동국대 한국불교 편찬실장〉

## 태아의 사망과 천도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오래 살지 못한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사망한 사람이다. 이들은 바깥 세상 구경도 하지 못한 채 강렬한 생의 희망을 포기하고 한을 품은 채 사라진 영혼들이다. 그러나 부모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을 바로 관찰하지 못하고 태아의 사망을 슬퍼하지도 않고 태아의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천도의식도 지내주지 않는다. 이기심 때문이기도 하며 내면의 진리와 생명관을 갖지 못한 무지의 결과이다.

불교의 생명관에 의하면 태아는 어머니 태안에 물방울의 형태로 태어날 때부터 인격체로 간주된다. 태아가 낙태를 당하면 부모를 원망하며 떠돌아다니는 원혼이 된다. 그러므로 낙태의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이들 영혼을 위한 천도의식을 지내주어야 하나 보이지 않는 태아의 영혼을 경시하여 천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윤회사상과 인과사상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이 세상의 많은 부부 가운데 태아가 어떤 부부를 부모로 삼아 태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는 이러한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하여 윤회사상을 가르쳐 주었다.

소승불교에서는 중생들의 윤회과정을 중유(中有), 생유(生有), 본유(本有), 사유(死有)의 네 가지로 나눈 사유(四有)학설로 설명한다. 중유(中有)는 전생에 어떤 중생이 죽은 뒤로부터 다음의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명체를 뜻한다. 생유(生有)는 전생의 영혼이 금생의 부모를 만나 태안에 출생한 것을 뜻한다. 본유(本有)는 영혼이 모태에 탁생한 뒤부터 수명을 다하여 죽는 순간까지의 생존기간을 뜻한다. 사유(死有)는 인간이 살다가 사망하는 찰나를 말한다.

이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영혼인 중유(中有)는 공중에서 부모의 인연을 만나서 출생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태아의 전생 업력(業力)이 출생에 영향을 미쳐서 업력이 비슷한 부모를 선택하게 된다.

전생의 영혼인 중유는 전생에 지은 업력에 의하여 출생처를 정하여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과보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전생의 업력은 인(因)이 되고 부모는 연(緣)이 되어 생유라는 결생(結生)을 한다.

태아의 성장 과정은 팔위설(八位說)과 오위설(五位說)로 설명된다. 이는 태아가 모태에서 자라는 동안에 오장육부와 눈, 코, 귀, 입 등 인간의 형체를 갖추어 태어나기까지의 기간을 다섯 또는 여덟로 나눈 것이다. 여기에는 태아를 인격체로 간주하는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태아를 처음부터 인격체로 간주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부에게 음식과 물도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태아를 사망케 하는 것은 살생죄를 범하는 것이다.

신라의 고승인 둔윤법사가 유가기론(瑜伽起論)에 남긴 기록을 보면 액체의 태아나 여러 형태의 태아를 타태(墮胎)케 하면 중대한 살생죄를 범한다고 되어 있다. 타태는 낙태의 뜻과 같은 것으로서, 태아가 의지하고 있는 태를 떨어지게 함을 의미한다. 누구라도 이 죄를 지으면 바라이라는 죄를 범하게 되며, 바라이 죄를 지으면 아비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아무리 미세한 태아라 할지라도 생에 대한 애착이 있고 감정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 따라서 낙태된 태아는 부모를 원망하는 원혼이 되는 확률이 많다. 그 태아의 영혼은 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보다 더욱 원한이 크고 생에 대한 애착도 많다.

만약 태아를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낙태하게 되면 그 태아의 영혼은 우주공간의 원혼이 되어 내세의 몸을 받기가 어렵게도 된다. 이승의 짧은 생에 대하여 애착을 갖기 때문에 저승으로 가서 태어날 인연을 쉽게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혼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주고 왕생극락을 빌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다.

불교는 사람이 죽은 후에 천도를 기다리는 영혼이 많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천도 행사를 한다. 천도의식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은 극락 세계와 좋은 세계에 가서 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아의 영혼도 천도의식을 지내주면 이승의 육체의 짧은 수명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며, 부모와 의사와 그밖의 낙태 동조자들에 대한 원한이 없어지게 된다. 그것은 천도의식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경전의 말씀을 염불하는 소리를 듣고 애착과 원망이 부질없음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중음신이 영적존재로서의 천안(天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천도의식은 외로운 혼을 천도하며 생과 사의 이치를 깨닫게 해준다. 생명을 잃은 태아의 영혼들은 천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고혼들을 천도하고 왕생극락을 축원하여 주는것이 부모의 도리이다.

이 세상에는 낙태를 경험한 부모가 많다. 이들 부모들은 태아의 고혼을 천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고혼을 위하여 천도의 기도를 올려주고 염불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선업으로 말미암아 이승에서 복을 받고 가정이 편안하며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있는 과보를 받게 된다.

**오 형 근** 〈동국대 교수〉

## 미세한 태아, 감정·분별력 있어 낙태하면 부모에 원한 가져

## 천도재 봉행 극락왕생 축원…원혼은 생사의 무상 깨달아

## 사람의 탄생과 태교

### 아비의 정 어미의 혈 결합 오장·근골·기육 등 구성

### 뱃속 10개월이 태어난후 10년보다 중요 임부는 '心身一如'로 계율지켜야

아기를 낳아 기르는 일은 이 지구상의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자연적으로 행하고 있는 본능이다.

모든 생물의 본능인 이 종족의 계승행위는 자웅(雌雄)의 교합과 임신, 그리고 출산·양육으로 이루어지는 생물본연의 일이어서 사람 역시 이러한 임산(姙產)행위들은 원시시대로부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인생과제로 여겼다.

동양문화의 배경에서 발상된 동양의학의 가장 오랜 원서인 황제내경(黃帝內經)에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는 아비의 정과 어미의 혈의 결합으로 부모의 신명을 이어받아 탄생하는 것이며, 그 신명에 따라 혈과 기가 화합하게 되고 영(營)과 위(衛)가 조화되어 오장(五藏)이 자리잡히고, 근골과 기육이 구성되는 것이며, 호흡과 음식과 행동 등 모든 생명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사람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다.

동양의 산아관은 건전한 사람을 탄생케 하기 위하여 자연섭리를 존중하고 우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모로서의 임무와 노력을 다하는데 있었으며, 특히 양친(兩親)과 자식사이의 유전사상에서 정신적 자질형성에 역점을 두었음을 볼 수 있다.

임신이 되면 누구나 태아를 잘 길러서 건강한 자식을 낳게 하려는 소원을 품게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태아가 충실하게 성장되는 것은 모체의 혈액이 하는 것이고, 태아가 튼튼하게 보호되는 것은 모체의 기와 혈이 충만하고 조화가 잘 이뤄져야 한다.

임부의 모체와 태아는 심신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임부의 영양이나 건강상태가 태아의 안전과 성장발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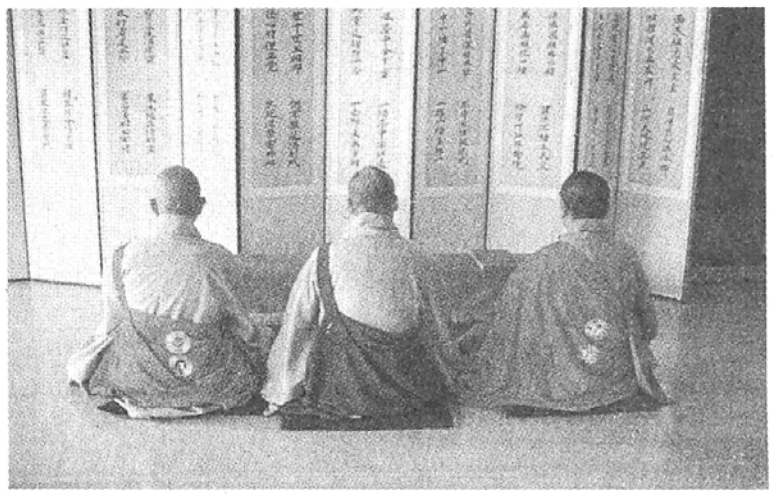
그러므로 임부의 심신을 통하여 태아의 건전을 도모하거나 발육을 조정하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임부가 몸안에 있는 태아를 위하여 몸과 마음의 수양을 모범하여 태아의 인성(人性)을 함양시키는 태내교육이 바로 태교다.

동양에서 일찍이 태교가 성행되었던 것은 동양에서는 인체에 대한 관념이 육체의 발육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장과 발육도 같이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심신일여(心身一如)의 사상을 기초로 해왔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육체와 정신이 함께 탄생되는 것이고 양육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언제나 일치되어야 하고 특히 마음의 발달이 우선하는 것으로 여겨온 것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성(性)은 자연섭리에 의한 것이지만 그 기질(氣質)은 부모가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난 후에 10년을 가르치는 것이 임부가 뱃속에서 10개월 기르는 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모는 태교라는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태아에게 사람으로서의 정신적 바탕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 종 형** 〈동국대 방배동 한방병원장〉



◇ 낙태의 방지는 불자들이 앞서야 할 계율실천이기도 하다. 사진은 낙태아의 영가천도를 위한 의식.


생활 한자와 예쁜 글씨를 함께 배우는

每日漢文

매월 4,000원
일시불 값 10,000원
통신 주문제 실시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 속에 漢字로 된 우리말이 70%
가정과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
3개월 코스!

주요내용 : 명심보감 해설 / 고사성어 / 일반 상식 / 1일 1언(금언)

도서출판 한넋다비드
전 화 : 551-8474~5
우체국 : 013805-0016528
국민은행 : 067-0170-091

벼랑끝에 서서 길을 묻는 여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부처님의 메시지

온세상이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되는 방법! 겸손한 부자가 되는 비결!

석·존·의·목·소·리·에·귀·기·울·여·보·십·시·오

부처님과 여성들

기구한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 새롭게
비구니로 태어난 여인들의 소설같은 삶과 구도의 이야기
여인들의 다친 가슴과 슬픔을 어루만지는
석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십시오.
그 안에 진실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법과
참다운 부자가 되는 비결,
그리고 여인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벗고
사바세계를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는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곽철 편저/335면/6,000원/신국판



최초의 여성불교 바쿠멘타리

데리가타 붓타차리타 등경전 속의 여성실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2동 320 개암빌딩 밀알 전화 5290140~5 팩스 5792312



◇ 아란존자에게 감화를 받은 도적떼들이 구도의 길을 떠나고 있다.

# 5백도적 나한되는 대평원의 드라마

## 불교영화 '카루나' 몽골촬영 현장취재

2천5백년전, 부처님제자 아란존자에 의해 나한이 된 5백도적이 몽골의 초원위에 화현했다.

시대를 뛰어넘어 재현된 오백도적의 무리는 이일목감독(51)이 제작중인 불교영화 '카루나'의 한 장면.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몽골 현지 촬영에 나선 '카루나'는 6백여필의 말과 현지 기마부대 장병 5백여명이 엑스트라로 동원되어 웅장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말들의 간격이 너무 떨어졌어. 흩어지지 말고 곧장 달리도록 해. 자, 이번 한번으로 끝마칩시다. 레디-고."

이감독이 워키토키를 통해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조감독에게 한바탕 고함을 치고 특유의 몸짓으로 싸인을 보낸다. 까마득한 초원 저편에 서서히 말이 나타나고 순식간에 함성과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한다. 사방에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헬기까지 동원되어 5백필의 말이 달리는 웅장한 모습을 필름에 담아낸다.

촬영장소는 몽골수도 울란바트르에서 1백여㎞ 떨어진 비양창드만. 1백50만평의 초원위에서 수차례의 NG를 거듭하자 말들이 지쳤다는 통역의 목소리가 다급하다.

섭씨 30도가 웃도는 땡볕아래서 2~3㎞를 젖먹던 힘까지 내어 수차례 달리다 보니 사람보다 말이 먼저 지쳐버린 것이다.

새벽부터 시작된 초원에서 말들이 질주하는 장면은 점심무렵에야 끝이 났다.

당초 5백필의 말이 질주하는 장면은 제주도에서 촬영하기로 돼 있었다. "관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이감독의 소신으로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몽골촬영이 감행됐다. 더구나 말 한 필 빌리는데 20만원 하는 국내 사정에 비해 몽골에서는 약 4천원에 불과해 제작비 절감의 효과도 보았다.

## 말 6백필 장병 5백여명 엑스트라로 동원



◇ 몽골의 기마부대원 5백명이 오백의 도적으로 분장하고 마을을 약탈하러 달려가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을 추석에 개봉될 '카루나'는 남과 북이 불교의 자비정신으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 민족통일의 봉일을 이루자는 광복 50주년 통일영화.

고려도공 후예 양천수 일가의 비극을 담고있는 이 영화는 두 아들이 6·25전쟁이 일어나자 국군과 인민군으로 갈려 서로 총부리를 겨누게 되고 그 2세들이 통일을 염원하며 비색청자를 재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몽골촬영은 영화에서 3분가량의 상징하는 장면이다. 5백도적이 도적질을 하던중 부처님의 자비사상에 감화되어 나한의 경지를 증득하는 내용으로 남북간의 화해를 상징하고 있다.

오후 촬영은 도적떼가 마을을 약탈하던중 아난존자에게 감화를 받는 장면.

여름이면 밤10시까지 해가 지지 않는 몽골의 자연환경으로 어둠이 깔리기까지 촬영팀은 강행군을 했다.

'카루나'는 여주인공 옥소리의 삭발장면을 끝으로 촬영을 마치고 오는 20일경 첫 시사회를 갖는다.

이감독은 "한국영화의 자존심을 세계에 보이기 위해 내년 칸느와 베를린영화제에 '카루나'를 출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련 인터뷰 7면)

몽골 비양창드만=이준엽 기자

## "불교에는 성차별 없다"

### 이영자 교수 '불교여성론' btn서 특강



◇ 이영자 교수

'불교에서의 여성은 과연 열등한가?' 동국대 이영자교수(불교학)는 지난 23일 구룡사 문화회관 1층에서 열린 btn특강에서 이같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불교에서의 여성은 결코 열등하지 않음을 역설했다.

ch32를 통해 지난 27일 방영된 이교수의 강연 내용을 소개한다.

**강연요지**

불교가 추구하는 목적은 해탈, 성불이다. 해탈이란 궁극적 자유, 해방을 우리인간이 체험적으로 증득함을 의미한다. 이 목적을 여성이 실현할 수 없다면 불교에서 보는 여성은 열등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BC 6세기의 경전에 보면 많은 여성제자들이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올랐음을 부처님께서 시로 읊은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불관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였는데 부파불교 즉 소승불교에서는 여성의 성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상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초기 대승불교시대가 되면 여성이 성불할 수 있지만 남성의 몸으로 변신해야 가능하다는 사상으로 변천한다.

이어 대승불교시대에는 남성이나 여성이 공평하게 성불하며 여성은 여성의 몸 그 자체로서 성불한다고 한다. 이러한 성불관의 변천은 인도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관련이 없지않다. 부라마니즘 사회의 가부장적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의 경전은 완전한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인류역사상 종교교단에서 독립된 여성교단이 존재한 것은 오직 불교의 비구니승교단뿐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비록 니승교단의성립이 늦게 이루어지긴했지만 이것은 불교의 완전한 평등사상을 불교교단이 인정했다는 사실로 세계 종교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다.

계율의 많고 적을 또한 사회적 여건과 관계속에서 증가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해탈하는데 있다. 남녀의 생리적 성차 (性差)는 부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 인간의 사회문화적 존재로서의 삶도 부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만민평등사상의 종교인 불교는 결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 불자축구스타 '바조' 언제오나

## 월드컵 유치위해 교계서 초청

### 국내서만 논의상태…시기 아직 못정해



◇ R.바조

바조의 방한문제는 일면스님과 영담스님, 가수 김흥국씨, 불교방송 조문래씨가 최근 "월드컵스타 바조를 초청하여 내년 7월 2002년 월드컵 축구 주최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 축구붐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대두됐다.

이러한 입장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것은 축구협과 결런티문제등을 협의하고 이탈리아 대사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긍정적인 회답을 얻으면서부터.

"바조가 국내에 초청되면 4~5일 일정으로 체류하며 종정스님을 예방하고 해인사등의 사찰찾아 법회를 통해 불교위상을 강화하고 여건이 허락되면 바조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도 초청하여 국내팀과 친선경기도 펼치도록한다"는 것이 일면스님(흥국사 주지)은 밝혔다.

또 영담스님은 "그러나 아직까지 바조선수 사정과 의사타진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없이 논의만 거친 상태여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광복 50돌기념 특집 다큐물 다채

btn

BBS

### 해방이후 한국 불교계 50대 주요 사건 되짚어

### 개화승 이동인 활동상·소안도 독립운동 방송

8·15광복 50주년을 맞아 btn과 BBS는 다채로운 특집다큐멘터리를 마련한다.

btn은 광복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체적인 한국불교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광복 50년 불교50대 사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이인성 최상우씨등 4명의 PD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 프로그램은 1백분 방송용으로 불교가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재점검해 보는 프로.

광복이후 1940~50년대해방공간의 불교에서 △한국전쟁과 불교(50~53년대) △불교정화운동의 전개와 성과(54~60년대) △불교현대화운동의 명암(7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전개와 성과(80년대) △해방 50년 변화한불교,종단개혁운동의 성과와 문제점까지 다시다뤄졌던 반세기의 한국불교 50년의 불교역사가 펼쳐진다.

BBS는 광복 50주년 특집으로 '사라진 개화승 이동인'과 '소안도 아리랑'을 제작한다.

'사라진 개화승 이동인'은 일본에 건너가 근대적인 문물과 제도,사실을 흡수하여 유대치, 김옥균,박영효,서재필 등에게 전해주었고 게이요대학의 설립자인 후쿠자와 유기치와도 교류한 신출귀몰한 인물로 평가되는 이동인스님의 활동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프로이다.

불교방송 취재팀(김정학,유진화PD 김상영교수)은 지난 13일부터 23일가지 11일간 교토 히가시 혼간시,동본원사,가라쯔의 고덕사,쯔쿠바도서관등을 찾아 이동인스님이 거쳐간 채취를 더듬어 보고 재일 한국인 사학자 한석희,강재헌,이진희선생을 만나 이동인스님의 진실을 채록했다.

이와함께 광주불교방송도 항일운동의 샘터였던 전남 진도의 소안도를 중심으로 '소안도 아리랑'을 제작한다.

'소안도 아리랑'은 소안학교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독립운동등을 일으켰던 지역민들의 활약상을 현지인의 증언과 학자들의 연구자료에 의해 정리해 보는 3부작 다큐멘터리.

이프로는 이름없는 섬 소안도 독립운동의 사회적배경과 독립운동가의 산실 소안학교의 교육과정,소안항일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밝혀 묻혀진 항일투쟁의 역사를 재정립한다.

김원우 기자

### 불교방송 공공DB 개통

### 1일부터 서비스 시작

불교방송이 정부로 부터 선정받은 공공DB '불교정보'와 '해외교포 거주지역' 정보가 지난 1일 개통,일반인들에게 공개서비스를 시작했다.(본보 32호 참조)

불교방송이 개발한 정보는 한국통신의 컴퓨터통신망 Hitel에서 직접 DB란으로 들어간 후 관련항목을 열람하면 된다.

불교방송이 개발한 공공DB는 시험운용되는 6개월간 무료로 서비스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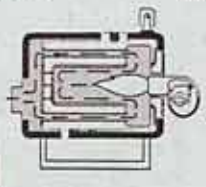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어장 용 보일러가 풍요한 결실을 약속합니다

국내 보일러 판매 1위 회사인 저희 귀뚜라미가 만든 횡형 보일러는 수박, 토마토, 특용작물 재배 및 양어장에서 그 진가가 빛납니다. 가동이 중단되면 급속하게 공기가 냉각되어 작물에 피해를 주는 기존 온풍기와는 달리 귀뚜라미 보일러는 하우스내 흙바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운기기름 등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귀뚜라미의 세계적인 신기술인 터보 소용돌이버너가 부착되어 연료비가 훨씬 적게듭니다. 또한 이상이 있을시 전국 161개 대리점망을 통한 신속한 A/S실시로 사시사철 안정적인 수확이 보장됩니다.






세계적인 연료절약형 터보소용돌이버너



강압통풍식 3PASS구조
별다른 송풍장치 없이도 노내의 높은 압력을 형성하는 구조의 연료절약형 횡형보일러입니다.




횡형 보일러는 비닐하우스 높이가 낮은곳에 설치가 편리한 보일러입니다.

귀뚜라미보일러
SINCE 1962
대표전화 : 02) 798-5126

귀뚜라미 횡형보일러
보일러 국산 1호기로서 최장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횡형구조로 천장의 높이가 낮은 하우스 설치에 적합합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부품수명이 다할때까지 무료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